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연구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1. 03. 31.  
디자인 제작 올드뉴스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http://www.bscf.or.kr>  
전화 051-745-7205~208(정책연구센터)



위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써 “공공누리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연구기획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 연구	조 정 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공동연구 (가다나순)	김 수 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 예 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김 정(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연구지원	원 향 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박 선 미(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석사과정) 김 가 영(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4학년)
연구자문	김 동 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박 지 선(사회적기업 미디토리 이사) 송 교 성(플랜비 지식공유 실장) 윤 성 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정 경 숙(완월동 기록연구소 소장) 정 수 진(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조 현 민(DRB 지속성장부문장)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	2
2) 연구 목적	3
□ 부산의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 확산 계기 조성	3
□ 문화예술 사회적 활동의 지식 공유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 시공간적 범위	3
□ 내용적 범위	4
2) 연구 방법	6
□ 국내외 문헌조사	6
□ 워킹 그룹 구성 및 전문가 자문, 단체 청취 조사	6
□ 향후 과제 제시	6
□ 연구 흐름도	7

II .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의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의 전개과정	9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확산	9
□ 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가?	9
□ 공적지원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가치의 흐름	10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 ‘애드보커시’의 중요성	13
□ 공적지원을 받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	14
□ 예술지원의 정당성 이슈로 부각	15

2. 사회 위기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	16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의 위기	16
□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는 문화예술의 복원성(Resilience)	16
□ 코로나 19발 위기 속에서 예술 기관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7
3.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20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	20
□ SDGs 관련 해외 문화예술 동향	20

### III.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국내외 관련 연구 분석	26
□ 국내 관련 연구 동향	26
□ 해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연구 동향	28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주요 역할	40
2. 건강 및 웰빙 증진	43
□ 예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	43
□ 호스피스 아트(Hospital Art)	44
3. 지역사회 문제 완화	49
1) 지역 도시환경 개선	49
□ 기피 지역의 변화.	49
□ 낙후 지역의 변화	51
2) 고령화 문제 완화	52
□ 일본 논바닥 뮤지컬 위원회(田んぼdeミュージカル委員会) 사례	52
□ 일본 기타나고야시 역사 민속 자료관 사례	53
4. 환경,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55
□ UNESCO - Culture in City Reconstruction and Recovery(CURE)	55
□ 네덜란드 - 친환경 농업과 예술의 결합, GROW 프로젝트	55
□ 일본 - Art Revival Connection TOHOKU (ARC>T)	56

5.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 통합	58
1)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58
□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58
□ 일본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문화정책과 커뮤니티 아트 사례	59
2)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64
□ 일본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포섭	64
□ 샌다이 미디어 테크 - 3월 11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센터	65
□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 에이블 아트와 포용 예술	66
□ 세대 간 예술(intergenerational arts) - 매직 미(Magic Me)	69
6. 사례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72
1) 사회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	72
□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접근	72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정책의 관계 횡단적 경향	72
□ 문화정책과 사회정책 통합의 독일 사례	73
□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의 실질적 기능화	74
□ 문화가치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통합적 정책접근 체계 구축	75
2) 부산 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안 및 시사점	76
□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부산 구상(안)	76
□ 사회적 영향 확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술 장르 탄생	78

### IV.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

1.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화	82
1) 사회적 가치와 사회문제	82
□ 사회적 가치 및 사회문제의 개념	82
□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부산의 사회문제	83
□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	83



2.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사례 및 시사점	85
□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별 주요 사례	85
□ 부산 특화 사회문제 관련 주요 문화예술 활동 사례의 시사점	101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예술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02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의 방향성	103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론	106
1) 연구조사 의의 및 시사점	106
□ 연구조사의 의의	106
2) 정책적 제언	106
□ 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류	106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10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7
1) 연구조사의 한계.	107
□ 문헌 조사 위주 연구 방법론의 한계	107
□ 활동 현장 조사 및 수혜자 의견 수렴 한계	107
2) 향후 과제	108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후속 연구 – 툴킷(Toolkit) 제작	108
□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애드보커시	108

VI. 참고문헌 109

부록 112

표목차

[표 1] 국내외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사례 조사 1차 양식	4
[표 2] 국내외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사례 조사 2차 양식	5
[표 3] 연구 일정	7
[표 4] 대표적인 문화의 부가적 가치	14
[표 5] SDGs 실천을 위한 UNESCO Culture2030 Indicator	21
[표 6] EU의 SDGs 기반 2030 이행전략	22
[표 7]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연구 범위 분류 체계 및 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26
[표 8] 예술의 가치 인식을 정책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27
[표 9] 해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연구 내용 분류	28
[표 10]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에서 소개하는 문화예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	31
[표 11] 일본의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문화예술 사례 연구조사	39
[표 12]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	41
[표 13] 17세기~20세기 낭트시 역사, 문화, 산업의 흐름	51
[표 14] ARC>T 조직 구성	57
[표 15] 지역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유형	60
[표 16] 매직 미의 예술과 세대 프로그램 주요 내용	69
[표 17] 사회적 가치 구성 요소 및 문화예술 분야 적용 가능성 여부	82
[표 18]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의 일반 매칭형 프로그램 수혜자 수	86
[표 19]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 참여자 후기	86
[표 20] 매축지마을 인형극단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88
[표 21] 매축지마을 인형극단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2	89
[표 22] 호모화투스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91
[표 23] 부산시 구군별 빈집 비율(%)	92
[표 24]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93
[표 25]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94
[표 26] 기부공간 활용 형태	96
[표 27] 반딧불이 사업 기부공간 현황(2021년 기준)	97
[표 28] 연도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주요 내용	98
[표 29]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98
[표 30] 최근 3개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내 환경 관련 프로그램	99

그림목차

[그림 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흐름도	7
[그림 2] 공적지원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가치의 흐름	12
[그림 3]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애드보커시의 필요성	13
[그림 4]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의 예술지원 애드보커시	15
[그림 5] 영국 CyberFirst 프로그램 관련 문화예술 가치 논란 사례	16
[그림 6] 시즈오키시종합계획 구상도	23
[그림 7] 스위스 제네바 ‘Revi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rt’ 캠페인	24
[그림 8] AFTA ‘예술의 사회적 영향 툴킷’	29
[그림 9] Sustainable Development 도식	34
[그림 10] 문화예술 활동이 건강, 교육 및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35
[그림 11] Impact Value Patheways 도식	36
[그림 12] Measurable Outcomes of Cultural Engagement	37

## 그림목차

[그림 13]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로부터 도출한 사회적 이익을 재정적으로 환산한 사례 .....	38
[그림 14]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 .....	41
[그림 15] 키워드로 본 문화의 사회적 영향 .....	42
[그림 16] The Foundation for Hospital Art 활동사진 .....	44
[그림 17] Hospital Art .....	46
[그림 18, 19] 아트 프로젝트 활동사진 1, 2 .....	47
[그림 20, 21] 서울예술치유허브공간 사진 1, 2 .....	48
[그림 22, 23] 코가네초 바자르 2020 현장 사진 1, 2 .....	49
[그림 24, 25] 전주 선미촌 사례 .....	50
[그림 26] 르 리외 유니크(Le Lieu Unique)의 과거와 현재 .....	52
[그림 27, 28] 일본 논바닥 뮤지컬 현장 1, 2 .....	53
[그림 29, 30] 기타나고야시 역사 민속 자료관 내부 1, 2 .....	54
[그림 31, 32] GROW 프로젝트 1, 2 .....	56
[그림 33] Art Revival Connection TOHOKU (ARC>T) .....	56
[그림 34, 35] ARC>T 센다이 연극공방 10-BOX 내 연습실과 오픈오피스 .....	57
[그림 36]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	59
[그림 37, 38]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작품 1, 2 .....	60
[그림 39, 40, 41, 42] 탄보 아트 작품과 제작 과정 .....	61
[그림 43] 탄보 아트(Rice Paddy Art) .....	62
[그림 44, 45] 성북구 장수마을 작은 음악회(좌), 벽화(우) .....	63
[그림 46] 사회 포섭으로 이어지는 예술 활동의 가치 .....	64
[그림 47] 3월 11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센터 .....	65
[그림 48] 에이블 아트(ABLE ART) .....	67
[그림 49] 포용 예술(Inclusive Arts) .....	68
[그림 50] 매직 미 활동 관련 네 가지 원칙 .....	70
[그림 51] 매직 미 활동사진 .....	71
[그림 52] 매직 미의 세대 간 예술(Intergenerational Arts) .....	71
[그림 53] 도시정책의 중심에 서야 할 문화예술 .....	74
[그림 54] ‘문화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	75
[그림 55] 문화로 사회통합 이루는 정책구도 및 전략체계 .....	76
[그림 56]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 위한 문화예술의 영향 확산 .....	77
[그림 57]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예술가에 미치는 영향 .....	78
[그림 58] 정책적 시사점 .....	80
[그림 59]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부산 단종장기 추진과제 .....	83
[그림 60] 부산지역 사회지표 특징 .....	84
[그림 61]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 활동 형태 .....	85
[그림 62] 2017~2020년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	86
[그림 63]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된 점 .....	87
[그림 64] 부산 동구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연도별 변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87
[그림 65] 부산 중구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연도별 변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90
[그림 66] 부산 완월동 일원 골목재생 활성화 대상지역 .....	95
[그림 67, 68]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 프로그램 .....	96
[그림 69, 70] 반딧불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에서 진행된 전시회 및 시민향유 프로그램 .....	97
[그림 71, 72] 비치코밍 활동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	100
[그림 73] 비치코밍 활동으로 만든 작품 전시회 .....	100
[그림 74] 비치코밍 결과물 페페트병을 이용한 작품(해운대구) .....	101

# I .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코로나 19발 문화예술 위기와 문화예술인 실직 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UNESCO는 Culture & COVID-19 Impact and Response Tracker<sup>1)</sup> 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코로나19가 끼친 영향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의 문화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Culture&COVID-19Impact and Response Tracker에서 발간한 ISSUE<sup>2)</sup>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문화와 창조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문화의 본질적 가치 표현,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있어 인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 결국, 코로나 19로 인하여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 패러다임 등 많은 것들이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의 사회적 영향 확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문화정책분야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Values)와 영향(Impacts)의 확대는 공적지원 정당성의 논거가 되며, 최근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국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도 일자리, 인구, 에너지, 지역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혁신 의제의 문제 해결에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 정부 부처 간 정책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 [부산문화 비전 2030],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역시 부산 문화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1) <https://en.unesco.org/news/culture-covid-19-impact-and-response-tracker>  
2) UNESCO는 Culture&COVID-19 Impact and Response Tracker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계문화유산, 문화기관, 관광지 등과 관련된 총 10가지의 ISSUE를 발간하였다.

2) 연구 목적

□ 부산의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 확산 계기 조성

- 동 연구는 문화예술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례 조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공공재적 가치 인식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의 가치 흐름 분석에서 나타나는 최근 동향인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전 방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 문화예술 사회적 활동의 지식 공유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지역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문화예술 활동 관련 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한 사회 각 분야별 활동 영역의 확장계기를 조성한다.
- 동료 학습과 사례의 지식 공유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네트워크 확장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에는 적극적 문화예술 향유와 지원을 위한 애드보커시<sup>3)</sup> 체계를 구축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공간적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 국내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의 이론적 배경을 위한 문헌 분석은 별도 시간적 범위를 두지 않고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했다. 또한 국내외 사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주목을 받으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부산의 경우 최근 5년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② 공간적 범위
  - 국내외 문화예술인에 의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communitiy)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활동 사례와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부산의 문화예술단체가 시행하는 사회 문제 해결 문화예술 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직접 조사, 의견청취를 통해 사례를 분석했다.

3) 애드보커시(Advocacy)란 사전적으로 생각, 행동 노선, 신념 등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또는 변호를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창작, 참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애드보커시'로 지칭하고 있다.

□ 내용적 범위

- ①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관련된 해외 연구 동향(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국내 주요 문화예술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 ②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류화
- 국내외 관련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문제 해결력, 사회 공헌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영향의 마인드 맵핑 및 로직 트리(logic trees)로 사회적 영향을 분류화하였다.
  - 또한 문화예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와 방식 등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 및 분석했다.
- ③국내외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사례 조사
- 국내외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활동 사례를 아래와 같은 양식에 의거 조사하는데, 1차 양식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세부 분류를 통해 예술장르를 파악하고, 단체(개인)이 예술활동을 수행하며 협업한 주체, 예술활동의 수혜 대상, 풀어나가고자 한 사회문제 유형, 활동방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차 양식에서 조사된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 2차에서는 이를 단순화 하여 ‘사회문제’와 ‘해당 장르’를 분류하여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국내외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사례 조사 1차 양식

연번	구분	조사주체(주관)	비고
1	대 분 류	추후논의(예시: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진흥법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진흥법)	
2	세부분류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진흥법	<input type="checkbox"/> 문화유산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생활문화 <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 및 관련 유·무형 문화적 활동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진흥법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미술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연극 <input type="checkbox"/> 영화 <input type="checkbox"/> 연예 <input type="checkbox"/> 국악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어문 <input type="checkbox"/> 출판 및 만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주 체	<input type="checkbox"/> 단체	○단체명: ○대표자 성명: ○설립년도:
		<input type="checkbox"/> 개인	○성명:
4	협업주체	○	
5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6	사회적 문제(유형)	○	
7	활 동 명	○	
8	주요활동기간	○	
9	활동방법	○	
10	시 사 점	○	
11	기타	○	

[표 2] 국내외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사례 조사 2차 양식

# 사회적 문제 유형

(대표 이미지)

○단체명(대표자 명)/개인명:  
○설립년도:  
○협업:

# 해당장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기타(    )

○활동명:  
○기 간:  
○내 용:  
○대 상:☐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URL :

○ 앞서 언급한 연구 동향 분석,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류화, 국내외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사례조사를 통해, 부산 광역시에서 드러나는 사회문제를 유형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와 부산문화재단의 사업 사례를 소개 및 분석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쟁점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했다.

- 부산 사회문제 유형화 및 문화예술 활동사례 소개  
-부산의 사회문제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유형화
- 부산문화재단 유사 사업 사례 분석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문화공유팀, 예술지원팀의 유사 사례를 분석
- 활동별 시사점 및 쟁점사항 제시  
-활동별 사례 영향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이슈 제시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문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유형화하고, 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 애드보커시 활동을 분석한다.
- 국내외 관련 유사 연구 동향 역시 사례 중심의 문헌조사를 연구의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동 연구 역시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조사의 어려움과 국내외 이동의 물리적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부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주로 문헌 분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 워킹 그룹 구성 및 전문가 자문, 단체 청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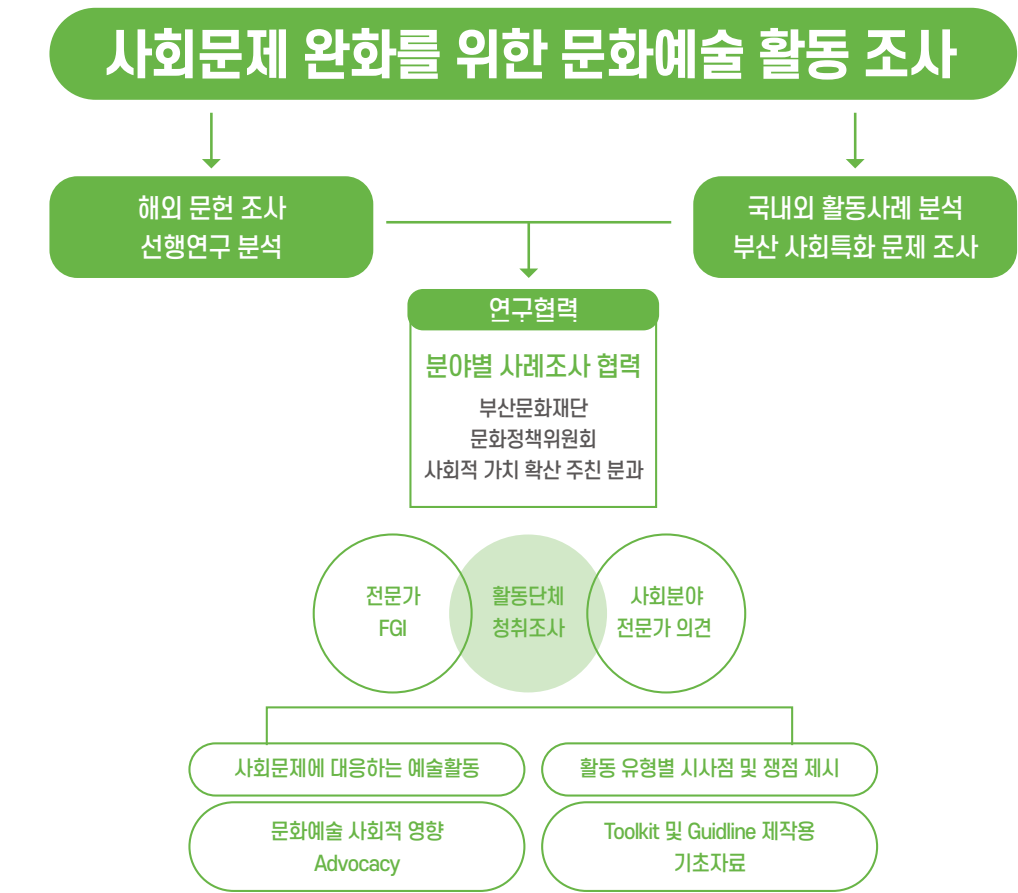
-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사회적 가치실현 분과위원들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조사를 통한 주요 사회문제의 유형, 대상, 영역을 설정한다. 또한 부산의 사례별 단체 청취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파악한다.

□ 향후 과제 제시

- ①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의 toolkit 및 guideline (향후 연구과제)
- 활동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수행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 또한 공급자(수행단체)와 수혜자, 매개자의 역할 분담 사항을 제시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제시한다. (SNS 및 ICT 활용 캠페인 등)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보 창고 역할 수행을 돕는다.
- 부산형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 네트워크(소셜 앙트러프러너쉽, CSR)를 구축한다.

□ 연구 흐름도

[그림 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흐름도



□ 연구 일정

[표 3] 연구 일정

추진내용	11월	12월	2021.1월	2월	3월
문헌검토 및 분석(조사의 이론적 배경)					
국내외 사례 조사					
부산 사례 분석(유형, 대상, 영역)					
사례별 지식공유(FGI, 청취조사)					
활동별 시사점 및 활용방안 제시					
향후 과제 제시					

## II.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의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전개과정
2. 예술의 위기와 사회적 역할
3.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 II.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의 이론적 배경

### 1.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의 전개과정

####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확산

-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며, 창조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지점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UN에서 제시한 17개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p>4)</sup>) 과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점차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Globalization 4.0(개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화)과 함께 ‘문화다양성’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 앞서 말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정책 실행 중간지원 기관(funding agency)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 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가?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달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예술체험에 따른 개인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촉매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객관적 사실이나 지표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공적 재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sup>5)</sup> 프로젝트는 개인의 변화와 발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재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서구사회에서는 공공예술 혹은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사회 자본의 증대, 커뮤니티 재건과 발전, 사회 변화 촉진, 인적 자본 발달, 경제적 성과 개선 등의 효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제시한다.
-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social impact study)’는 재정악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럽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켜 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책적 차원에서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sustainable-development-goals.html>

5) 사전적 개념으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예술"을 일컫는다.



□공적지원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가치의 흐름

- 서구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지원은 1946년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의 출범과 그 궤를 같이함. 2차 세계 대전 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정책 경향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은 1960년대 보물과 보웬의 저서 ‘공연 예술의 딜레마’ 출간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지원 정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공연예술의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조정하여 비용 질병(cost disease)을 공적지원으로 보존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 문화 향유 가치는 전 세계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가 되었고, 각 국가별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국민의 문화향유는 문화의 본질적, 부가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문화정책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 전 세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이 1980년대 경제위기와 함께 국가 재정악화로 등장한 대처리즘(Thatcherism)은 문화의 가치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바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John Myerscough (1988)은 그의 저서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에서 영국 사회에서 예술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역설하며, 문화예술 공적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존 마이어스코프는 대처 영국 정부가 예술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공적 예술 지원을 축소하자 이에 대한 논박으로 저서를 집필 하였다.<sup>6)</sup>
- 1990년대 문화예술의 경제적 중요성은 문화정책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문화예술의 공적지원이 유럽에 비해 미약한 미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중 직접적인 효과(direct effect)는 물론 spillover 효과와 같은 간접적인(indirect effect)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확산된다.<sup>7)</sup>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 하면서 든 예시들은 조사방법론의 문제와 논리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 서구사회는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을 해왔다. 예술교육은 관객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예술경영의 주요 연구 분야였다. 미국의 Americans for the arts 등 해외의 주요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지금도 여전히 문화의 사회적 영향에서 교육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게 된다. 국가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교육부와 문체부의 협업을 통한 문화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00년대 밀레니엄 도래와 함께 영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분권(Decentralization)"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핵심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culture led urban regeneration),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적극적으로 문화재생의 정책적 활용을 하고 있으며, 도시정책의 핵심요소로 문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경향이 대세다. 문화정책적 화두와 함께 각 지역의 폐공간, 공장, 학교, 역사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국내외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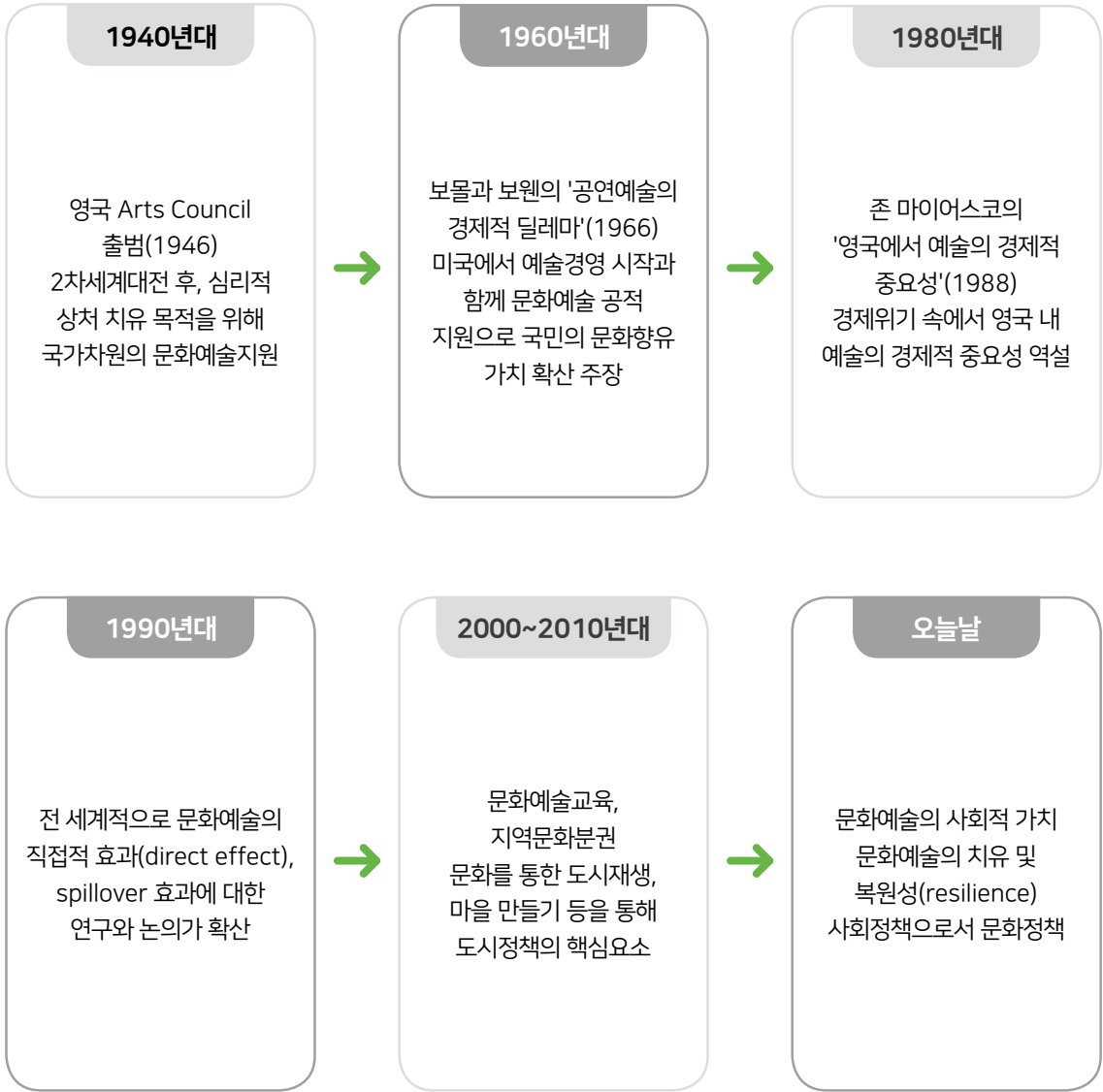
- 2010년대 이후 국내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책의 화두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문화재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즉 문화재생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안서련, 2014)에서는 문화공간 재생과 활성화를 통한 재생을 하드웨어적 문화요소를 활용한 재생, 축제와 음악산업 등을 통한 지역재생을 ‘소프트웨어적 문화요소를 활용한 재생’,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경영 전문인력, 예비 문화인력 지원을 통한 재생을 ‘휴먼웨어적 문화요소를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분류 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김연진, 2015)에서는 도시의 문화적 재생에 대해서는 ‘문화를 통한 재생’과 ‘도시의 문화를 재생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문화재생의 모델로 공공예술형, 마을만들기형, 예술창작마을형 등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 현재도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 등 문화예술의 도시재생 가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어, 문화예술의 공적지원 근거에 있어 도시재생 가치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적지원의 근거로 가장 부각되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점을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정책, 사업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오늘날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가치’는 지금까지 문화예술 공적지원의 관점에서 밝혀진 다양한 가치를 종합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 본연의 가치와 부대 효과, 교육적 가치, 지역재생의 가치 등 사회의 특정적 관계에서 나타난 개별적 가치를 종합·세분화·유형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6) 존 마이어스코프는 영국에서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은 예술은 고용효과 증진, 지역개발 촉진, 관광진흥 등의 부대효과가 있다는 점을 통계로 제시하였다. 당시 그의 주장들은 정부 문화정책에 각성의 계기를 마련한 측면도 있었지만 예술이 가지는 본연적, 내재적 가치를 도외시 하고 예술을 산업적, 경제적 관점으로만 간주하였다는 문제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7) 미국의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Group에 의해 2004년 발간된 보고서 ‘The Economic Role & Impact of Lincoln Center’는 링컨 센터의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고용유지의 강력한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8) 문화예술경영－복합학문으로서의 전망－(박신의, 2013)에서는 폐기된 산업시설물을 활용한 도시 재생프로그램은 폐기된 산업시설물을 허물지 않고, 그것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보유하면서 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존하는 방식이라 정의하고 있다. 산업 시설물 가운데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것은 중앙 혹은 지방정부 주도 하에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문화관광적 요소로 집중하기도 하지만, 유산적 가치가 덜한 곳은 예술가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창작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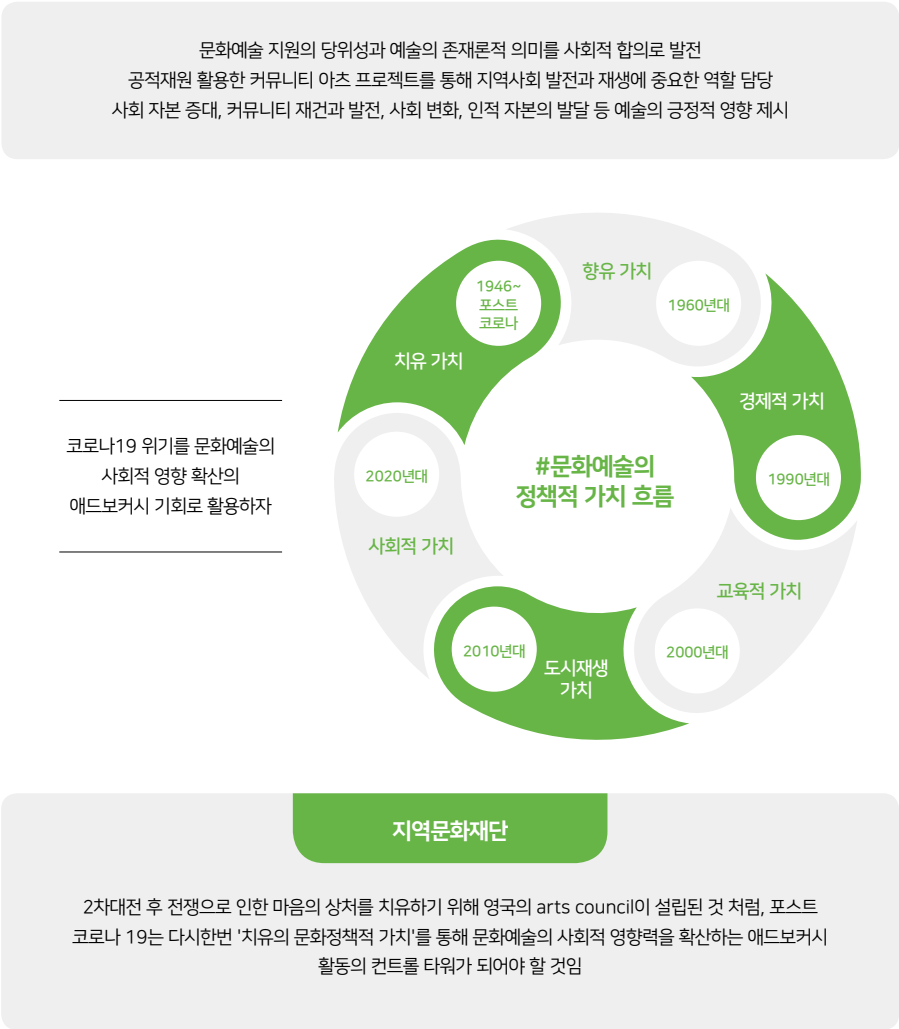
[그림 2] 공적지원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가치의 흐름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 ‘에드보커시’의 중요성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문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일본 문화정책학자 이케가미 준의 문화의 본원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에드보커시의 필요성



- 이케가미 준에 따르면, 문화의 가장 본원적 가치는 인간의 생래적 욕구의 하나인 ‘정신적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예술이란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형식을 만드는 시도”라는 허버트 리이드의 정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좋은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마음에 ‘아름다움’(美)을 선물하여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즉, 사람의 오감을 통해 두뇌에 쾌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즐거움과 만족감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케가미 준 외, 1999: 141) 한편, 문화의 부가적 가치는 심리적 기쁨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기여하는 외부적 가치를 말하는데, 이것이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표적인 문화의 부가적 가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sup>9)</sup>

9) 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김정수, 집문당, 2010, p68~p70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4] 대표적인 문화의 부가적 가치

구분	내용
위상가치 (위광가치) (prestige value)	문화적 매력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해당국가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가치
선택가치 (option value)	현재 소비되지 않는 문화예술이라도 보존해둔다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가치
유증가치 (bequest value)	문화예술을 후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교육가치 (education value)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창조성, 수용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치
유발효과 (spillover effect)	문화는 소모성과 오락성만을 가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전과는 다른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효과를 지님
외부효과 (externalities)	문화 활동 주변 산업 분야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 (예시 : 축제 개최 시 해당지역 내 숙박, 식당, 교통업계의 경제적 이익)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은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며, 이것이 주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문화는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 문화 예술이 가진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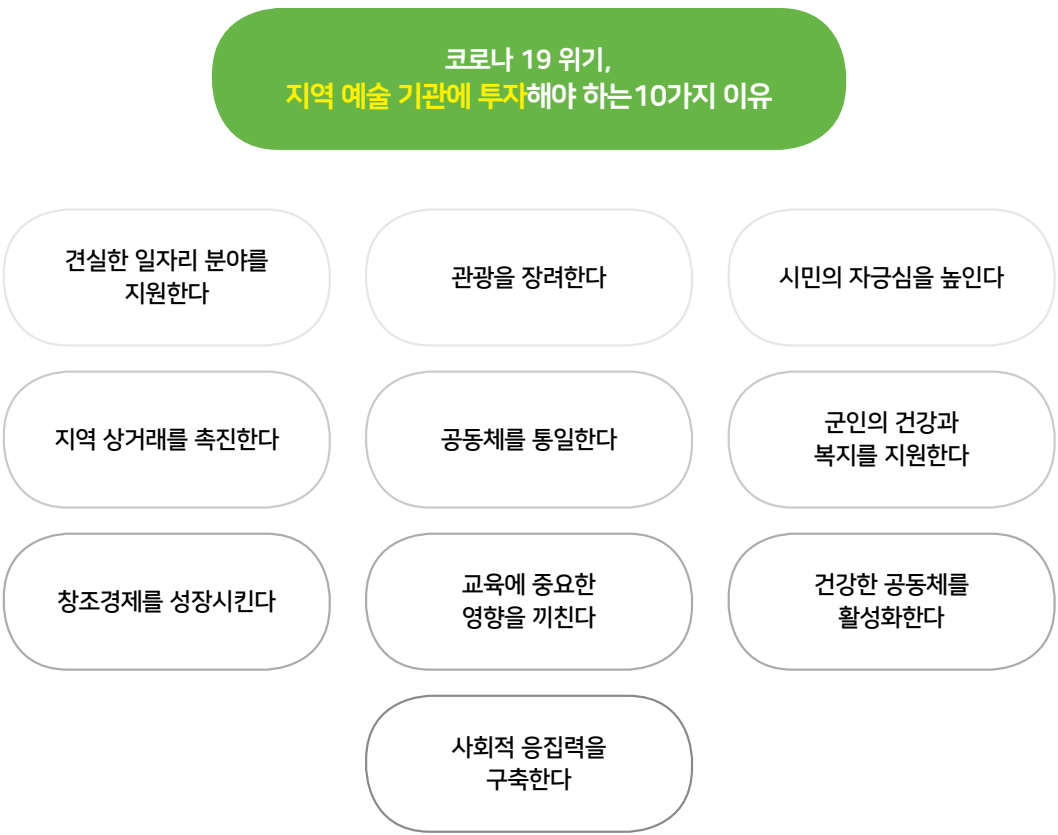
□ 공적지원을 받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

- 문화행정론의 김정수(2010)는 특히 공적 지원을 받는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강변하는데, 그에 의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문화적 공공(公共) 부(cultural common wealth)의 극대화’라는 점이다. 특히, 정홍익(2001)이 주장하는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혜를 받는 예술가들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다”는 점을 재인용 하며, 공적 지원을 받는 예술가들은 ‘공동체를 위한 예술’을 지향해야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문화예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망을 고려할 때 문화적 취향이 약하거나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회 공동체의 행복이 크게 위축됨을 의미하여, 정부의 책임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이해하여 문화예술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문화 도구주의는 오랜 시간동안 회자된 논의이나,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써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 예술지원의 정당성 이슈로 부각

○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 공적지원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Americans For The Arts (AFTA)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 공적지원이 미약한 미국 정부, 기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술을 지원해야하는 정당성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FTA는 미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예술 지원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수치와 통계를 중심으로 논리적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의 예술지원 애드보커시



AFTA의 정책적 시사점

예술의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미국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문화예술의 공적지원과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술의 '치유의 힘'을 강조

2. 사회 위기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의 위기

- 코로나 19로 예술가의 실직 위기가 전 세계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예술의 위기와 예술가의 존재가치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싱가포르의 Straits Times는 싱가포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예술가(71%)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직업으로 선정되어, 예술가의 존재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 영국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주관으로 청년들의 디지털 기술향상 목적의 CyberFirst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발표한 다음의 포스터가 논란이 되었다. 동 포스터와 관련된 사건은 영국 대표적 연출가인 매튜 본을 비롯하여 예술가의 직업적 위기감을 조장한다는 영국 문화예술계의 대대적 반발에 부딪혀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예술의 위기와 존재에 대한 찬반양론 설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림 5] 영국 CyberFirst 프로그램 관련 문화예술 가치 논란 사례



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 한편 독일에서는 정부의 대담한 문화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극장, 박물관, 갤러리 종사자들은 여전히 지원금이 바닥나는 몇 달 후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예술가 개인들이 예술행위를 통해 수입을 얻기보다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체 수입원을 찾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문화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는 문화예술의 복원성(Resilience)

- 코로나 19로 드러난 각종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문화적 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현상과 가치관, 행동양식이 형성되면서 사회문제 역시 이전과 다른 구도를 갖게 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고독사, 자살, 사회적 고립, 고령화와 저출산, 환경 문제 등의 영역에서도 문화를 통한 새로운 해결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의 복원성을 통한 문화정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졌다.
- 결국 문화정책의 복원성과 사회적 영향 확대를 시도함에 따라 문화 관련 영역 및 산업 기준 정책 사업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예술 애드보커시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 코로나 19발 위기 속에서 예술 기관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sup>10)</sup>

- 미국의 지역 예술 기관(예술 위원회, 예술 위원회, 문화 부서)은 COVID-19를 계기로 경제 재건과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을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각인시키는 애드보커시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미국 내 4,500개 지역 예술 에이전시(LAA)는 예술의 역동적 가치를 지원, 발표, 홍보하고 있는데, LAA는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통해 건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한편 코로나 19 위기를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투자를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제시하는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의 애드보커시 활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지역 예술 기관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역경을 맞이하며 최근 3년간 AFTA가 발표한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조명하고 있는 점은, 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이다. 이는 내적 감정, 정체성 등을 표현하거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데에 큰 영향력을 선사하는 예술 활동이야말로, 소통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치유를 위한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0) Reasons to Invest in Your Local Arts Agency During a Crisis (Posted by Mr. Randy Cohen, May 26, 2020) [https://blog.americansforthearts.org/2020/05/26/10-reasons-to-invest-in-your-local-arts-agency-during-a-crisis?fbclid=IwAR0EnD\\_tYbgcZtO4PPOuBLIF8170YWMnh\\_DWwLVbePOGQtMwC1ifJT\\_CM3M](https://blog.americansforthearts.org/2020/05/26/10-reasons-to-invest-in-your-local-arts-agency-during-a-crisis?fbclid=IwAR0EnD_tYbgcZtO4PPOuBLIF8170YWMnh_DWwLVbePOGQtMwC1ifJT_CM3M)

(1) 견실한 일자리 분야를 지원한다. Support a robust jobs sector.

-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사회에 실직이 만연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이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
- 미국 경제분석국 통계에 의하면 문화예술은 8,780억 달러 규모의 산업(비영리, 상업, 교육)으로 교통, 관광, 농업 보다 국가 경제의 4.5%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비영리 예술 산업만 해도 관련 기관과 그 관객이 지출하는 것으로 연간 1,663억 달러의 경제 활동이 창출되며, 4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2) 지역 기업에게 상거래를 제공한다. Drive commerce to local businesses.

- 72%의 미국인들이 연극, 박물관, 동물원 또는 음악 공연과 같은 문화 행사에 참석한다.
- 예술계 참석자들은 입장료 이외에도 소매 지출 및 숙박비 등 행사 당 평균 1인당 31.47달러를 지출한다. 전국적으로 예술 관객들의 행사 관련 지출 총액은 1,030억 달러이며, LAA의 49%가 지역 사업 강화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력한다.

(3) 창조경제를 키운다. Grow the creative economy.

- 고용된 성인의 60%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일수록 직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Conference Board의 Ready to Innov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성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추구하는 5대 응용 기술 중 하나이다(72%는 채용 시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 예술에 대한 참여는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LAA의 3분의 1 이상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을 생산한다. (예: 직원 참여, 예술 자원 봉사, 아티스트 레지던스)

(4) 관광을 장려한다. Promote tourism.

- 여행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예술을 우선 목표로 여행하는 이들은 여행지에 더 오래 머물면서 진정한 문화 체험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는 이상적인 관광객이 될 것이다. 예술 행사 참석자의 34%는 예술 행사가 열리는 지역 외 사람들이며, 한 사람당 평균 47.57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현지인이 아닌 참석자의 14%는 숙박비로 1인당 162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LAA의 62%가 컨벤션 관광국과 협력하고 있다.

(5) 공동체를 통일한다. Unify communities.

- 예술은 공공 장소에서 공유된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인의 72%는 "예술은 나이,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미국의 공동체를 통일한다"고 믿는다. 인구의 81%는 예술이 "험난한 세상에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73%는 예술이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동의한다. LAA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 평등, 인종적 인식 개선, 시민 참여에 대처하기 위해 예술을 활용한다.

(6)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Partner in education.

- LAA의 76%는 지역사회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더 높은 내신, 표준화된 시험 점수, 더 높은 대학 진학률과 더 낮은 중퇴율을 보인다. 이러한 학문적 혜택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7)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Improve civic pride.

- 공공 미술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인식을 높이고 관광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한다. 70%의 미국인들은 예술이 그들 공동체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향상시킨다고 믿는다. LAA의 54%가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 군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한다. Suppor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military.

- 예술은 군 복무자와 재향군인을 위한 전쟁의 정신적, 신체적, 도덕적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창작 예술 치료의 효과성은 다양한 치료법 40개 중 상위 4위를 차지한다. LAA의 26%는 지역사회에서 군대나 참전군인 단체와 관련이 있다.

(9)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한다. Promote healthy communities.

- 지역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이 활용된다. 미국 전역의 과반수 이상의 병원은 병원 입원, 통증 관리, 약물 치료 등의 환자에 대한 치유 효과 때문에 환자, 가족, 직원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73%는 예술은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큰 즐거움'이라고 느낀다.

(10)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한다. Build social cohesion.

-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예술이 시민 참여, 사회적 화합, 높은 아동 복지, 낮은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LAA의 67%가 COVID-19 사태 당시 지역의 정신과 사기를 높이고 지역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예술적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3.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

- 2015년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 ‘한명이라도 소외 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으로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했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17개 목표에 문화 분야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UN 산하 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의 사회적 영향’ 강화를 위해 문화계에서도 SDGs 적극 연계 사례가 늘고 있다.

□ SDGs 관련 해외 문화예술 동향

- 국내에는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 보고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sup>11)</sup>이 발표되었으나, 후속연구와 문화예술기관의 실천전략이 부족한 가운데 제시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행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네스코를 비롯한 해외 문화예술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① UNESCO

- 유네스코는 2018년 ‘Culture for the 2030 Agenda’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PEOPLE), 세상(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5가지 분야(5Ps)에서 문화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설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최근에는 ‘Reshaping Cultural Policies (global report 2018)’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정책 재구성의 목표 추구를 SDGs에 연계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SDGs 17개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해외 동향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교육 분야가 SDGs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디어와 예술이 기본이 되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 교육가들은 SDGs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sup>12)</sup>
- 2019년 11월 유네스코 본부 문화부장관 포럼을 계기로 SDGs 이행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Culture2030 지표를 개발했다. 지표는 총 4개의 주제영역과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UN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문화영역 주제별 지표에 해당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1) 본 연구는 SDGs의 주요 실천과제들과 ‘문화’간의 관계, SDGs의 실행에 기여하는 국내 문화정책의 가치, 목표, 정책지표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가치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다양성 (Diversity)’이라는 근본적인 지향가치를 모토로 ‘포용(Inclusion)’, ‘혁신 (Innovation)’, ‘회복(Resilience)’, ‘참여(Participation)’를 제안하며, 25대 선도지표를 제시하였다.

12) 캐나다 예술교육가인 마크 레이드(Mark Reid)는 Arts Education and the SDGs라는 기고문(2017)에서 “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SDGs 17개 각 과제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양질의 교육(4)에서는 종합교육에 예술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표 5] SDGs 실천을 위한 UNESCO Culture2030 Indicator

주제영역	구분	지표명	SDGs 연관과제	
환경과 회복력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노력 수준을 평가 공공 공간 및 문화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공간적 평가			
	1	유산에 대한 지출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2.4 지속가능한 식량 제공 및 경영 6.6 물 관련 생태계	12.b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13.1 기후 및 재난 복원력
	3	기후 적응 및 회복탄력성	9.1 양질의 인프라	14.5 해양지역 보전
	4	문화시설	11.4 문화 및 자연유산 11.7 포용적인 공공장소	15.1 지속가능한 지상 생태계 16.4 도난당한 자산의 회수
	5	문화를 위한 열린 공간		
번영과 생활	경제의 주요 측면(GDP, 무역, 고용, 기업, 가계 지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 평가, 문화거버넌스 관련 지표			
	6	GDP로 보는 문화		
	7	문화 분야 고용		
	8	문화산업	8.3 직업, 기업가 정신 및 혁신 8.9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9	가계지출	8.a 무역 원조 증가	
	10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 무역	10. 무역에 대한 차별적 대우 11.4 문화 및 자연 유산	
	11	문화를 위한 공공재정		
	12	문화 거버넌스		
지식과 기술	지역문화 가치, 지식 및 기술 구축에서의 문화의 기여도 평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가치 전달, 문화교육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평가			
	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14	문화적 지식	4.4 고용 기술 4.7 지속 가능한 개발 기술	
	15	다중언어 교육	8.3 직업, 기업가 정신 및 혁신 9.c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16	문화예술교육	12.a 지속 가능한 소비 13.3 기후 적응 교육	
	17	문화 트레이닝		
	포용과 참여	포용과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결속력 구축에 있어 문화의 기여도 평가 공공 생활에서 지역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의 기능 평가		
18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	9.1 양질의 인프라 / 공정한 접근 9.c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19		예술적 자유	10.2 사회적 포용	
20		문화 접근성	11.7 포괄적인 공공 장소 16.7 참여적 의사 결정	
21		문화 참여	16.10 기본적 자유 16.a 폭력 예방	
22		참여 과정	16.b 차별 금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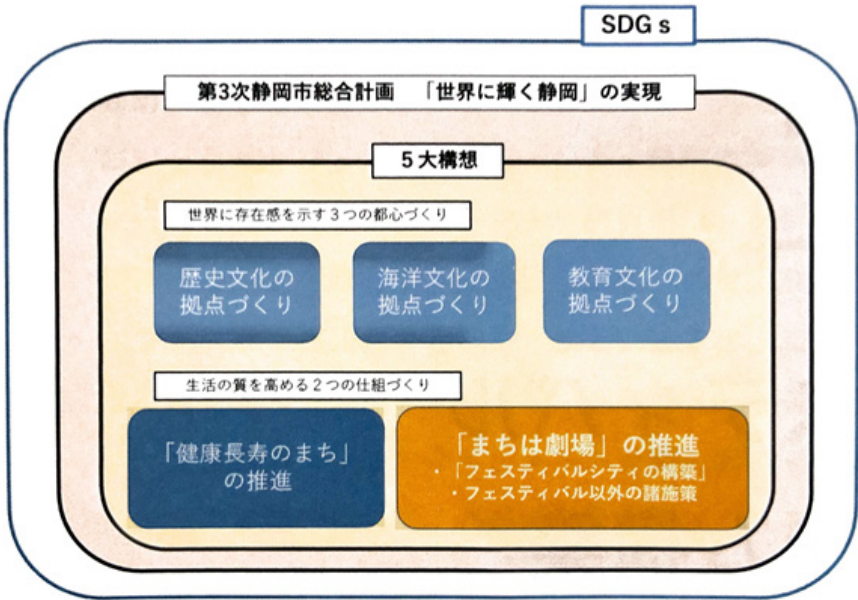
- ② EU의 Culture in SDGs 사례<sup>13)</sup>
- EU 회원국은 출선수범하여 SDGs 이행 전략에서 문화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문화 분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연대를 통한 SDGs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EU가 제시하는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전략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영역에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EU의 SDGs 기반 2030 이행전략

구분	관련 SDGs	이행전략
1	 <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인권·성평등·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세계 시민권, 문화 영향력 및 문화 다양성 등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2	 <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중소기업 회사의 성장을 장려하고, 창조와 혁신, 기업가 정신, 양질의 일자리 창조,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증진시키는 데에 일조한다. 또한 지역 문화와 상품들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을 창안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계의 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마련한다.
4	 <SDGs 13> 기후변화 대응	홍수, 지진, 폭염 등 기후 변화의 징후로 인해 문화와 자연 유산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세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회복성을 우선 순위에 포함한다.
5	 <SDGs 16> 인권·정의·평화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예술가, 학계, 언론인들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에 대한 지지강화를 추구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 지속가능발전의 초석을 닦는다.

- ③ SDGs 해외 도시 사례1 – 일본 시즈오카
- 일본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도시인 시즈오카시는 UN의 SDGs를 도시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여, 모든 도시 정책의 가장 상위목표로 SDGs가 존재한다.
  - SDGs를 중심으로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 제3차 시즈오카시종합계획(2018)은 [세계에 빛나는 시즈오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구상을 설정하였고, 문화를 가장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 ‘세계에 존재감을 나타내는 3개의 도심부 만들기’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의 거점 만들기’ ‘해양문화의 거점 만들기’ ‘교육문화의 거점 만들기’를 3대 구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역시 문화가 중심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2가지 시스템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강장수 도시 추진’과 ‘도시 극장의 추진’을 계획하였는데, ‘거리예술과 축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육성·양성 것을 도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5대 구상의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로드맵으로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SDGs를 도시 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다시금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 시즈오카시종합계획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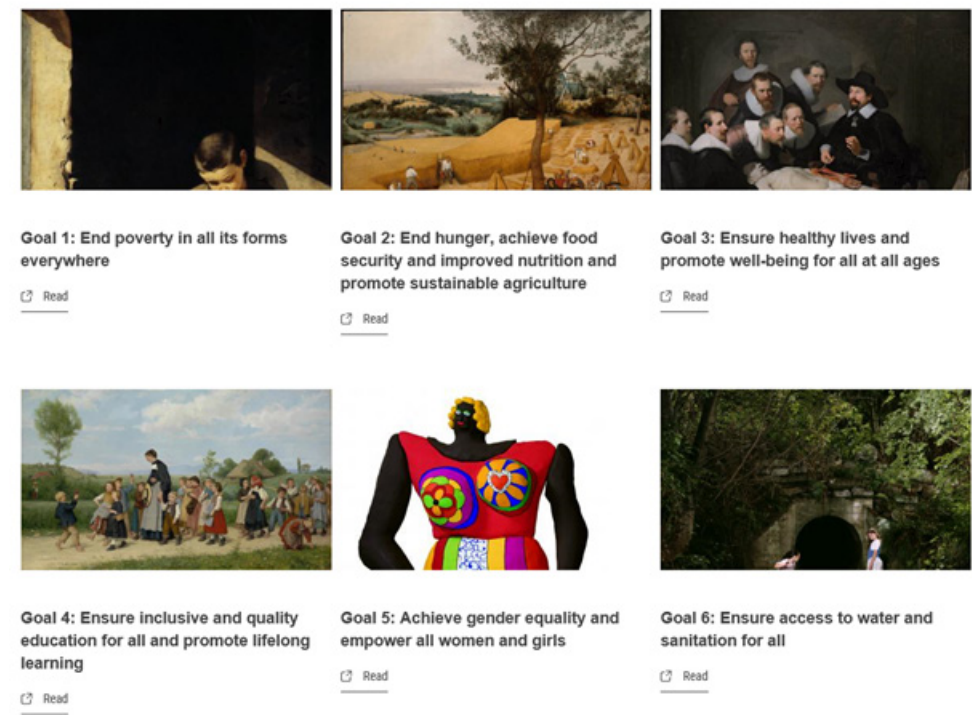


13) IFA, 「Cultur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p25~37, 2020.06.

④ SDGs 해외 도시 사례2 – 스위스 제네바

- 스위스 제네바는 ‘Revisi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rt’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각예술을 이용한 SDGs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17개 과제를 유명한 명화에 적용하여 SDGs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 선택된 명화 작품은 조르조네(Giorgione), 압데세메드(Abdessemed), 브뤼헐(Bruegel), 하주메(Hazoum) 등 르네상스에서 현대미술에 이르는 예술가 등 다양하며, 현대사회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도전을 담은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 UN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통계 대신 대부분의 작품은 17개 과제가 제시하는 감정, 고통, 모순을 그린 작품이 많은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유엔의 SDGs에 대한 공감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결국 예술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조성의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7] 스위스 제네바 ‘Revisi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rt’ 캠페인<sup>14)</sup>



### III.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국내외 관련 연구 분석
2. 건강 및 웰빙 증진
3. 지역사회 문제 완화
4. 환경,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5.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 통합
6. 사례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14) <http://www.geneve-int.ch/revisiting-sustainable-development-goals-through-art>

Ⅲ.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국내외 관련 연구 분석

□ 국내 관련 연구 동향

- ① 서울문화재단 :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 2018년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자료로,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의도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여러 예술활동의 양태와 관련된 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한 연구이다. 동 연구는 전문가 설문,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담론을 위주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예술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 동 연구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개념 정립을 위해 연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연구 범위 분류 체계 및 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구분	의미	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지역 외 사회(조직, 기관 포함)에 개입하여 그것의 혁신을 목적으로 함	사회적 활동의 ‘지속성’과 ‘조직화’에 중점을 둔 활동 단체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지역에 개입하여 지역을 재생하거나 혁신할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 활동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와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화동하는 단체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메이커문화 등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함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
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공동체 차원에서 예술기반 교육이나 심리치유를 목적으로 한 예술 활동	지역민, 청년, 독거노인, 미혼모, 새터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을 만나 예술교육이나 예술치유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
사회행동으로서 예술	사회참여나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 예술 활동을 일컬음	예술행동 현장에 참여해서 활동한 예술가 및 활동가로 선정

- 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에 대한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근대 이후 예술정책에 관한 담론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특히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의 논의와 연구결과들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총체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담론과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고, 향후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설계와 연구방향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또한 동 연구는 예술활동 또는 향유와 참여가 자동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술이 가진 가치가 긍정적인 맥락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8] 예술의 가치 인식을 정책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sup>15)</sup>

현안 과제	1. 예술 가치 관련 공감대 조성	2. 예술 본질적 가치의 재인식	3. 예술지원정책 설계/평가 개선
국내 상황	• 정책 담당자 비롯, 일반국민들의 ‘예술의 가치’ 인식 수준이 낮음	• 예술의 ‘도구적 가치’, ‘경제적 영향’이 지나치게 강조	• 계량적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향후 방향	• 예술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 관계된 타 부처와 기관 담당자, 일반국민 등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왜 예술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조성 필요	• 예술과 관련된 활동, 향유, 참여가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개인적 · 사회적 ·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함  • 예술의 가치가 구현됨에 있어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함	• 예술의 가치가 발현되는 과정의 관리가 중요  • 정책의도와 결과 간에 간극 발생 시, 예술의 가치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환류하는 것이 필요함
-------	---------------------------------------------------------------------------------------------	-----------------------------------------------------------------------------------------------------------------------------------------	-----------------------------------------------------------------------------------------------------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표한 동 보고서는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정책제언과 함께, 위원회의 개별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에 대한 평가지표의 보완점과 혁신적 전환을 제안한다.
  - 또한 동 보고서는 예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가 왜 예술을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있으며, 서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p305~310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해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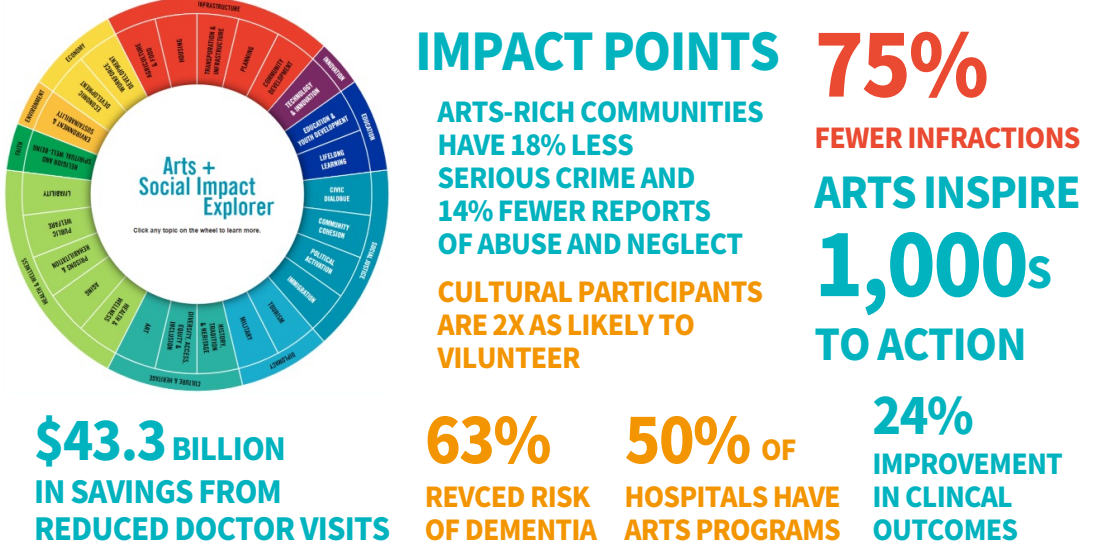
[표 9] 해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연구 내용 분류

국가	대표 연구	연구 내용 분류
미국	the Arts + Social Impact Explore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 기반시설 (Infrastructure)</li><li>• 혁신 (Innovation)</li><li>• 교육 (Education)</li><li>• 사회 정의 (Social justice)</li><li>• 외교 (Diplomacy)</li><li>• 문화유산 (Culture &amp; Heritage)</li><li>• 건강과 복지 (Health &amp; Wellness)</li><li>• 종교 (Faith)</li><li>• 환경 (Environment)</li><li>• 경제 (Economy)</li></ul>
프랑스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 culture, arts and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사회체계 수립 (Community level)</li><li>• 범죄 감소 (Crime reduction)</li><li>• 시민 교육을 위한 여가시간 (Leisure time for citizenship education)</li></ul>
영국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술과 건강(Arts and Health)</li><li>• 예술과 웰빙(Arts and Wellbeing)</li><li>• 예술과 범죄(Arts and Crime)</li><li>• 예술과 사회자본(The Arts and Social Capital)</li><li>• 예술과 교육(The Arts and Education)</li><li>• 예술과 복합적 영향(Arts and Multiple Impacts)</li><li>• 사회변화의 촉매로서의 역할(The Arts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li><li>•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li><li>• 도시재생(Regeneration)</li></ul>
캐나다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개발(Culture, sustainability and community development)</li><li>• 문화, 웰빙과 사회적 결합(Culture, wellbeing and social cohesion)</li><li>• 문화, 소통과 참여(Culture, connectedness and participation)</li><li>• 문화와 시민의식(Culture and citizenship)</li><li>• 문화와 건강, 교육(Culture and health/education)</li></ul>
호주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ARTS WA(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가지 소셜 아웃컴(Social Outcomes)분류</li><li>• 건강(Health)</li><li>•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li><li>• 교육(Education)</li></ul>
일본	社会課題の解決に貢献する文化芸術活動の事例に関する研究調査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지역 브랜딩, 관광산업 진흥, 산업 진흥</li><li>• 유희 건물 활용, 청년들 전입 증가, 낙후된 지역 이미지 업·치안 회복·유지</li><li>• 마음의 케어, 건강 증진</li><li>• 개인 존재의식, 정체성 확인</li><li>• 사회적 포용력</li><li>•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li></ul>

① Arts + Social Impact Explorer

- Arts + Social Impact Explorer는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 애드보커시와 캠페인 활동을 하는 Americans for the arts 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툴킷’으로, 교육, 직업 안정, 주택, 공공 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온라인 툴이다. 이 툴킷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문화예술 옹호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예술에 대한 참여,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동 툴킷은 관광 건강, 이민, 혁신, 종교,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최고 권위의 연구 보고서, 사례 프로젝트, 논문, 유관 기관의 정보 등 1,000개가 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예술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예컨대 전역 군인들을 지역 사회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Arts + Social Impact Explorer에서 Military를 클릭한다. 초기화면에서는 예술과 군대에 대한 용어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Learn More를 클릭하면 세부 설명과 함께 예술과 군대의 연관성과 관련된 ‘팩트 시트(fact sheet)’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군대 분야 팩트 시트에 따르면, 군인들 3명 중 2명은 예술요법으로 우울증을 개선했고, 트라우마 뇌손상 환자는 스트레스 수준이 83% 감소하였다. 또한 예술 치료법은 수십억 달러의 치료비를 절감시키며, 참전용사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 순위 5위에 올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AFTA ‘예술의 사회적 영향 툴킷’





○결국 Arts+ Social Impact Explorer의 근원적 목적은, 예술의 가치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여 지자체나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술의 영향을 인식하고 문화정책이나 문화예술 공적기금을 통해 예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앤드루W. 멜론재단, 크레세 재단, 드리스뉘크자선재단이 있다.

②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 culture, arts and development

○동 연구는 프랑스 사회 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 되어 왔는지를 언급하고 있다.<sup>16)</sup> 또한 프랑스 지역발전 원동력으로써의 문화 관련 활동이 어떻게 정치적·이론적·제도적 근거 요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함과 동시에, 지나친 문화 도구적 활동은 오히려 문화가 가진 본질적 가치를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이 단순히 수량적으로 평가되거나 금전적 수치로만 해석될 경우,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분야의 사회적·무형적 측면을 조명하는 이론적·사례적 논의를 중심으로 일관된 문화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장 ‘문화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는 개인과 지역사회 발전과 관계된 문화 활동의 영향을 설명하는 참고 문헌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적 영향 평가와 관련된 추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치료의 동질성(homogeneity of treatment)
- 효과의 동질성(homogeneity of effects)
- 효과의 선형성(linearity), 인과관계(causality), 분리성(isolation), 지속성(sustainability)

○또한 제2장은 인지발달, 신체적 건강, 웰빙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이 사회자본 및 지역 화합 구축 측면에 있어서 집단적 변화보다 개인에게 미치는 외부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어져 왔다고 말한다.

○한편 동 보고서 내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인 마리달(Marid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문화의 역할이 더욱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발’에 있어 다른 어떠한 개인적인 동기(motivation) 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가치에 의해 문화의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했다. 영향 평가는 어떠한 비용 측면에서 성공적인 이익의 가려진 증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 과정과 그 매커니즘을 이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 체계에 미치는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해석하는 실증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안한다.

16)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문화에 기반한 지역 역동성(cultural-based local dynamics)이 경제사회 발전, 도시재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도구로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고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역동성은 문화가 전해주는 상징과 지식을 통해 가치 있는 제품, 서비스, 경험을 창출하고 수출하는 기회로 문화자산을 이용하고 있음을 이론적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제3장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가치관 구축’에서는 문화에 의해 유발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를 정렬함으로써, 집단적 차원에서 문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먼저, 문화 활동의 개인적 영향이 공동체에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공공의 중요 역할을 살펴보고, 문화예술이 유발하는 사회적 효과와 그 기회 확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 간 협업을 추진하고, 상향식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자본 구축,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자본은 의미와 기호 체계를 통해 가치가 높은 제품과 경험을 생산·수출할 뿐 아니라 지역밀착형 행동을 촉진 할 수 있는 사회학습의 횡단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유발할 수 있어 기존 성장모델의 대체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 연구는 문화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가치 구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영역에서 분석모델을 빌려와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차원의 사회적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기에는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문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 실제 사례로, 유럽문화수도<sup>17)</sup> 기마 랑이스(Guimarães)와 브라질 Sesc<sup>18)</sup> 상파울루(Sesc São Paulo)를 언급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분석하여 제시한다.

[표 10]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에서 소개하는 문화예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

사례	상세 내용	문화가 미친 영향	결과 해석시 주의사항
2012 유럽문화수도 기마랑이스(Guimarães)	•문화 프로그램이 지역 범죄 수준 하향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미친 영향 분석 실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범죄 감소	일반화의 오류
Sesc 상파울루(Sesc São Paulo)	•여가활동으로 유발된 사회자본과 지역 참여가 가져온 영향에 관한 분석	시민의식 함양, 사회교육적 효과	

○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역할은 경제적 외부효과 측면뿐만 아니라 무형적 외부효과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일관된 이론적 프레임워크, 엄격한 경험적 접근, 보다 견고한 정책 및 제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17) 유럽 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도시를 매해 선정하고, 1년간 해당 도시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18) 브라질 비영리 단체 Sesc가 운영하는 복합문화센터

③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 동 보고서에서는 예술 참여와 건강(health), 사회자본(social capital), 범죄(crime), 교육(education)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 예술이 건강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한 증거는 임상적·비임상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확장된다. 예컨대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바 있듯, 음악은 일반인들과 뇌졸중 피해자들 모두에게 건강상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과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범죄자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들은 의사소통 기술, 팀워크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 또한 문화적 참여가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강한 연대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예술 참여와 사회 포용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 참여는 문화 시민권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며, 사회 기술 개발에 기여하여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는 문화예술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 참여는 정체성, 인간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예술 참여가 곧 최종 학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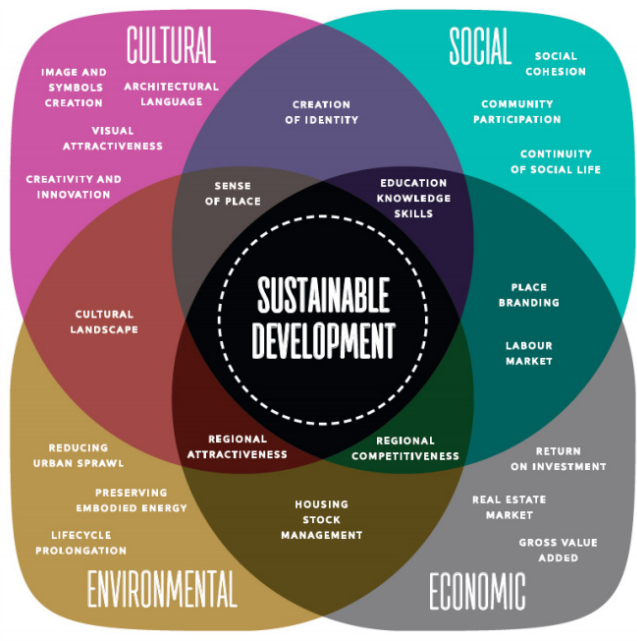
④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M. Sharon Jeannotte(2017)는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인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를 발간하였다. 타 연구와 달리 문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문헌 연구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시각예술, 문학, 공연예술을 포함하는 전문(professional)·아마추어(amateur) 창작 예술(creative arts), 둘째, 이를 지원하는 산업·단체(방송·영화·출판·음악·디지털미디어) 셋째, "유산(heritage)" (유적, 유적지, 아카이빙, 도서관)이라는 라벨로 분류되는 것들의 큐레이션 및 보존 활동이 그것이다. 한편 사회적(social)인 분야 분류는 보건(health), 교육(education),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 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 및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정의 (social justice), 정체성 연구(identity studies) 및 도시 연구(urban studies) 등으로 분류하였다.
- 앞서 기술한 분류법을 바탕으로,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한다.

- 문화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및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 웰빙(wellbeing) 및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이라는 개념과 문화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
- 연결(connectedness) 및 참여(participation) 증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검토하는 프레임워크
- 시민권(citizenship) 역량 구축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조사하는 프레임워크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이나 관련 연구가 주로 비판 받는 것 중 하나는 방법론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연구들이 문화예술로부터 얻은 산출량, 경제적 수익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술에 참여하는 것과 특정 효과 관계 사이를 증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건강에 예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연구의 실험 설계 단계에서 종종 실험 대상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하는 것이 문화의 사회적 효과 연구에서 "최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신,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량적 분석과 사례 연구의 질적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문화는 일반화 할 수 없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시스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통합적 방법론을 활용해 문화예술의 여러 잠재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보고서에서는 <유럽문화유산 진단(Cultural Heritage Counts)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유럽 문화유산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삶의 곳곳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가시화하였다.

[그림 9] Sustainable Development 도식<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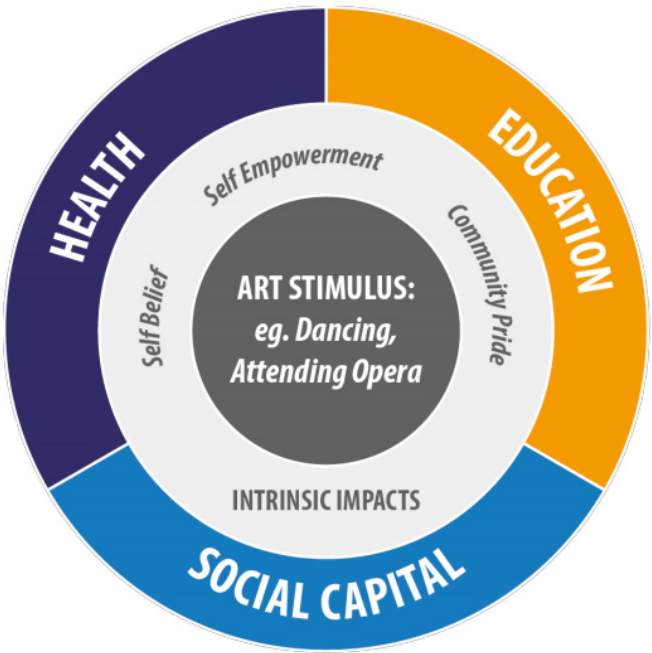


⑤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ARTS WA

- 호주 역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들이 기금수혜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편익이 정량화 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및 경제 정책 목표에 대한 문화 예술 활동의 기여와 기여한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론이 부족하다.
-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주 정부가 발행한 Social Impact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창출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편익을 확인하고 수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연구 방식을 instrumental impacts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영향 영역 (경제, 사회, 시민, 환경)을 포함하며, 동 연구는 문화예술의 사회적(social) instrumental impact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람들은 예술활동을 할 때, 그 활동으로부터 얻는 고유한 경험, 생각,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결과물'은 대규모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으며, (McCarthy et al 2001; Holden 2004, 2006, 2009) WA주 정부 문화예술부와 컬처카운트(Culture Counts)가 개발한 PVMF(Public Value Measurement Framework) 사회적 가치 측정 프레임워크 (Public Value Measurement Framework, PVMF)로 계량화할 수 있다. PVMF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은 증가하는 자기신념(Self Belief), 자기위임(Self Empowerment), 소속감, 개인의 사회적 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다른 결과들과 같은 본질적인 반응을 자극하며, 이 자극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19) M. Sharon Jeannotte, University of Ottawa,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2017, p9

[그림 10] 문화예술 활동이 건강, 교육 및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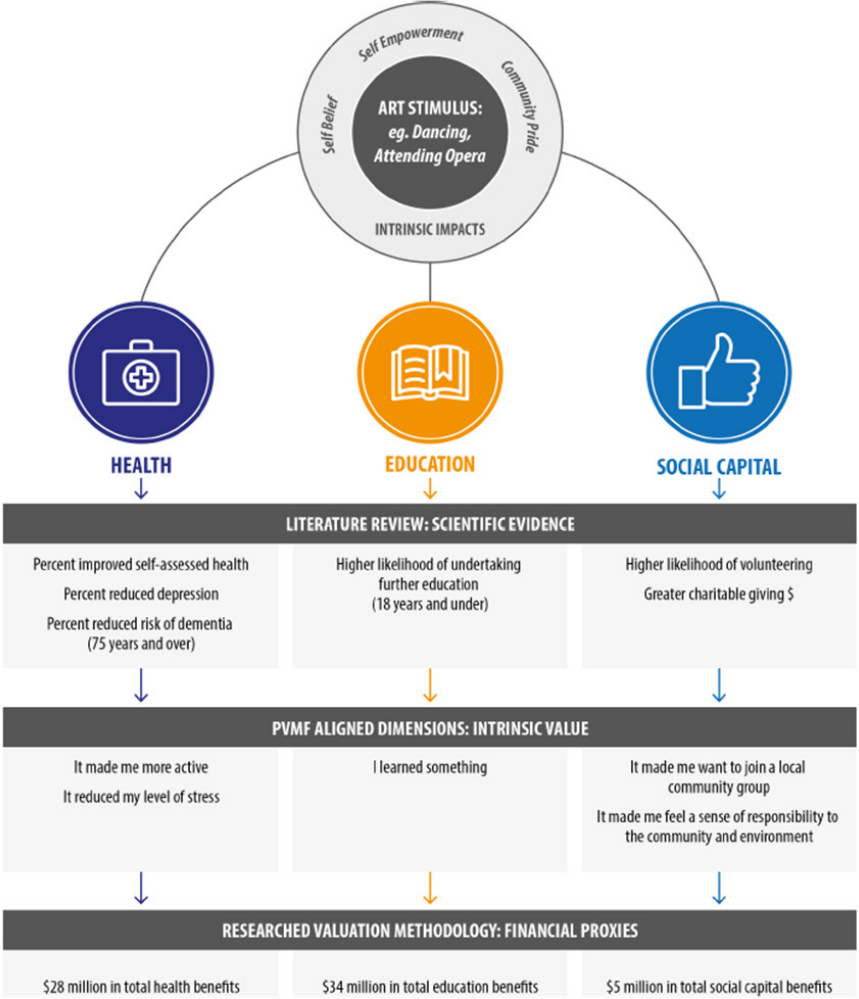


- 또한 동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과 명확하게 연계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 검토 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미치는 영향 중, 정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주요 사회 구조인 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 예술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문화예술 활동의 건강, 교육 및 사회 자본 영향을 수량화하려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수행되는 것을 제시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그림 11]과 같이 측정하였다.

- 기초 사례(base case) 수립(즉, 공적 자금 지원 없이 달성되었을 문화예술 활동 일정)
-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 찾기(예: 춤과 자체 건강평가 사이의 인과 관계)
- 영향의 규모 파악(예: 자체 건강평가 점수 % 향상)
- 영향을 받는 모집단 파악(예: 35세 이상)
- 영향을 재무적 관점 연계(예: 자체 건강점수가 높을수록 병원방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재무적 관점의 수량화(예: 병원 방문 비용)

20)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SPORT AND CULTURAL INDUSTRIES,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Arts WA, 2019, p4

[그림 11] Impact Value Pathways 도식<sup>21)</sup>



○ 앞의 [그림 11]을 보면 알 수 있듯, 문화예술의 공적지원으로 인한 총 보건 혜택은 2,800만 호주 달러에 달하며, 교육 혜택은 총 3400만 달러, 사회 자본 혜택은 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적지원 지원은 대략 5대 1의 비율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의 공적지원으로 문화예술 기관에 제공하는 기금 1달러는 지역사회에 약 5달러 상당의 편익을 사회 조직에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공적지원을 받는 문화예술기관을 통해 창출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제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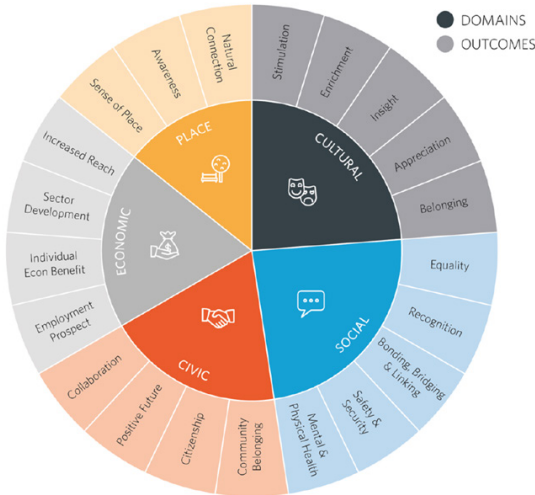
21) Ibid, p6

- (1) 편익 계산이 보수적이다.  
-몇몇 문화예술 활동의 편익은 정량화할 수 없다. 문화예술의 이익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사례가 제한적이고, 활용 가능한 연구마다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예술활동의 편익 연구는 가능하나, 연구의 특성상 예술단체가 아닌 개별 예술가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이다.  
-연구는 워크숍 시리즈나 단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 (3) 기회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공적지원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다른 용처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와 관련된 편익은 추정되지 않았다.

○ 동 보고서는 향후 모델 개발은 데이터 입력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주정부 담당부서는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공적지원 수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평가 모델의 입력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제안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문화 카운트 플랫폼(Culture Counts platform)이 업데이트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다양한 예술 형태의 대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 과정이 문화예술의 영향력과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 결국 예술계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이용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 한편, 최근 PVMF는 예술적 완성도 및 접근성에 관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완성도 측면에서의 이익은 독창성, 완벽함, 진실함, 혁신성과 뛰어난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예술적 경험과 관련된 접근성 측면의 이익은 관중의 수, 다양성, 그리고 타겟 커뮤니티와의 연결 정도를 포함한다. 또한 문화 활동의 고유한 결과물과 참여자, 연습자, 교육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경제, 사회, 문화, 시민, 환경 분야에서의 문화예술이 가진 도구적·교육적 효과를 인식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12] Measurable Outcomes of Cultural Engagement<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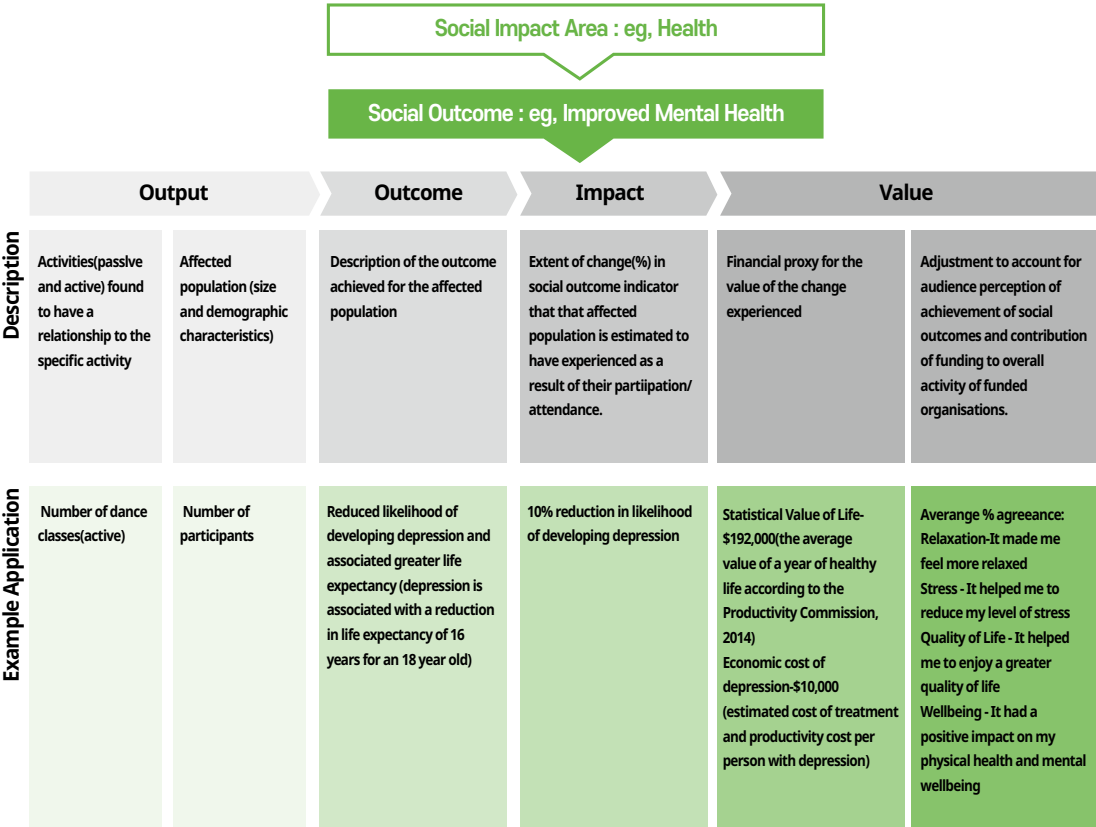
Source: Culture Counts 2017 based on the Cultural Development Network (CDN)

22) Ibid, p17



○ 동 보고서에서 정리한 가치 측량 모델은 참석자의 수준,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능동적·수동적 특성을 포함하여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로부터 도출한 사회적 이익을 재정적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예술활동 참여의 단순 결과물 내용, 그 결과물이 가져온 이익, 그 이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해당 영향이 인간의 삶에서 지닌 가치 순으로 측량할 수 있다. 문화예술 장르 중 '춤'이 '건강'분야에 미친 영향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댄스 수업의 수를 조사하고,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규모를 조사한다. 이후 춤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얻은 효과에 대해 서술하는데, 예를 들어 우울감 감소 등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우울감 발생율을 10%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등과 같이 변화된 정도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키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등의 변화된 정도를 재정적으로 표현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로부터 도출한 사회적 이익을 재정적으로 환산한 사례<sup>23)</sup>



Source: Pracsys and Culture Counts 2018

23) Ibid, p33

⑥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문화예술 활동 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 동 연구조사는 문화청의 의뢰로 일본 최고의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실시하였는데, 문화예술이 사회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헌한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 분석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찰함과 동시에, 향후 국가 문화 정책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문화 예술을 개인적 가치 및 기호재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가진 가치재로 인식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필수 불가결한 필수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한 사회과제의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심각한 사회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최근 문화예술 활동이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가 분석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가지는 사회과제 해결’사례를 세계적으로 선행 모델로 삼겠다는 일본 정부(문화청)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 동 보고서는 각종 논문·보고서 등을 기본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이 과제 해결에 공헌한 사례를 정리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의 규정은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상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경제·인구문제', '거주문제', '건강·복지 문제', '인권문제', '교육문제'의 5가지로 정리하였으며, ‘커뮤니티 형성’에 미친 영향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문화향유 및 예술인 육성 등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 사례 연구는 제외하고 있다. 아래의 [표 11]과 같이 5가지 분류에 따른 각 사례에 대해 배경, 내용, 성과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성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량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정성평가 혹은 실시내용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1] 일본의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문화예술 사례 연구조사

분류	문제	과제	사례
경제·인구	1) 경쟁 격화에 따른 매몰	도시·지역 브랜딩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외 9개 사례
	2) 산업 정체	관광산업 진흥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외 9개 사례
		산업 진흥	미노시 화지(和紙)아트전 외 1개 사례
		유희 건물 활용	니시가모 창조사 외 7개 사례
	3) 인구감소·고령화	유희 건물 활용	BankART1929 외 2개 사례
거주	1) 지역 이미지 악화	젊은이들 전입 증가	나오시마초 외 1곳
		활기 창출	새의 극장 외 2개 사례
	2) 치안 악화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	마이슈 공장 사례 외 2개 사례
의료 복지	1) 과대한 스트레스 발생	치안 회복·유지	코가네마치 바자루 외 1개 사례
	2) 고령화, 의료비 확대	마음의 케어	ARCT외 3개 사례
인권	1) 과대한 스트레스 발생	건강 증진	기타나고야시 역사민속자료관 외 3개 사례
	2) 고령화, 의료비 확대	개인 존재의식, 정체성 확인	미나미산리쿠 키리코 프로젝트
교육	1) 고립감 증대	사회적 포용력	카마가사키 예술 대학 외 5개 사례
	2) 소수자 배제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
			시노야마 칠드런즈 뮤지엄 외 2개 사례

- 경제·인구문제에 연관된 과제 해결에 공헌한 사례는 지역 간 경쟁 격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매몰, 산업 정체,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 중심 시가지 쇠퇴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브랜딩', '관광산업 진흥(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매력 부가, 새롭게 태어난 관광지로서 매력)', '산업(관광 이외) 진흥', '유휴 공간의 활용(폐교·휴교의 활용, 기타 유휴 공간의 활용)', '청년 전입 증가', '지역 활기 창출' 등의 과제 해결에 공헌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한편, 거주문제와 관련된 과제와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이미지 악화'와 '치안 악화'의 두 가지 문제로 분류하고, 문화예술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지역 이미지 개선', '치안 회복·유지'등의 과제 해결에 공헌 가능성을 보여준다.지역사회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쉬운 경향의 장소가 존재하는데,이러한 장소를 문화예술의 힘을 활용해 오히려 독특한 장소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쓰레기 소각 시설인 마이슈 공장,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원쓰레기 매립지인 모에레누마 공원, 토토리현 토토리 시의 전 병원을 활용한 호스피테일·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치안이 악화된 지역에 문화예술의 시설이나 사업을 통해 치안 회복·유지에 노력한 사례와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황금초 바자르」, 도쿄도 토시마구의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주요 역할

- 마타라소(Matarasso, 1997)<sup>24)</sup>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크게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자기 결정력(community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local image and identity)' '상상력과 비전(imagination and vision)'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bing)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 먼저, 개인적 발전 측면을 살펴보면, 개개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 내에서 성과물을 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예술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84%였으며, 그 중 예술 관련 공부를 결정한 사람은 37%에 달했다. 또한 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80%인 것으로 조사됐다.
- 다음으로 문화는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특히 청년층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로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영국, 미국, 호주가 함께 참여한 공동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는데, 예술활동에 참여한 91%가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4%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지역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 권익과 지역을 지지하는 등의 자기 결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4)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 François Matarasso, 1997, p7~9

- 동 보고서는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창조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달리 말해 창조성과 개방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위험을 긍정적으로 감수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에 참여한 성인 참가자 86%는 그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에 도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1%는 창의적인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 상기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2]<sup>25)</sup> 및 [그림 14]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

사례	내용
사회 응집력 제고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타인에 대한 신뢰도 증가,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감소
건강 증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인적 자본 제고	창의성 향상,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제고, 기술 향상
범죄 예방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 예방
환경 개선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낙후지역 환경 개선 등

[그림 14]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



25) Michelle Reeves(2002) Measuring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Arts 등의 자료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양현미 외)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연구에서 재정리 한 내용

○앞서 살펴본 국내외 연구 사례를 통해 종합해보면, 예술 활동 참여는 지역 사회를 통합하고,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어 세대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며, 때로는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개인과 기관, 민간은 예술의 필요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5] 키워드로 본 문화의 사회적 영향



2. 건강 및 웰빙 증진

□ 예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

○ 마타라소(Matarasso, 1997)는 예술 참여가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총 50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공통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 (2) 사회 활동을 확장시킨다.
- (3) 타인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 (4) 흥미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 (5) 인권과 책임감에 대해 탐구하도록 만든다.
- (6) 어린이를 위한 교육 개발에 기여한다.
- (7) 성인에게 교육과 트레이닝 기회를 갖도록 격려한다.
- (8) 새로운 기술 습득과 활동 경험을 선사한다.
- (9) 취업능력을 향상시킨다.
- (10) 커리어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 (11) 사람들이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도우며, 고립감을 감소시킨다.
- (12)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구성원의 사회성,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다.
- (13) 관용을 증진시키고, 갈등 해결에 기여한다.
- (14) 상호문화 이해에 대한 장을 제공한다.
- (15) 범죄 관련 피해자 또는 예방법에 도움이 된다.
- (16) 세대 간 소통을 향상시킨다.
- (17) 지역 특색을 갖추게 한다.
- (18) 지역 내 협업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 (19)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20)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21) 심적으로 이완된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그의 연구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만한 점은, 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기분이 들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설문 응답자 중 52%는 더 건강해졌거나 기분이 나아졌다고 답변했으며, 73%는 예술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 더욱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예술 활동은 인간 개개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신적인 치유에 영향을 미쳐 주변인과 만나며 갈등과 고립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 과정에서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구성원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즉, 예술을 통해 힐링과 치유가 가능하고, 예술의 본원적 가치는 웰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 호스피탈 아트(Hospital Art)

### ① 미국 - 호스피탈 아트 재단(The Foundation for Hospital Art)

- 1984년에 설립된 호스피탈 아트 재단(The Foundation for Hospital Art)은 병원에서 종종 스트레스 받는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과 환자들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병원에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된 이래로 100만명의 자원봉사자와 환자가 50,000점에 이르는 작품을 함께 만들었고, 195개국에 걸쳐 7,500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 전 세계 병의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희망과 안정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으며, 병원을 '힐링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이 재단을 이끌고 있는 주요 활동그룹은 환자, 환자의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이며, 텅 빈 병원의 벽을 예술품으로 가득 채워, 병원을 아늑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림 16] The Foundation for Hospital Art 활동사진



### ② 영국 - 전 세계 호스피탈 아트의 거점, 런던

- 런던은 현재 전 세계 호스피탈 아트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우수한 단체들이 음악, 연극, 워크숍, 전시, 관련 스태프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예술가 레지던시를 운영하여 환자와 예술가가 서로 협업하여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입주 예술가가 환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양태가 주목할 만하다. 런던의 대표적인 hospital art를 운영하는 병원, 프로그램, 단체들은 아래의 리스트와 같다.<sup>26)</sup>

#### (1) Arts St George's

- 2001년부터 세인트 조지 병원(St George Hospital)에서 시작된 프로그램. 세인트 조지 병원과 퀸 마리 병원 환자들 및 직원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https://www.stgeorghospitalcharity.org.uk/>)

#### (2) GOSH Arts

-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Great Ormond Street Hospital)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술 프로그램. (<https://www.gosh.nhs.uk/wards-and-departments/departments/gosh-arts>)

#### (3) Guy's and St Thomas's Charity

- 석상부터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작품을 배치 및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음악, 춤, 연극, 낭독 등 환자, 직원, 방문자를 위한 공연예술을 후원한다. (<https://www.guysandstthomas.nhs.uk/about-us/our-history/art.aspx#ad-image-0>)

#### (4) Hammersmith and Queen Charlotte's and Chelsea Hospitals

- 조각, 회화, 영상, 설치미술품, 사진 등 2,000점의 예술품을 병원 내외 공공장소에 전시. 개개인이 참여하는 예술 작품 외에도 전문예술작가와 협업하는 형태로도 호스피탈 아트를 진행하고 있다. (<http://www.imperialcharity.org.uk/collection>)

#### (5) Homerton Hospital

- 호머튼 대학병원의 신경재활센터(The Regional Neurological Rehabilitation Unit at Homerton University Hospital)는 트라우마에 의한 뇌 손상 환자를 위해 창작실을 운영하며 2주에 한 번 예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https://www.homerton.nhs.uk/mru-therapy-services>)

#### (6) CW+

- 첼시 웨스트민스터 병원, 웨스트 미들섹스 대학 병원(Chelsea and Westminster Hospital and West Middlesex University Hospital) 내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연예술, 시각예술, 디지털 아트 등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병원 내외부 벽을 변모시키고 있다. ([www.cwplus.org.uk](http://www.cwplus.org.uk))

#### (7) Imperial College Healthcare Charity

- 환자의 회복 향상을 위해 시각예술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와 예술가 간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런던 내 박물관과 협업하여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https://www.imperialcharity.org.uk/arts/patient-engagement-programme>)

#### (8) RB&H Arts

- 로얄 브롬튼 헤어필드 병원 (Royal Brompton and Harefield hospitals) 종종 예술 활동이 처음인 사람을 포함 하여 연간 약 5,000명이 rb&hArts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200점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흡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래, 비트박스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https://www.rbht.nhs.uk/about-us/our-charities-and-rbharts/arts>)

#### (9) UCLH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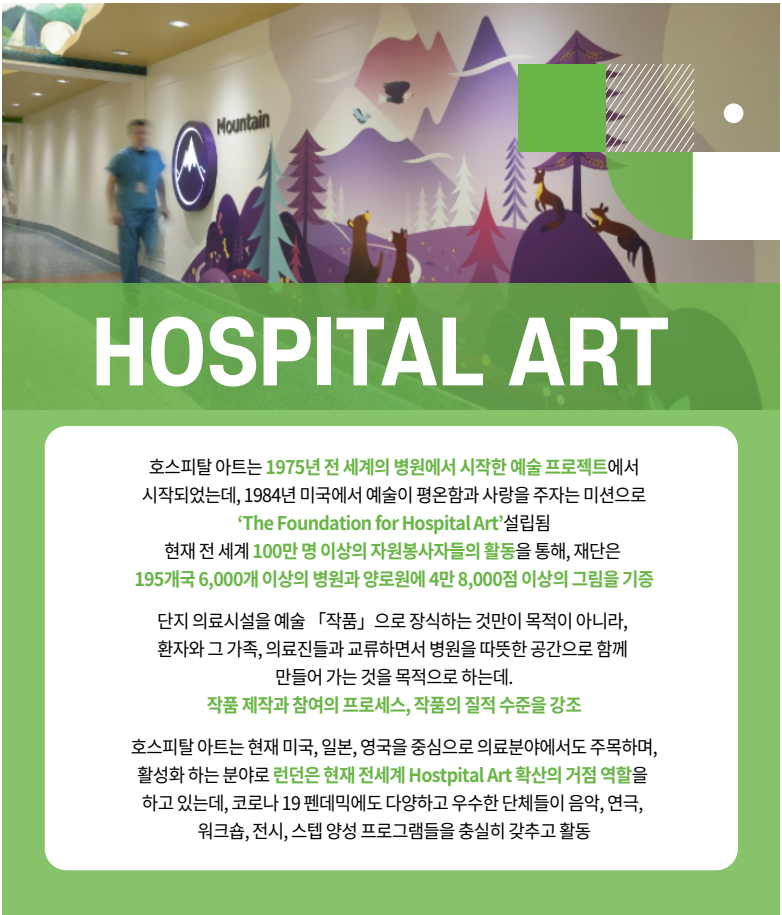
- 'UCLH 문화유산 프로그램'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병원 (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s)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전시회, 음악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예술가 레지던시를 운영해왔다. (<https://www.uclh.nhs.uk/about-us/who-we-are/arts-and-heritage>)

26) '건강으로서의 런던예술포럼 (London Arts in Health Forum)'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사이트를 확인할 수 없는 리스트는 일부 제외하였다. <http://www.lahf.org.uk/resources/links/london-hospital-based-arts-programmes> (검색일: 2021.03.24)



- (10) Vital Arts  
- 바이탈 아트(Vital Arts)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영국 내 5개 대학병원이 연합하여 음악, 무용, 문학, 공예,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 프로젝트.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병원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대 예술과의 상호교류로 병원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다.(<http://www.vitalarts.org.uk/about/>)
- (11) The Nightingale Project  
- 환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반겨주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고 회복을 위한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https://www.nightingaleproject.org/work-weve-done/>)
- (12) The Bethlem Hospital  
- 베들레헴 로얄 병원 부지에 1997년에 설립된 베들레헴 갤러리는, 하이퀄리티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입주 작가들이 병원 내 환자 및 직원들과 협업하여 사람들이 예술활동에 영감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www.bethlemgallery.com](http://www.bethlemgallery.com))

[그림 17] Hospital Art



- ③ 일본 - 아트 프로젝트 (아ーツ프로젝트)
- 일본의 아트 프로젝트는<sup>27)</sup> ‘예술의 힘으로 병원 등 의료 환경을 보다 쾌적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효고현에서 설립된 NPO 법인이다. 병원의 의뢰를 받아 예술가를 파견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무미 건조한 병원의 공간을 벽화, 조형미술 등 시각예술을 통해 쾌적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칸사이 산재 병원, 사카이시 미하라 종합병원, 마츠시타 어린이 클리닉 등 약 30개의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 아트 프로젝트는 예술 작품 제작과 참여의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긴다. 즉, 예술 활동이 단순히 의료시설 내에서 장식품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들과 교류하면서 병원을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의미를 두며 일본형 호스피탈 아트라는 독특한 예술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 2009년부터는 일본을 대표하는 교토 조형예술대학과 연계하여 교토 부립 의과대 부속병원을 무대로 벽화 제작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HAPi+(하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벽화 제작에 참여한 교토부립 의과대 부속병원의 외래 이용자나 병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하통로의 인상에 대해 ‘쾌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9%에서 7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이 병원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점에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에 오픈한 시코쿠 어린이 의료 센터에서는 아트프로젝트에 소속해 있는 예술가 1명을 호스피탈 아트 디렉터로 채용할 정도로, 병원 내에서 예술이 가진 힘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체임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림 18, 19] 아트 프로젝트 활동사진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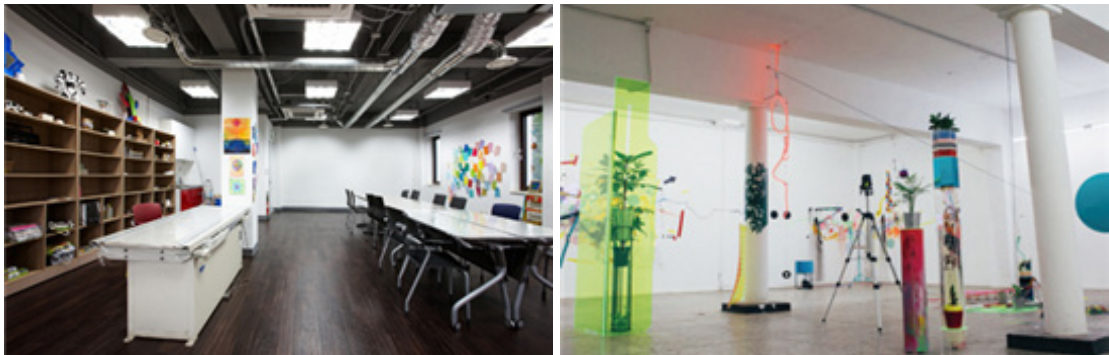


27) 출처 : 아트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https://arts-project.com>)

④ 국내 ‘서울예술치유허브공간’

-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옛 성북구보건소 건물을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교류 공간, 시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옛 보건소 터라는 장소성을 살려 대표적인 '예술보건소'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주민창작실, 성북예술다방, 음악실, 갤러리, 다목적홀, 밴드실, 공방, 예술단체 대상 스튜디오 등 시민과 예술가가 같이, 그리고 또 따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예술로 치유감을 선사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전문 예술치료사의 창작과 치료 활동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있다. 이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술 치유 사업으로는 <예술로 힐링>, <청년예술단체 예술치유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예술로 힐링> 공모 사업은 예술치료, 예술인문 상담 등 장르에 제한 없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개인이나 상업적 영리단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예술과 예술치유 분야에 중심을 둔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시 추진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16회차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1년에는 공모 주제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우울감 해소에 기여하는 예술참여활동 프로젝트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0, 21] 서울예술치유허브공간 사진<sup>28)</sup>



28) 출처 : 서울문화재단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i\\_sfac](https://blog.naver.com/i_sfac))

3. 지역사회 문제 완화

1) 지역 도시환경 개선

□ 기피 지역의 변화

①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 사례

- 요코하마의 코가네초는 오랫동안 불법 매춘의 거리였으나, 환경 개선을 위해 2003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환경정화추진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동 협의회는 행정과 경찰, 대학과 제휴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지만, 불법 매춘을 잠식시키지는 못하였다. 급기야 2005년에 경찰이 강제로 업소의 폐점 및 퇴거를 추진하였으나, 빈 점포가 급증하면서 거리 치안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이에 예술가를 거리에 상주시키고 예술로 거리의 활기를 끊임없이 창출함으로써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설립하였고, 마을 재생을 목표로 2008년부터 아트 페스티벌 ‘코네가초 바자르’를 개최하고 있다.
- ‘코네가초 바자르’는 160개의 빈 점포 중 75개의 점포를 빌려, 그 중 약 40개의 점포를 작업실과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으며, NPO 법인 코가네초 지역운영센터(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아티스트, 큐레이터, 건축가를 초빙하여 거리를 실험 장소로서 개방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예술, 건축 대안학교인 코가네초 예술학교를 비롯해 어린이 대상 워크숍, 벼룩시장, 자선행사 등도 운영하며, 빈 매장을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량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주자 대다수는 예전보다 치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22, 23] 코가네초 바자르 2020 현장 사진<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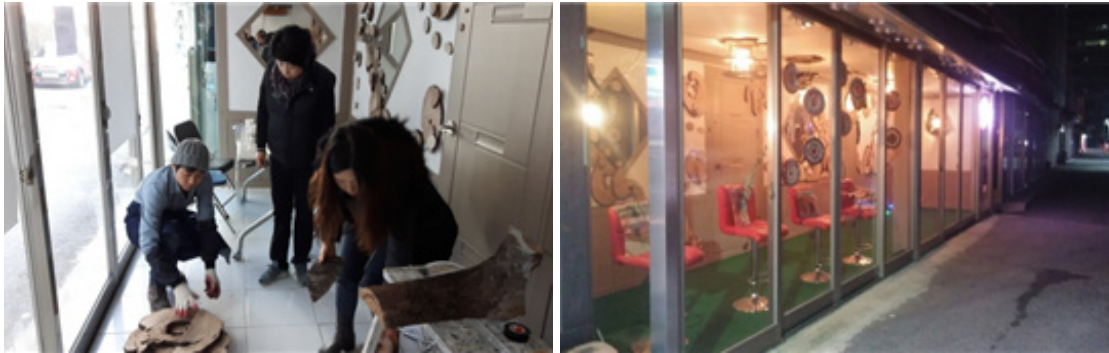


29) 코가네초 바자르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koganechobazaar/photos/>)

② 국내 전주 선미촌 사례

- 일본 코가네초와 비슷한 국내 사례로, 집창촌이었던 전주 선미촌이 있다. 이곳은 2014년부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속적,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
- 전주시는 선미촌에 위치한 폐공가 부지와 유휴공간을 매입함으로써 해당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지역 예술가,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등과 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성매매 공간이었던 곳에는 예술가 창작예술공간, 예술가가 운영하는 예술서점인 '물결서사'와 작품 전시관인 '뜻밖의 미술관', 그리고 선미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노송니우스박물관' 등이 들어서며 거리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시에 보안등, 가로등, CCTV, 인도 설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골목 환경을 개선하며 해당 지역 범죄 발생 건수도 점차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전주문화재단은 선미촌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696번가 프로젝트 P+INK'를 추진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예술가와 함께 벽화, 조명, 아카이빙, 위빙 네 가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및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공간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어두운 공간을 희망이 있는 공간으로 변모 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그림 24, 25] 전주 선미촌 사례<sup>30)</sup>



30) 출처 : 전주문화재단 (www.jjcf.or.kr)

□ 낙후 지역의 변화

① 프랑스 낭트시 사례<sup>31)</sup>

- 지리적으로 낭트시는 강과 바다의 접경지역으로, 18세기 무렵 무역항으로 주요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중엽부터는 철제 선박 건조, 소규모 방직 공장 건립 등으로 산업시설을 갖춘 항구가 되어 부를 쌓아왔다. 그러나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대형 철제선박 운항을 위한 루아르강 준설작업 중, 인근 에르드르 강의 수면이 낮아지며 환경 문제가 발발하고, 위생 및 전염병이 문제가 되는 등 쇠퇴의 길을 걸었다. 결국 1980년대 이후부터는 프랑스 조선업이 위기로 들어섰고, 낭트 지역에서 종사하던 산업 근로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표 13] 17세기~20세기 낭트시 역사, 문화, 산업의 흐름

17~18세기	19세기	20세기
· 아프리카-아메리카-유럽을 잇는 대서양 삼각무역의 중심지  · 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이 발달	· 제국주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선박 건조 중심지  · 방직공장이 생겨나고, 농업식품이 낭트시 산업의 중심이 됨	· 제국주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철제 선박 건조 중심지  ·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선박 생산량의 절반 이상

- 조선업과 관련된 역사문화와, 낭트시의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못한 채 단기적으로 진행된 도시계획은 결국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낭트 섬 전체의 시각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도로, 하천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1990년대 이후 낭트시는 문화 유산 보존, 문화 관광, 도시 경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2001년 옛 과자공장이었던 ‘LU’ 건물을 ‘리의 유니크(Lieu Unique)’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했다.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복합센터로 리모델링한 이후 공연 단체들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고, 자연스럽게 문화 공연이 증가하게 되면서 문화 불모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되었다.

31) 프랑스 낭트(Nantes) 시의 도시재생 - 낭트 섬(Île de Nantes)의 역사문화유적의 재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임승휘, 2016, 열상고전연구회), p.171-201



[그림 26] 르 리의 유니크(Le Lieu Unique)의 과거와 현재<sup>32)</sup>



○ 리의 유니크의 성공으로, 낭트 시는 루아르 강과 연계된 항구, 선박 제조 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변에 위치한 조선소 작업장을 문화 공간으로 한 번 더 변모시킨다. 예컨대 폐공장 지대는 “창조 지구”로 구획하여, 2004년 낭트 시 예술대학(Beaux-Arts) 캠퍼스로 구성하고, 사설 교육기관의 입주를 추진했다. 2007년에는 강 하구를 따라 현대미술 비엔날레 하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옛 조선소는 약 예술전공 학생과 연구자를 수용하는 창작 활동의 산실이 되었다.

## 2) 고령화 문제 완화

### □ 일본 논바닥 뮤지컬 위원회(田んぼdeミュージカル委員会) 사례

- 인구 9천명의 홋카이도 무코와초(むかわ町)는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을로, 2002년부터 재일 교포 출신 최양일 영화감독의 협력 아래 평균연령 82세의 ‘논바닥 뮤지컬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4편의 영화 작품을 제작, 선보였다. 고령자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작품은 화제가 되어, 신문이나 방송 등에 다루어져 일본 전국에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서울 노인 영화제 등 해외에도 소개되는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 ‘논바닥 뮤지컬’은 도읍면회로부터 200만엔의 소규모 예산을 지원 받고 2002년의 개촌 9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으며 약 40명의 마을 주민이 제작에 참여했다.
- 이후 2004년, 2008년, 2011년까지 시리즈물 형태로 4편이 제작되었고, 영화뿐만 아니라 논바닥 패션쇼도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고령자가 삶의 보람 찾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활성화도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사진출처 : <https://blog.naver.com/chungtop2000/221487856359>

[그림 27, 28] 일본 논바닥 뮤지컬 현장<sup>33)</sup>



### □ 일본 기타나고야시 역사 민속 자료관 사례

- 아이치현 기타나고야시에 위치한 ‘쇼와 일상 박물관’은, 1993년부터 지역의 사라져 가는 것을 기록한다는 컨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치매나 은둔형 외톨이 환자 케어 방법의 일종인 ‘회상법 스쿨’<sup>34)</sup>을 개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회상법 스쿨에 참가하는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어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기타나고야시는 회상법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역에 도입해 치매 예방,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억 만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차원에서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 자료관의 이용자는 개관 이후 감소세를 계속하였지만, 회상법 스쿨을 실시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아이치현 기타나고야시에 위치한 ‘쇼와 일상 박물관’은, 1993년부터 지역의 사라져 가는 것을 기록한다는 컨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치매나 은둔형 외톨이 환자 케어 방법의 일종인 ‘회상법 스쿨’을 개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회상법 스쿨에 참가하는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어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기타나고야시는 회상법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역에 도입해 치매 예방,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억 만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차원에서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 자료관의 이용자는 개관 이후 감소세를 계속하였지만, 회상법 스쿨을 실시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33) 출처 : 일본 논바닥 뮤지컬 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kd.mlit.go.jp/ky/ns/nou\\_sin/ud49g7000000kglh.html](https://www.hkd.mlit.go.jp/ky/ns/nou_sin/ud49g7000000kglh.html))

34) 미국 의사 로버트 버틀러(1963)에 의해 제창되어 그리온 옛날 생활도구 등을 이용하여 과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즐기면서 서로 이야기함으로 뇌를 활성화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심리사회적 접근법회상법은 대인 교류나 정서의 활성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함.

[그림 29, 30] 기타나고야시 역사 민속 자료관 내부<sup>35)</sup>



- 역사 민속자료관에서 회상법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였으며, 65세 이상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0인이 한 그룹이 되어, 주 1회, 1시간 정도 모여 그리운 이야기를 8주에 걸쳐 실시하며, 각 회차마다 테마를 달리 한다. 또한 회상법 스쿨 졸업생 모임은 회상법 스쿨 수료자를 ‘생기대’ 대원으로 임명해 대원증을 교부하고, 스쿨 종료 후도 계속해 회상법을 즐기는 자체 그룹을 운영하며, 지역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편, 회상법이나 간병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회상법 리더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상법 체험 교실을 지원한다. 회상법을 실시할 때 활용하는 일상생활 물품, 문구, 장난감 등 추억을 유발하는 도구들을 상자에 담아 (일명 추억상자) 전국의 시설, 병원, 지방자치단체에 회상법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 대여한다.
-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회상법 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급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자료관의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의 강사를 고령자가 맡고 있어, 고령자들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 아동들의 학부모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5) 출처 : <https://www.city.kitanagoya.lg.jp/fukushi/3000075.php>

#### 4. 환경,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 □ UNESCO - Culture in City Reconstruction and Recovery(CURE)<sup>36)</sup>

- 2018년 World Bank와 UNESCO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시를 문화적 시각에서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CURE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는데, CURE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 지향점, 우선사항을 분석하여, 재난 상황에서 도시재건과 회복 과정을 문화에 기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 CURE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원칙을 토대로 세계 각지 사례를 분석하며,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통합해, 위기 후 재건과 부흥에 있어 문화를 주류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원칙 1. 도시를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문화적 건축물'로 인식할 것
- 원칙 2.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한 장소와 문화적 랜드마크(재)구축 조정 과정을 시작할 것
- 원칙 3. 위기 후 트라우마에 대처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조화를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는 문화적 표현 조성
- 원칙 4. 계획 초기 단계에서 문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사회 우선순위와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긴급한 개입을 실시할 것
- 원칙 5. 지역 커뮤니티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 프로세스 모든 단계에 참여할 것.
- 원칙 6. 단기적 요구와 중장기적 재건계획 개발기간의 균형을 맞추는 재무모델 사용
- 원칙 7. 사람들의 요구와 도시의 역사적 특성 회복 균형을 통해 복구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 □ 네덜란드 - 친환경 농업과 예술의 결합, GROW 프로젝트

-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파 발에 광생물학적 색조명을 설치하여 농업에 기여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례가 다보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네덜란드 예술가 데안 루스가르드(Daan Roosegaarde)가 추진한 이 GROW 프로젝트는, 농업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빛을 과학적으로 이용한 친환경적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실제로 작품에 사용한 이 조명은 살충제 사용량을 50% 절감하는데 기여했으며,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지평을 넓혔다. GROW 프로젝트는 Rabobank<sup>37)</sup>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작 되었는데, 데안 루스가르더가 주축이 되어 2년간에 걸쳐 특정 자외선이 식물의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해 특수 조명 기술을 개발하였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사례다. 즉, 데안 루스가르더는 인간에게 주어진 농토를 문화예술로 재구성함으로써 애그리컬처(AgriCulture)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문화예술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36) Culture in city reconstruction and recovery, UNESCO & The World Bank, 2018

37)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로, 식량 및 농업 금융과 지속가능성 중심의 은행업을 추구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다.



[그림 31, 32] GROW 프로젝트 <sup>38)</sup>



□ 일본 - Art Revival Connection TOHOKU (ARC>T)

[그림 33] Art Revival Connection TOHOKU (ARC>T)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가들이 해일 재해지의 피난소를 돌며 트럭의 짐칸을 무대 삼아 공연한 것을 계기로 태어난 단체이다.
-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예술에 열중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는 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미술, 춤,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RC>T는 다음과 같이 배달부, 초빙부, 창작부로 나뉘어져 있다.

38) 출처 : <https://oldnwise.com/environment/dutch-artist-grow-project/>

[표 14] ARC>T 조직 구성

구분	역할
배달부	지역별 요청을 받아 아티스트를 파견하여 유치원, 보육원 등 유아 대상 워크샵, 초등학생 대상 이벤트, 노인 복지 시설 내 미술, 댄스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
초빙부	지진 직후 공연장이 다수 붕괴되면서, 일본 전역 내 공연발표가 가능한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예술작품을 무대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음. 현재는 지역별 교류 촉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연극 상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창작부	극단, 무용단의 공연과 개개인의 활동 무대 기회 확대를 위해 ARCT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돕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간 협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자생적 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ARC>T의 여러 공간 중 메인공간은 ‘센다이 연극 공방 10-BOX’이며, ‘새로운 시도를 하며 연극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크고 작은 연습실을 갖춘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 제작이 가능한 작업장, 도구 보관 공간을 비롯해 자료실, 회의실 등 연극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곳을 거점 삼아 연극제와 워크샵을 실시하며, 센다이시의 연극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4, 35] ARC>T 센다이 연극공방 10-BOX 운영공간



- 오픈 오피스라는 말 그대로, 다채로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ARC>T에서는 일상을 잠시 잊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 치료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 건물 등 물리적 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재건은 ARC>T가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5.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 통합

### 1)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 □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는 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시민이 협력해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예술 형태다. 커뮤니티 아트는 영국<sup>39)</sup>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유럽에 퍼져 나갔는데, 특히 유럽은 68혁명<sup>40)</sup>과 함께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다.
- 커뮤니티 아트의 첫 시작은 연극 분야 배우들이 관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점차 연극 작품 공동 제작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예술 활동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예술을 수단으로 한 아동·장애인 교육, 지역 매력 홍보, 경제적 효과, 지역 간 교류 등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따라서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사회 영향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커뮤니티 아트에서 작품의 질보다는 시민들이 예술창작의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가를 통해 시민들은 예술창작의 창조적인 역량을 배양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와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예술 활동 역량이 강화된 시민은 도시를 창조적인 도시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아트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경우 예술창작 활동 참가를 통해 창의성 발휘하고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 이러한 커뮤니티 아트는 아래와 같이 주요 원칙이 있다. 요약하자면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구성해 지역의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 원칙 1.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원칙 2. 개인 혹은 집단의 창조성을 강화한다.
- 원칙 3. 지역사회, 시민, 예술가, 공무원,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
- 원칙 4. 지역주민이 직접 참가한다.
- 원칙 5. 지역주민의 니즈(needs)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자문, 상담 등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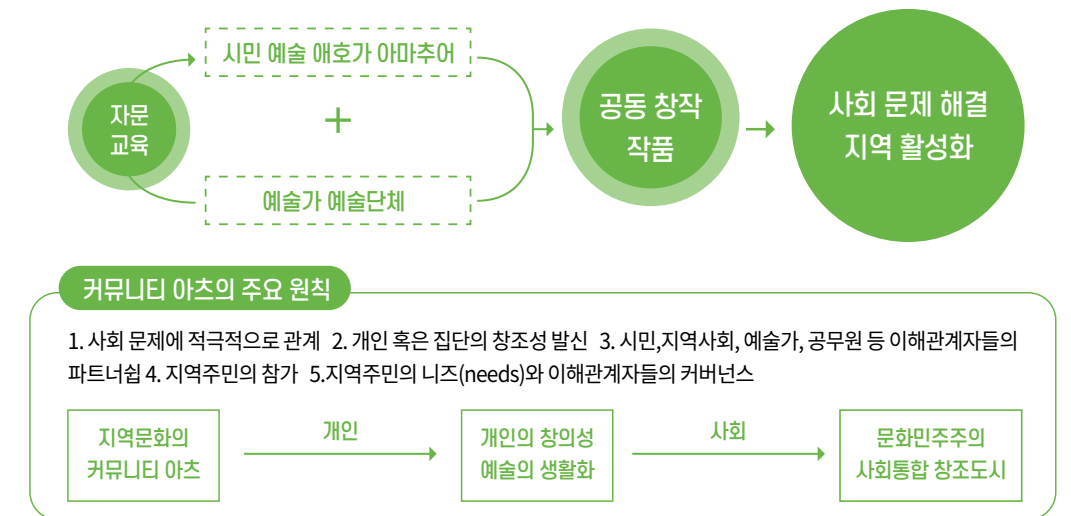
39) 영국은 예술위원회(Arts Council)가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커뮤니티 아트를 국가적으로 진흥하고 있음

40)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기존 사회 제도나 시스템에 반하여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커뮤니티 아트의 발생 배경이 되었다. 즉,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해야 한다는 사상의 문화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6]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 “Community Arts”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는 예술가와 시민의 협력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과 지역 사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의 형태임. 프랑스 68 혁명의 영향으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해야 한다는 문화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



#### □ 일본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문화정책과 커뮤니티 아트 사례

##### ① 일본의 문화정책 방향

- 일본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사회 통합에 있다는 점을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입법과 조사> 제310호에 게재된 「문화예술의 가능성」<sup>41)</sup>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해 “관광객으로 인한 단기적 수요 창조에 지극히 효과적인 것”,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진입 장벽이 낮으며, 지역성 등에 의해 사람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정도가 큰 것”, “중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지역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지역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41) 원문 자료 : 文化・芸術による地域活性化～活性化のための施策の方向～, 調査情報担当室, 筒井 隆志, 立法と調査 2011.12 No.323



[표 15]지역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유형<sup>42)</sup> (◎: 높음 ○: 중간 △: 낮음)

분류	장르	구체적 내용	공급비용	수요	집객효과	지역 이미지	중장기 효과
예술 예능	순수예술	음악, 무용, 미술	◎	○	◎~△	◎	◎
	대중예술	예능, 노래, 연예	○	◎	◎	○	○
문화산업	전통공예품	전통수공업제품	○~△	△	△	○	△
	콘텐츠산업	영상, 출판, 만화, IT	○~△	○	△	○	◎~○

② 에치고 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대지 예술제)

- 대지예술제는 니가타현 에치고 츠마리(越後妻有)에서 2000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는 예술축제다. 도시 편중으로 인해 지역력이 감퇴한 농촌의 의미를 되찾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땅의 가치를 재발견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작품을 제작하여 지역민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대지예술제는 예술축제를 통한 성공적 지역 재생 사례로, 지역 관광, 경제적 파급효과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로 지역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른바 ‘에치고 츠마리 방식’을 유럽, 아시아의 큐레이터와 미술 관계자, 지자체 등에 전파하고 있다.
- 대지예술제 개최로 니가타현 경제 파급효과는 약 46.5억엔에 이르며, 각종 언론 미디어의 게재·방송 실적을 광고비로 환산하면 약 14.5억엔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개의 지역 업체가 150여개의 지역 특산품을 개발했으며 축제기간 중 총매출은 약 1.1억엔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대지예술제는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사회 통합 및 교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예술가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을 재발견하며 작품을 제작하는데, 예술미 역시 주요사항으로 고려된다. 대지예술제는 지역 체류형 관광과 결합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Agritourism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림 37, 38] 에치고츠히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작품 1, 2



42) 앞의 자료 p77

③ 탄보 아트 (田んぼアート, Rice Paddy Art)

- 탄보 아트(논 아트)는 논을 캔버스로 활용하여 색이 다른 벼를 사용해 물감 대신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 장르로 ‘대지의 예술(大地の芸術)’이라고도 불린다. 1993년 일본의 아오모리현 이나카다테무라(田舎館村)에서 3색의 벼를 사용해 만든 작품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 해마다 기술이 향상되어 섬세하고 치밀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탄보 아트는 벼농사를 이용한 관광 콘텐츠로 거듭 나고자 주민의 손으로 모내기를 해 작품을 만들고, 도안 고안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 해왔다. 작품의 제작과정과 우수성으로 인해 매년 해외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 2012년에는 일본과 서양의 쇼 비즈니스를 테마로 ‘게이샤와 할리우드 스타’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도로를 사이에 둔 2면의 논을 이용하여 주목받았다. 또한, 일본 자국 내에서 국민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받는 ‘사자에상’ 방송 45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 역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탄보 아트는 일본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 들도 알아볼 수 있는 작품 2점을 해마다 전시하며,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농촌 재생, 공동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탄보 아트의 목적은 생산자, 실수요자, 소비자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농촌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즐거운 미래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림 39, 40, 41, 42] 탄보 아트 작품과 제작 과정<sup>43)</sup>



43) 사진 출처 : <https://gurutabi.gnavi.co.jp>



[그림 43] 탄보 아트(Rice Paddy Art)



④ 국내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장수마을은 근대도시 서민 주거지 역사를 지닌 동네이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골목 공간, 그리고 급경사로 인한 독특한 전망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여관현, 2013) 이곳은 서울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무허가 판자촌 지역을 거쳐 오늘날의 일반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주거 형태가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설 노후, 빈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 단체는 재개발 방식 외에 장수마을의 지리적·공간적 특성을 살리며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 여관현에 따르면 마을 만들기는 준비기, 실행기,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행기에 추진된 여러 커뮤니티 아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에는 지역 주민들과 인근의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벽화를 그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벽화 디자인에서부터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 덕분에 일방적인 그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현재는 건축법상의 문제로 철거되었으나, 장수마을에서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추진한 워크숍,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예술 프로그램 사례로 '작은 미술관'이 있다. 성인은 작은 미술관에서 마을을 기억하는 건축물 사진, 인물 사진 등을 전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한편 동네 아이들에게는 참여형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줌으로써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44, 45] 성북구 장수마을 작은 음악회(좌), 벽화(우)<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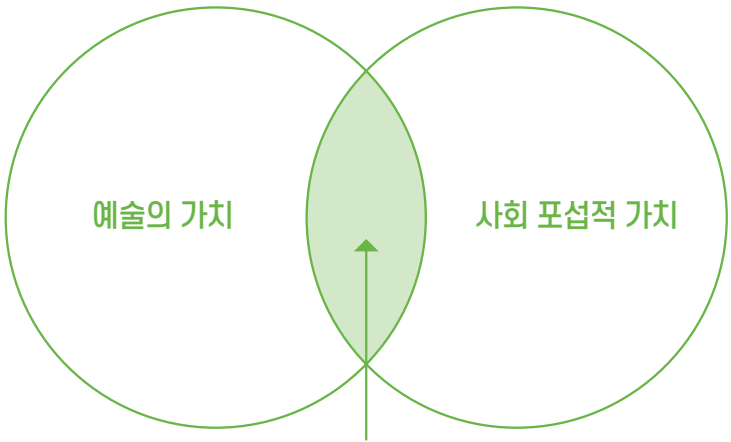
44) 사진출처 : 성북구 장수마을 (<http://www.jangsumaeul.com/>)

2)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 일본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포섭

- 일본 문화청과 규슈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추진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포섭’<sup>45)</sup> 기본 방향(文化芸術による社会包摂の在り方)에서는, 창작물(物)뿐 아니라, 창작하는 과정과 환경 등의 일(事)도 창조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사회성은 창작물(物)의 향유로 발생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개념이었다면, 일본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포섭’은 작품을 창작하는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事)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문화정책적으로 해석하면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살기 위한 표현’으로서, 예술을 보는 관점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동 기본 방향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고독하지 않도록 함께 의지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수의 인식이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최초의 사회포섭×문화예술 핸드북(はじめての“社会包摂×文化芸術”ハンドブック)”<sup>46)</sup>을 제작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림 46] 사회 포섭으로 이어지는 예술 활동의 가치



사회 포섭으로 이어지는 예술 활동의 가치

45) 일본의 경우 최근 문화정책적으로 사회포섭이라는 용어가 주목 받고 있다. 1990년대 유럽의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나온 ‘포용’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는 ‘포섭’으로 사용하고 있다.  
46)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chiho/sosei\\_honbu/1414718.html](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chiho/sosei_honbu/1414718.html)

□ 센다이 미디어 테크 - 3월 11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센터

- 센다이 미디어테크(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하이테크 정보 건축물이다. 건물 내에는 도서관, 갤러리, 자료실, 영화관 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sup>47)</sup>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관하여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한 센터(3がつ11にちをわすれないためにセンター) 東日本大震災の記録をアーカイブする)」를 설립했다.<sup>48)</sup> 시민, 전문가, 예술가, 센터 직원 등이 협업하여 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 과정을 영상, 사진, 문건, 음성 등 여러 미디어를 활용한 아카이빙을 추진 중이다.
- 이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새로운 작업물 (영상, 사진 등) 제작 및 인터넷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예술가,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진 재해 관련 기억,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사례로 꼽힌다.

[그림 47] 3월 11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센터



47) 마크 어빙, 피터ST,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마로니에북스, 2009  
48) 관련 홈페이지: <https://www.smt.jp/> <https://recorder311.smt.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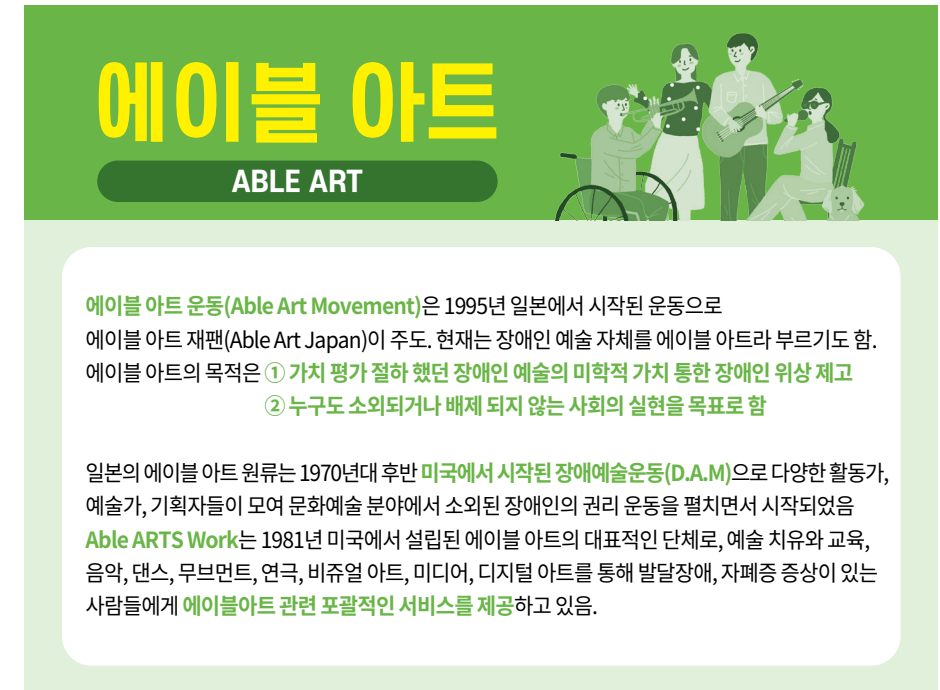
□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에이블 아트와 포용 예술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궤를 같이하여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장애인문화예술이다.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논의는 2010년 초반부터, 문화정책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연구의 목적은 ‘문화를 통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기’, 즉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생산적 문화예술 운동을 지향’하는 데에 있다. (김정애, 2010)
-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은 사회통합을 넘어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사회적, 예술적, 직업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인정받는 정책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문화예술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한국장애예술인백서>(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 2011)에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장애인예술로, 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지칭하기로 정하여 공론화되었다. (방귀휘, 2014)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10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일본에서는 예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에이블 아트 운동(Able Art Movement)’이 일어났는데, 에이블 아트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시민의 자율적인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인예술을 재인식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주윤정, 2006) 에이블 아트는 기존의 복지 중심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예술이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김언지, 2012)

※ 에이블 아트 운동 (Able Art Movement)

- 에이블 아트 운동은 1995년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에이블 아트 재팬(Able Art Japan)이 주도했다. 현재는 이 용어가 정착되어 장애인 예술 자체를 에이블 아트라 칭하기도 한다. 에이블 아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까지 가치 평가 절하를 했던 장애인 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알리고 장애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장애인 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http://www.ableartcom.jp/>)
- 일본에서 에이블 아트 컴퍼니가 설립된 계기는 2006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개정과 「장애인 자립 지원법」 시행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일하고 살기 위한 사회 기반의 정비를 기대하면서도, 직업 선택의 폭이 좁고 고용을 둘러싼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취업 기회는 여전히 한정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장애인의 예술 작품을 활용하거나, 저작권과 관련된 과제를 풀기 위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현재 에이블 아트 컴퍼니는 에이블 아트 재팬(エイブル・アート・ジャパン)이외에도 재단법인 민들레 집(財団法人たんぽぽの家) 같은 관련 단체 등이 에이블 아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예술이 ‘자아실현과 사회 참여 측면’뿐만 아니라, 수익으로도 이어지는 구조를 제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8] 에이블 아트(ABLE ART)



- 한편, 포용 예술은 학습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과 공동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예술이다. 포용 예술의 협력 과정은 관련된 모든 예술가들이 서로를 배워 상호 이익이 되는 양방향의 창조적 교류를 지원하는 '교환의 미학(aesthetic of exchange)'이다. 포용 예술의 핵심은 설계와 기획에서부터 학습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이들이 워크숍, 작품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포용예술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제반 사항들이 요구된다. 즉, 접근성이라는 점에서 통역사, 도움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의 충족은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예술 활동에 매진하여 작품의 우수성도 증진된다.

[그림 49] 포용 예술 (Inclusive Arts)



※ 세계 포용예술 네트워크 (International Included Arts Network)<sup>49)</sup>

-세계 포용예술 네트워크는 장애인과 지원자들을 위한 대표적 문화예술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포용예술 작품에 대한 학습, 제작,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품이나 예술 작업을 소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및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가의 소통을 촉진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입수할 수 있는 포털 역할 역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49) <http://www.inclusiveartsnetwork.org/>

□ 세대 간 예술(intergenerational arts) - 매직 미(Magic Me)<sup>50)</sup>

- 매직 미(Magic Me)는 8세에서 88세를 대상으로 세대 간 공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 기관이다. 매직 미 설립 배경은 다양한 문화 및 관심사 융화가 필요했던 런던 동부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곳은 1970년대에 방글라데시, 무슬림 등 많은 이민자 유입이 있던 낙후 지역으로,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매직 미가 설립되었다.
- 최근 몇 년 간 많은 스타트업 및 IT기업, 금융권이 런던동부로 옮겨오면서 점차 집값이 오르자, 기존에 살고 있던 높은 연령층만 남고, 젊은 연령층의 가족은 외곽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젊은 1인 세대가 늘어나며 세대 간 교류 저하 및 노년층 고독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매직 미는 대표 프로그램인 ‘예술과 세대 (Art & Age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을 통한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젊은 세대가 양로원에 방문하여 노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16] 매직 미의 예술과 세대 프로그램 주요 내용

명칭	내용
예술과 세대 (Art&Ages)	-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젊은 세대가 저녁 6시 이후 인근 양로원 혹은 요양원에 방문하는 프로그램 - 음악, 문학 등의 예술로 세대 간 교류를 통해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간의 연대 구축 -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일부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노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예술을 활용 - 매주 1번씩 10주에 걸쳐 전문 예술가와 함께 협업

- ‘예술과 세대’ 프로젝트의 주요 세 가지 목표는 개인 개발, 공동체 개발, 그리고 예술적 목표다. 먼저, 개인 개발을 위해서는 세대 간 교육자와 피 교육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 모두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은 기성세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회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노년층은 다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활기를 얻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공동체 개발이라는 목표 의식을 위해서 예술 활동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며 함께 이뤄내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 활동으로 '나'를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기회를 얻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개인 개발과 공동체 개발을 바탕으로 양질의 결과물(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것, 이것이 예술적 목표이다.

50) <https://magicme.co.uk/>

[그림 50] 매직 미 활동 관련 네 가지 원칙



○매직 미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들고, 함께 논의하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살거나 작업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서로 친밀감을 높여간다. 그 결과물을 예술 작품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모험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대 간 예술은 웰빙,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과 협업 기술, 창조적 사고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매직 미의 ‘예술과 세대’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실질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젊은 세대, 노년층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유발했다.

- 어린이의 건강상태 및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
- 모든 참여자 자신의 재능 공유를 통해 자신감 증진 및 창조적인 사고
- 매직 미 스태프와의 협업, 전문 예술가와 공동 작업으로 창조적 기술 배양
- 고령자의 고독,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
- 요양시설 등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여 활동 에너지 부여 및 사고의 환기

[그림 51] 매직 미 활동사진



[그림 52] 매직 미의 세대 간 예술(Intergenerational Arts)

**Intergenerational Arts**

세대간 예술(Intergenerational Arts)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예술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과 협업 기술, 창조적 사고를 향상 시키고자

**영국의 예술단체 Magic Me가 고안한 예술 장르**

Magic Me의 대표적인 세대간 예술 프로그램인 Arts&Ages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충실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노인에게 동시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

예술을 통한 세대간 공감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로 삼는 세가지는 **“예술의 직접 목표 향상”, “개인적 자아 개발”, “공동체 개발”**임

세대간 예술의 구체적인 효과는 **‘아이들의 건강상태 향상과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 ‘고령자의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 완화’, ‘참여 스텝 및 예술가들의 스킬 업’**



## 6. 사례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 1) 사회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

#### □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접근

- 해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교육, 복지 등의 영역과 문화예술의 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문화와 사회정책의 접목이 주된 문화정책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학교는 물론, 병원, 장애인 보호시설, 형무소 등에 문화단체가 진출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문화예술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결합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한 것이다.
- 유럽에서는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이라는 말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목표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보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의 확보, 주택정책 등과 같은 경제적 대책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비 유럽계 소수민족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문화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sup>51)</sup>

####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정책의 관계 횡단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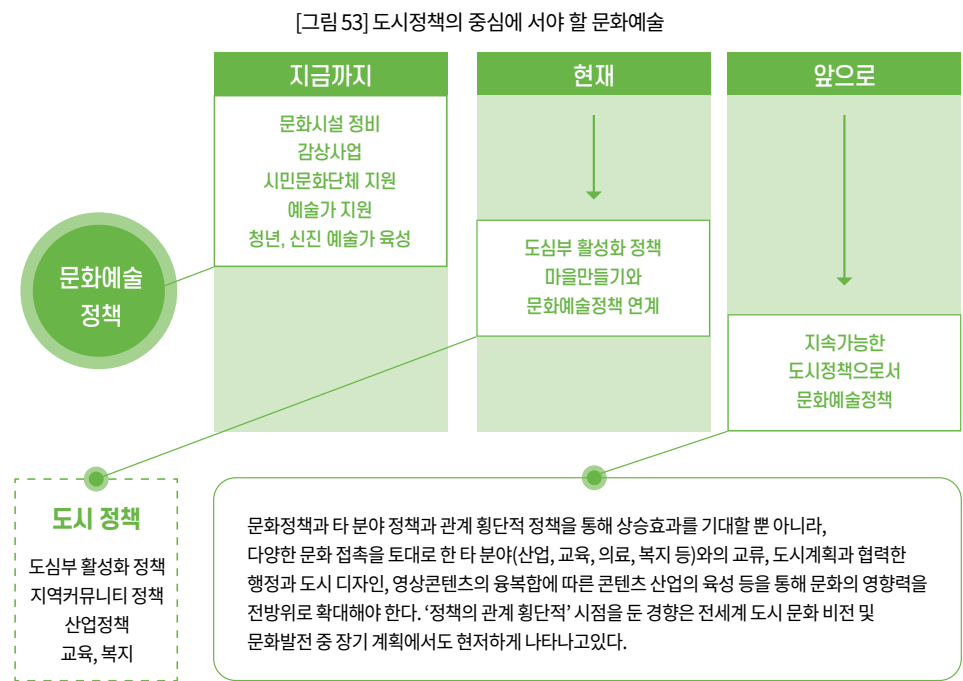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는 결국 문화정책이 사회정책과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현재 문화정책을 둘러싼 전 세계적 현상이며, 코로나 19를 계기로 문화정책의 사회 다방면에 걸친 관계 횡단 정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전 세계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예술작품의 창작지원과 문화향유라는 좁은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갖춘 내용을 포함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등 공공성과의 연계가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책영역이 문화정책 대상이며, 예술작품의 창조와 감상 기회 제공은 문화정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문화와 타 분야 간의 관계 횡단적 정책을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토대로 한 다양한 분야(산업, 교육, 의료, 복지 등)와의 교류, 도시계획과 협력 한 행정과 도시 디자인, 영상콘텐츠의 융복합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문화의 영향력을 전 방위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관계 횡단적’ 시점을 둔 경향은 전 세계 도시 문화 비전 및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51) 문화정책학(2004), P75

#### □ 문화정책과 사회정책 통합의 독일 사례

- 김화임(2016)은 독일의 문화정책을 분석하며, 문화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변화 과정 중에 있는 사회에 대한 분석, 더 나아가 사회 전망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점을 논하며, 문화정책이 곧 사회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가난, 환경 파괴, 다인종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 종교 간 갈등 등)에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례로 유네스코의 최대 관심사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생태적 위기,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서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통합적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sup>52)</sup>
- 독일의 문화학자 셰이트(Scheytt)는 독일 사회가 서비스 사회, 정보 사회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로도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 사회란, ‘문화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연결고리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cheytt, 15-16) 그에 의하면 문화정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야 하는데, 자연환경과의 책임감 있는 관계, 생명에 대한 존중 역시 문화적 과제이기도 하다. 독일 문화정책의 핵심은 공동체의 미래 능력에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사회적 기관과 조직들은 앞으로 그러한 위기를 막는 데 가능한 보탬을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 [문화정책]의 저자 막스 푸크스(Max Fuchs) 역시 문화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논증 요소들로 정치적·법적 논거,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 예술이 개인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같은 문화인류학적 근거, 경제적 논거를 들고 있다. 이 논거들에 의거하여 특정한 요소들(참여, 문화 다양성, 사회 결속력, 창조성, 문화 민주주의, 문화 정체성, 주도 문화, 삶의 질 등)이 나타나며, 이 요소들이 문화정책의 중심 방향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Fuchs, 64)
- 독일의 경우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인간과 인간생활의 종합적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회발전과 발전에 저해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인식시키는 것도 문화정책의 과제에 속한다. 결국 독일의 문화정책은 독일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정책이다. 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는 문화정책을 통해 구현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문화정책은 삶의 질, 환경보호,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 지구적 공동체 의식의 함양,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알 수 있듯, 향후 문화비전 및 문화예술중장기 발전방안수립 등을 통한 문화정책 실현에 있어 가장 핵심사항은 ‘정책 목표의 통합성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력과 연대의 관점이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피라미드 행정 하 과제별로 따로 떨어지기 쉬운 관련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이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타 부처의 정책과 횡적으로 결합 가능할 것이다.

52) 문화적 다양성, 보다 정확하게 ‘문화적 표현 형태의 다양성의 보호와 요구에 대한 협약’은 바로 그러한 논의 끝에 나온 최종 결과물이다.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력, 평화와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인간의 권리에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간주됨



□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의 실질적 기능화

- ‘문화의 사회적 영향’은 문화가치가 사회 전반 문제에서 주요 요소로 작동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효과를 갖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기능은 노무현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그럼에도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문화부 내부에서만 논의되고 국정 영역 전반으로 실행하지 못한 행정 기능상의 문제로 진단된다.
- 앞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던 문화정책 및 현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결국 문화예술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전, 지역공동체, 포용, 다양성, 지역사회, 환경 등 전 방위에 걸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계된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 문화가치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통합적 정책접근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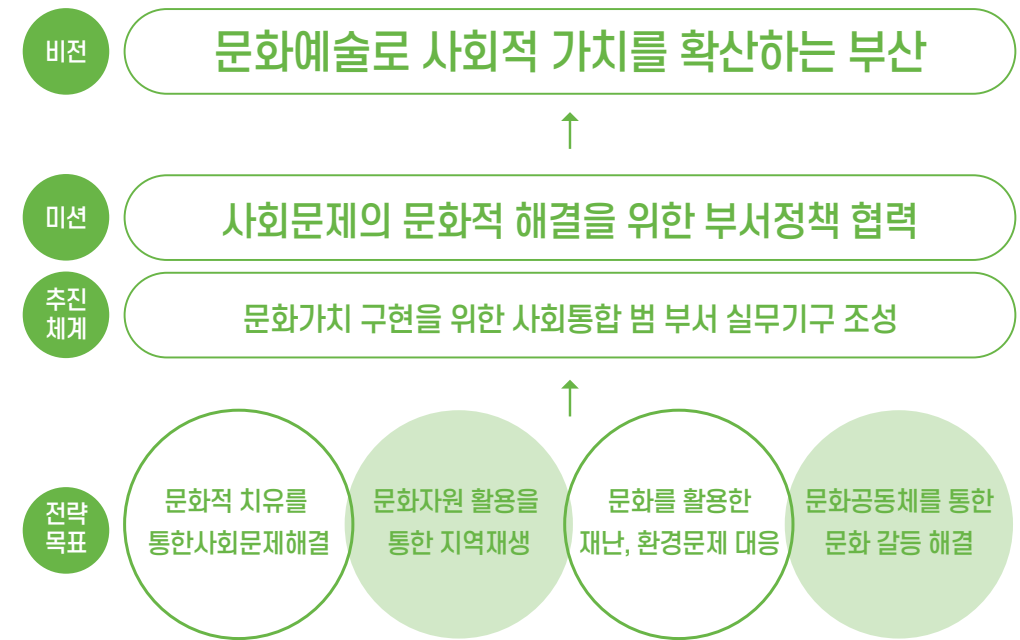
- 부산의 모든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해석을 통해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사회통합 기능을 회복하고, 부처별 정책에 대한 문화가치를 적용함에 따른 인간 중심의 정책적 면모를 이루어내는 관계 횡단적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 범부처 실무기구(문화체육관광국 주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기구는 부처별 사회갈등과 문제에 대해, 그리고 정책 자체의 관점에 문화가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해결 층위와 정책 논의구조의 문화적 접근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나아가 시장 직속(가칭)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파급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부산 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안 및 시사점

□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부산 구상(안)

○ 사회통합 범부처 실무기구는 부산의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화가치를 적용하고, 부처별 사회 문제 및 갈등 해소와 정책 수위를 높이기 위해 문화가치 구현을 확산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부산 내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구조와 전략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55] 문화로 사회통합 이루는 정책구조 및 전략체계



○ 부산 내에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모든 부처 간 실행 체계를 확립한다면,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가치가 실현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비용이 감소되며, 행복한 국가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갈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법과 제도, 징벌에 의하지 않고도 함께하는 시민 의식이 함양되어, 공동체 사회,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 역시 확산될 것이다. 결국 행정에서 문화적 접근은, 문화국가와 행복국가를 위한 통합적 기능을 실험하고, 주도하여 정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56]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영향 확산



□ 사회적 영향 확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술 장르 탄생

- 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의 강조는 자칫 예술가들은 예술의 수단화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통해 나타난 현상은 오히려 예술의 접근성은 물론 창의성과 수월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은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예술 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예술의 사회 참여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은 문화정책의 수월성과 접근성의 조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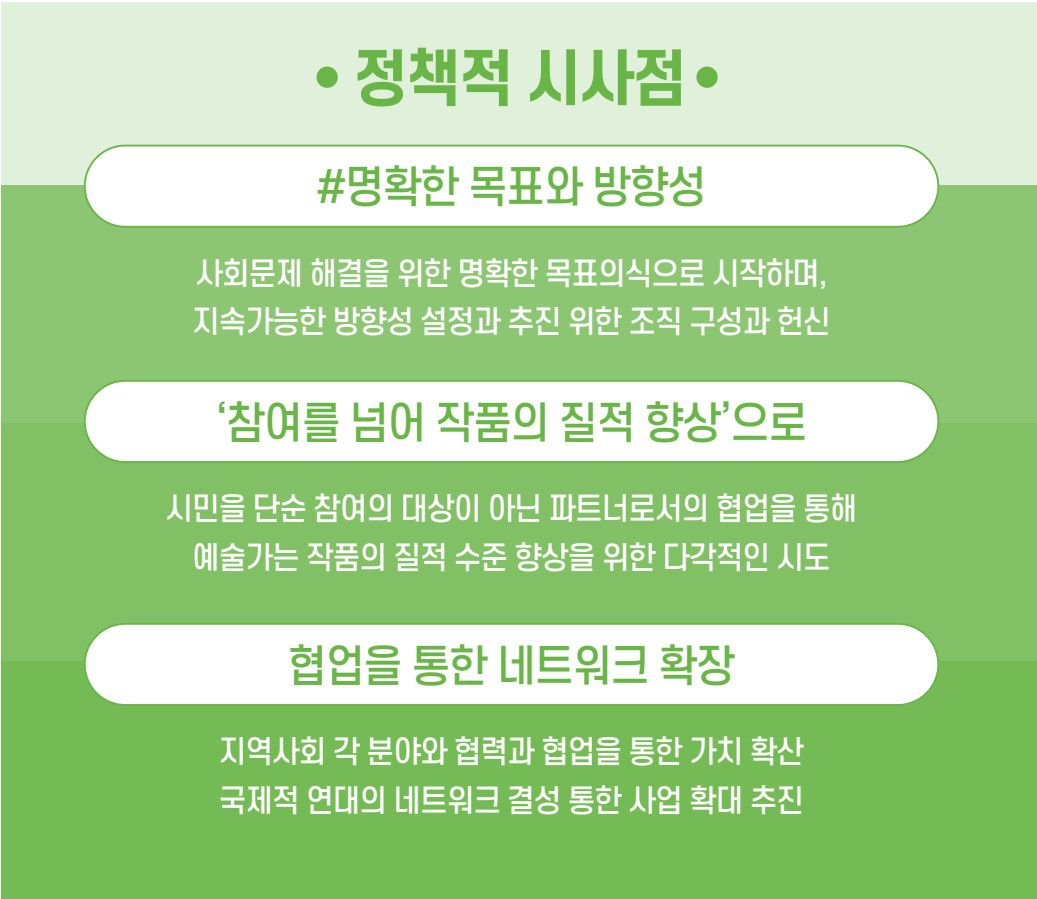
[그림 57]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예술가에 미치는 영향

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은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창의성과 수월성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은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예술 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예술의 사회 참여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은  
문화정책의 수월성과 접근성의 조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활동 단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는 예술의 창조성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더해 추진 조직 구성과 헌진적인 노력에 역시 주목해야 한다.
- 시민을 단순 참여의 대상이 아닌 작품 제작의 파트너로 여기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예술가는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예술가와 시민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이 가능하게 된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협력과 협업을 통한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수단적 관점이 될 수 도 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홍보 및 애드보커시는 지역사회 전달력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지구촌 인류의 공통 해결과제로 어젠다를 설정하여 국제적 연대와 네트워크의 결성을 통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림 58] 정책적 시사점



# IV.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

- 1.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화
- 2.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의 사례 및 시사점



IV.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

1.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화

1) 사회적 가치와 사회문제

□ 사회적 가치 및 사회문제의 개념

-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이해'에서는, OECD 통계 비교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OECD 자살률,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 중심 국정운영으로 인한 저성장, 양극화, 공동체 붕괴 위험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며, 정부와 공직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개 요소는 아래와 같다.

[표 17] 사회적 가치 구성 요소 및 문화예술 분야 적용 가능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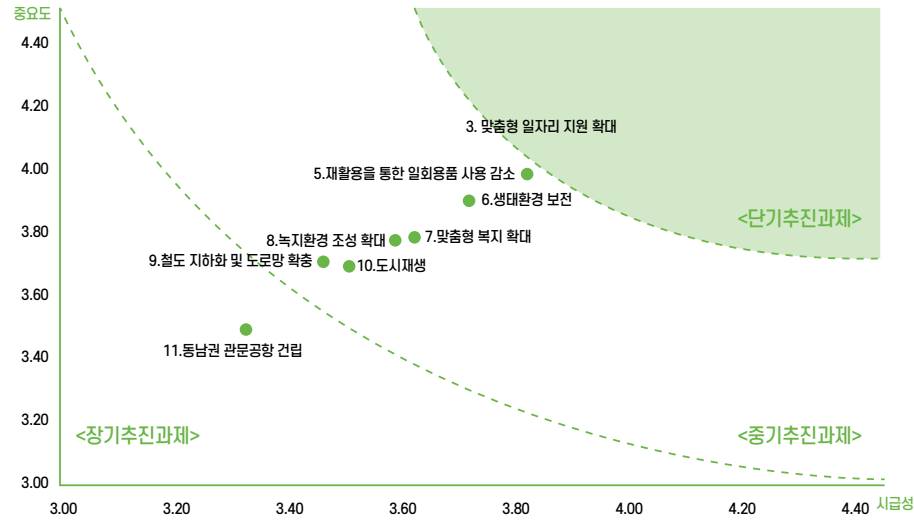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	문화예술 분야 적용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권의 보호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 정부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개념과 사회적 문제 역시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보고서”의 사회문제 유형화의 개념적 근거로서 인용할 수 있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부산의 사회문제

-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산 지역 핵심 이슈(민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키워드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주민 설문조사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평가하여 최종이슈로 선정하였다.
- 동 보고서는 최근 1년간 부산지역 기사, SNS, 민원게시물을 웹크롤링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혁신과 관련된 단어 중 빈도수·연관성이 높은 단어 도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주요 단어와 연관된 기사와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미세먼지 줄이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세부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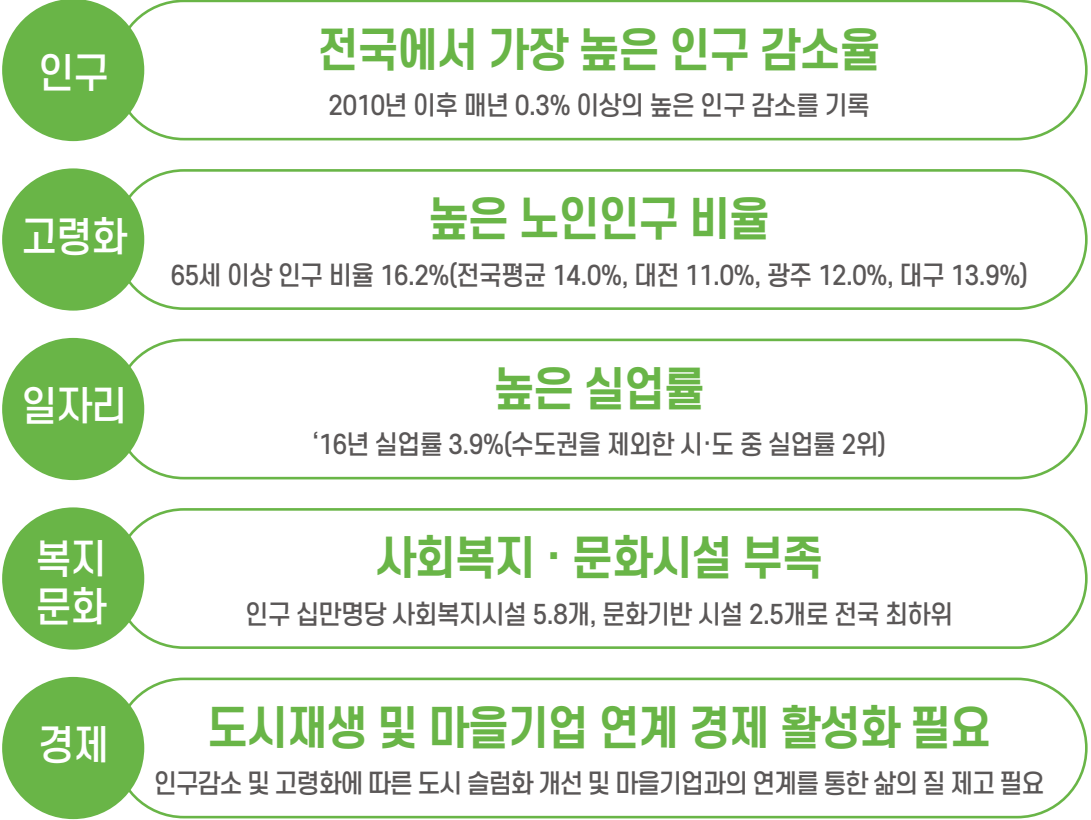
[그림 59]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부산 단증장기 추진과제



□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

- 2017년 균형발전 주요통계집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부산은 매년 0.3% 이상의 높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14.0%인 것에 비해 부산은 16.2%를 기록하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낙후된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도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부산의 실업률은 3.9%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문화시설 역시 인구 10만명당 각각 5.8개, 2.5개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 동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의 특화된 사회문제 유형은 사회적 고립, 저출산·고령화 문제, 도심 공동화, 환경오염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 시행된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0] 부산지역 사회지표 특징



\*출처 : [2017년 균형발전 주요통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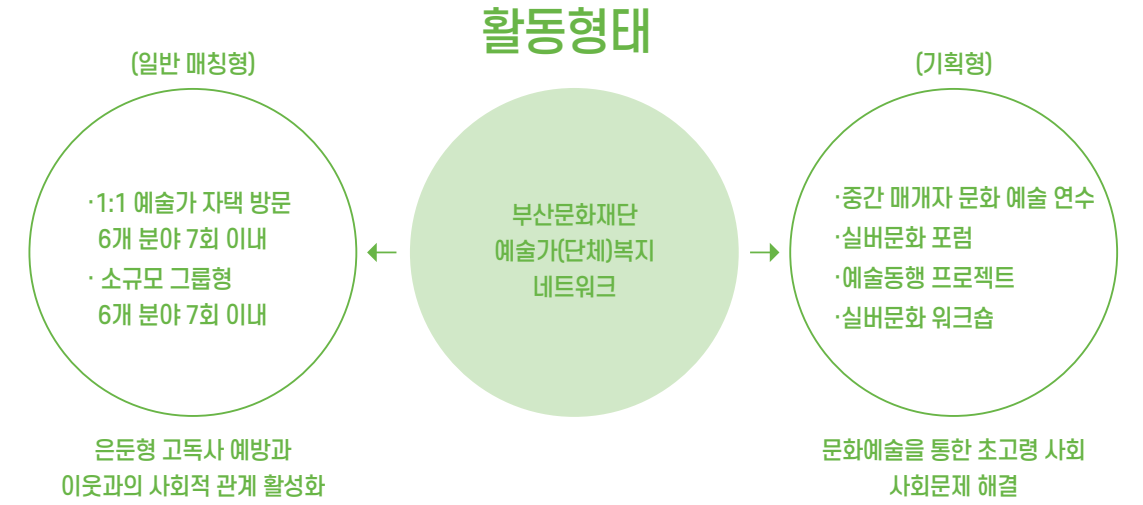
2.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의 사례 및 시사점

1)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별 주요 사례

□ 사회적 고립 및 고령화 문제

- ①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 (2011~현재)
  - 2010년 부산시,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가 전국 최초로 지역의 재가복지세대를 대상으로 한 ‘착한그물’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통합문화이용권(구. 문화바우처) 사업의 기획사업 ‘착한그물’에서 2015년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 동 사업은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세대 간의 교류와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 사회 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재가복지세대에(문화향유 사각지대) 공정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시 문화복지 시범사업모델로 시행되었다가 지역 고령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성을 확장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는 일반 매칭형과 기획형이 있다. 그 중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 매칭형은 부산 내 독거노인 및 고독사의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1:1 문화예술 활동 및 치유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한 관계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구·군 보건소, 지역 치매안심센터, 지방보훈청, 지역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추천받는다. (예: 저소득층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그림 61]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 활동 형태



[표 18]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의 일반 매칭형 프로그램 수혜자 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혜자 수	731명	747명	716명	900명	726명	238명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60명에 달하는 고령인가가 수혜를 받았다. 다만 2019년 이후 실버문화정책담론 등을 위해 기획형 프로그램 비중이 확대되어 일반 매칭형 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 19]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 참여자 후기

“옛날을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뿐이라 떠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마음을 여시며 정서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다.** 과거에 대해 부정적이던 모습들이 점차 변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 진짜 대단했다, 아무나 못 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쳐냈을까. 나, 참 대단하다”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게 되었다.**

- 2020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활동후기 중 -

미로처럼 얽힌 사연을 안고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지치고 빗바랜 주름진 얼굴에 한껏 웃음을 피울 수 있는 공예라는 선물이 고마웠습니다. 만학의 꿈을 안고 80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마지막 남은 여행에 선생님의 지도하에 무엇을 만든다는 그 즐거움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며 일상생활에 가누지 못하는 영육의 고통에 꽃씨를 뿌려 주며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 참여자 공복이(한지공예 참여), 2016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시행 결과, 주위권유로 참여하던 것에서 재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가시간 활용, 배움, 취미활동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재참가 의사가 없는 인원은 소수이지만 꾸준히 있는 편인데, 이는 2019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중 특이사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해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1:1 활동 프로그램 참가 시 참여자와 방문예술가의 성별이 다름으로 인해 방문활동에 불편함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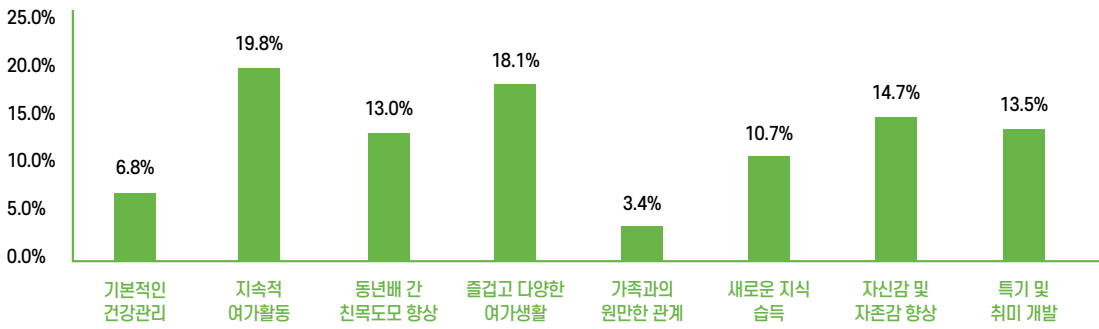
○ 희망활동형태는 1:1 일반형 요구가 많았으나 2020년에는 5인 이내의 소규모 그룹 활동을 희망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됨으로 인해 고립감 해소 욕구가 생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62] 2017~2020년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 2020년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동 사업이 참여자에게 도움이 된 점’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단순 문화향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은 참여자 개인의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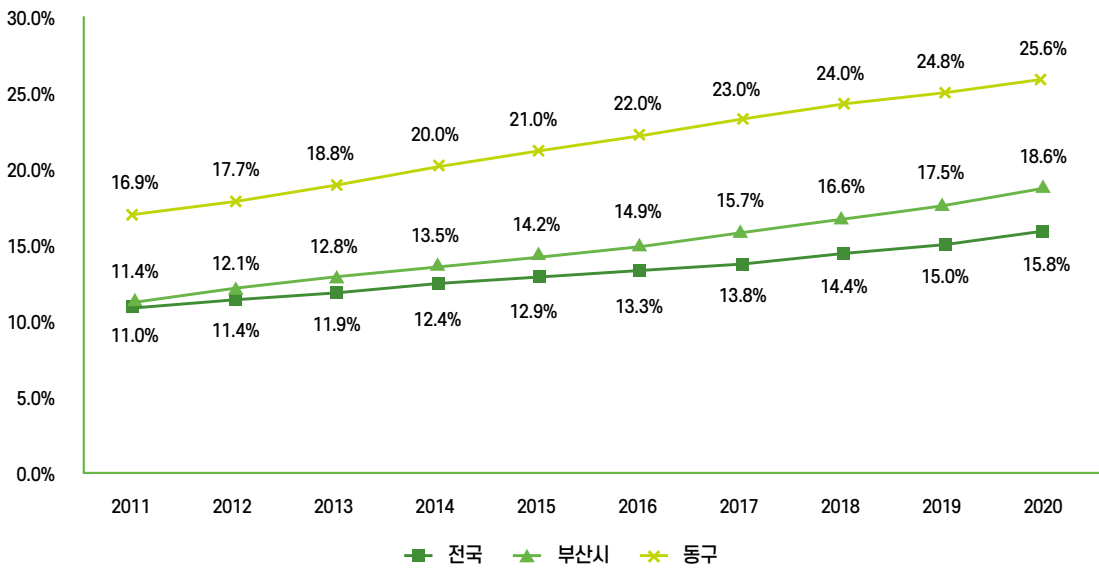
[그림 63]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된 점 (2020년 참여자 대상)



② 매죽지마을 인형극단 (2013~2016)

부산 동구는 1950년대 전후로 형성된 인구밀집형 구도심으로, 높은 언덕길에 노후된 소형 주택이 다수이며 취약 계층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sup>53)</sup> 또한 독거노인비율이 높고, 치매추정노인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림 64] 부산 동구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연도별 변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53) 부산 동구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고령화,초고령화,사회적 고립,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 빈곤지역인 부산 동구 범일동 매축지마을(매축지 문화원<sup>54)</sup>)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매축지마을 인형극단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이곳의 문화유산, 역사적 사건,그리고 개인의 서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 스스로가 시간의 연속성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지역 단체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가 운영을 맡았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는 ‘세대공감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할머니 인형극단’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표 20] 매축지마을 인형극단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p>우리는 경로당, 이런 데 안가요. 노래하고, 금요일은 무용하고, 사진도 찍고, 이거 하면서 <b>인생에 활력소가 생겼어예</b>. 너무 좋아예.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책도 만들고, 우리 자랄 때 경험담 이야기하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즐거워예. 너무 좋아예. <b>이웃이서도 말 잘 안하고 살잖아예. 너무 즐겁고. 하루가 어예 가는가 몰라.</b></p> <p>- 참여자 복슬이 할머니 인터뷰<sup>55)</sup> 중 -</p>
<p><b>어르신들은 인형극을 통해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b> ‘노인참여나눔터’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의 더 멋진 공연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기대해봅니다.</p> <p>- 한국헬프에이지<sup>56)</sup> -</p>

○동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2014년에는 부산비엔날레 기획 프로젝트 “할머니 아트카페”와 연계하여 매축지 할머니들의 닥종이인형 등 작품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활동 공간과 향유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마을공동체 회복 회복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동 재원을 확보하면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4) 문화공간을 겸한 주민 쉼터 건물로 2014년 개소하였으나 재개발로 인해 2019년 폐관하였다.  
55) 부산문화재단 월간지 <공감 그리고> http://bscf.or.kr/jpds/gong/2014/2014\_14\_fall.pdf  
56) 한국헬프에이지, 2017, https://www.helpage.or.kr/business/story/오늘보다-더-멋진-내일을-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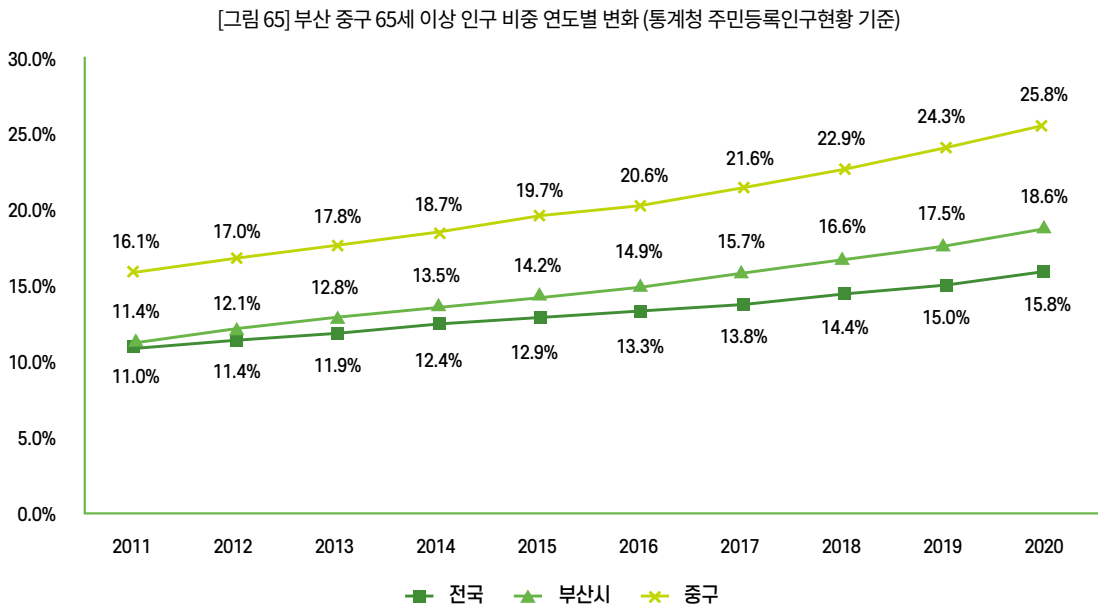
[표 21] 매축지마을 인형극단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2

<p>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지공예로 인형을 만들었고, 여기서 만든 인형은 부산비엔날레에 초청받은 일본 큐레이터가 ‘할머니 아트카페’로 다듬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참가한 할머니 한 분은 “예전에는 ‘더 살면 뭐 하겠노,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라고 했지만 이런 것도 만들고 할수록 하루하루가 금방 가니까 ‘내일 또 뭐 만들지?’하는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p> <p>- 부산일보<sup>57)</sup> -</p>		
동구	꽃할매 인형극단	<p>· 사업명 : 가치(있게)놀자!! 재능기부 놀이터, 꽃할매 인형극단의 찾아가는 공연</p> <p>· 지원금액 : 5,500,000원</p>
		<p>· <b>사업목표</b> : 재능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문화의 기회 제공</p> <p>· <b>사업내용</b> : '치유와 나수미'인형 만들기. 꽃할매표 쿠키만들기, 찾아가는 작은 인형극단 운영</p> <p>· <b>추진성과</b> : 어르신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어린이 대상 인형극 공연을 통해 1,3세대간의 교감을 도모하였음</p>
<p>■ <b>잘된 점</b></p> <p>- 인형극 활동에 필요한 등장 인형, 무대 배경, 막 등 모든 단원들의 맘과 손길을 거쳐 직접 제작되었음</p> <p>- 작품 하나에 1년이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높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단원 스스로가 자조 모임으로 연습에 힘쓰고 있음</p> <p>- 재능기부 공연 후, 각 유아교육기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추후 다른 공연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와 내년에 새로운 인형극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함</p> <p>-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020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발표대회 자료집 -</p>		

- ③ 놀이하는 산복마을 - 호모화투스 (2017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부산 중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노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이 중구 인구의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58)</sup>

57)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119000023  
58) 부산 중구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구이고 타향민이 많아 문화 다양성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일환인 호모화투스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지식나눔 공동체 이마고’가 운영을 맡아 마을 주민 여가문화인 화투놀이와 문화예술교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써, 거대 화투 꾸미기, 화투 인형극, 옛날 동네 모습으로 말판 만들기 등의 콘텐츠로 노인의 삶에 활력과 정신적 건강을 불어 넣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중심 추진장소는 중구 원도심의 산복도로와 망양로이다. 그 중에서도 산복도로에 위치한 ‘금수현의 음악살롱’은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1차년도 사업에 포함된 건물이다. 2013년부터 중구 커뮤니티 문화센터로 운영되다가 2018년 공유배움터, 2019년에는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되었다.

59) [http://www.bsjunggu.go.kr/news/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96&menuCd=DOM\\_000001514000000000&dataSId=189450](http://www.bsjunggu.go.kr/news/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96&menuCd=DOM_000001514000000000&dataSId=189450)  
6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709000108>  
61) 주한영국문화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itishcouncilkorea/221181236862>

[표 22] 호모화투스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p>“한지를 뜯어서 도화지만한 화투도 만들고, 화투 춤도 추고, 거대화투 놀이도 하고요. 화투에 얹힌 옛날이야기도 나누고, 손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도 했어요. 주사위놀이와 화투놀이, 윷놀이를 접목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을 한 번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요!”</p> <p>-대청동, 김00, 67세 인터뷰<sup>59)</sup>-</p>
<p>어르신들은 소근육 사용을 잘 못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한지와 풀의 질감도 느껴 볼 수 있고, 일일이 한지를 손으로 찢는 작업을 통해 두뇌 활동도 자극할 수 있다.<sup>60)</sup></p> <p>-부산일보-</p>
<p>직접 방문해서 본 이 주민센터는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이곳의 활동이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영국 방문단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놀라워했고, 영국 전역에 이마고와 같은 커뮤니티가 생겨난다면, 손쉽게 창의적 노년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p> <p>-세바스찬 크러치, 신경심리학자<sup>61)</sup>-</p>

- 화투놀이가 노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관계 맺음’, ‘몰입을 통한 시간 살리기’, ‘자기표현’이다. (임경미, 2018)  
타인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는 동안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놀이에 몰입함으로써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놀이 중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나타내는 자기만의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도심 공동화 문제

- ①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구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2019~현재)
-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에 따르면, 부산 내 16개구 중 빈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8개 구는 부산진구 및 남구,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 서구 및 금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부산시 구군별 빈집 비율(%)

지 역	강 서 구	금 정 구	기 장 군	남 구	동 구	동 래 구	부 산 진 구	북 구	사 상 구	사 하 구	서 구	수 정 구	연 제 구	영 도 구	중 구	해 운 대 구
비율	1.7	7.4	2.8	13.6	8	4.3	13.6	1.1	1.1	10.5	7.4	2.5	3	7.7	5.7	9.6
순위	14	7	12	1	5	10	1	15	15	3	7	13	11	6	9	4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표37. 부산광역시 구군별, 등급별 빈집현황(2019년 기준)>)

- 부산은 특화된 사회문제 유형인 사회적 고립, 고령화와 관련하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빈집을 매개로 지역민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속적인 시도를 해왔다. 지역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이다.
- 동 사업이 시행된 장소적 특성을 살펴보면, 젊은 층이 떠나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곳이며, 이로 인해 소외와 고립이 발생하는 동네라는 공통점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일상의 회복과 치유를 지향하는 1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구분	2019	2020
명칭	수정아파트 프로젝트	빈방의 서사, 다섯 가지 이야기
사업 목적	- 도시의 발전, 산업의 재구조화, 저출산으로 폐허가 된 빈 곳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금자리와 삶에 대한 재고(再顧)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소통 독려 •지역공동체 지속 지향	- 지역의 폐공간을 작품 오브제로 활용한 전시, 감상, 체험 중심의 실험적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 1인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대면 시대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방향 제시 •자기 이해와 성찰(내면 치유, 회복)
협력 인원	-지역예술인 및 기획자 4명 •공간연출: 조정환(서양화가) •아카이방: 윤창수(사진작가) •교육운영: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문화예술교육), 김유한 (무용예술가/마을활동가)	-지역예술인 5명 •김덕희(시각, 설치), 김보경(시각, 퍼포먼스), 여상희(설치), 왕덕경(시각, 설치), 장만영 (설치)
추진 장소 특성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아파트 16동 B208호, B405호 2개 실) •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다수의 빈집 •어르신들 중심의 공동체 응집 •거주민들의 연령층이 80세 전후(1인 세대)	-사하구 물운대(다대포라는 환경 특성) -사하구 장림시장(자연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없고 환경문제가 있는 마을) -서구 아미로(묘지위에 터를 잡은 마을) -부산진구 성지로(산골짜기가 연상되는 고립 혹은 독립된 마을) -영도구 대평동(강강이마을-사람이 떠난 마을)
세부 내용	-아랫목 극장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그림자극 공연 -수정인문예술창작소 •팝업만들기, 비누 꽃바구니, 부직포 천연 가습기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다원in수정 •어르신, 청·장년층, 유·아동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포트락 파티 •주민들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수정 시간여행 •지역민이 참여한 사진 전시, 출사교육 프로그램	-김덕희, 시간의 서 •시간, 나의 이야기, 모래시계 -김보경, 안으로의 길, 사랑의 공간 •신체활동, 3m 벽 그림 산책, 색감표현 -여상희, 집의 순환 •동네답사, 영상시청, 아카이브 관람, 신문지 종이죽 큐브제작 체험 -왕덕경, 잃어버린 시간, □의 방 •엄마의 서사, 감정 표현, 나의 이야기 기록 -장만영, 되돌아가는 시간 위에 서다, 촉각적 소리 산책 •소리 교육키트 체험, 소리 탐지기 제작, 소리 그림 그리기, 소리 듣기

[표 25]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우리가 그 당시 못 배웠던 이런 꽃꽂이 같은 것도 (배우고), 젊은 사람 상대도 하고, <b>맨날 노인들만 모여 있다 젊은 사람 모여 있으니 더 좋아요.</b>
- 권00, 74살 참여자 인터뷰 -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홀몸 노인이거나 저소득층 가구인 탓에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가 없었다. 재단은 이 아파트 빈 집을 빌려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준비했다. <b>그동안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저소득층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등을 했지만 단발성으로 그쳤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기획자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형태로 꾸렸다.</b>
- 국제신문 -
<b>‘시간의 서’는 시간 감각을 새롭게 한다. 자신만의 시간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차분해지고, 내게 의미있는 시간을 찾다보면 울컥해지기도 한다.</b>
- 부산일보 -
포스트 코로나19,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접촉 필요
(김덕희 작가, 회의록 중)
코로나 시대라 가능한 ‘혼자’ 공간에 와서, ‘혼자’ 작품을 보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의미있는 시도!
(정만영 작가, 회의록 중)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공간에 자연이란 ‘생’이 다시 자리한다는 것을 예술적 방식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집의 순환> 참여자, 결과보고 중)

② 부산광역시 집창촌, ‘완월동’ 사례

-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후 부산이 개항되면서, 일본 매춘업자들은 부산에 몰래 입항해 매춘을 확산시켰다.<sup>62)</sup> 즉 부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지이며, 일제강점기 당시 매춘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이후 부산은 해방, 6.25 전쟁을 겪으며 항구를 통해 물류가 오가며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완월동은 항구, 시장, 터미널 등 주요 시설 주변에 위치해, 미군정이 공창제를 폐지하였음에도 성매매가 번성하였다.<sup>63)</sup> 2000년대에 이르러,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며 완월동 역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대대적인 영업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완월동에서도 많은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가 폐쇄, 폐업되었다. 그러나 이 영향으로 성매매 집결지로서의 활동성이 줄어들자 빈집이 늘어나고, 인근 시장의 활기도 줄어들어 도심 공동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연구원(2014)에서는 미래

6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9192&ref=A>

6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91204.22018001695>

64) 오금아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017574096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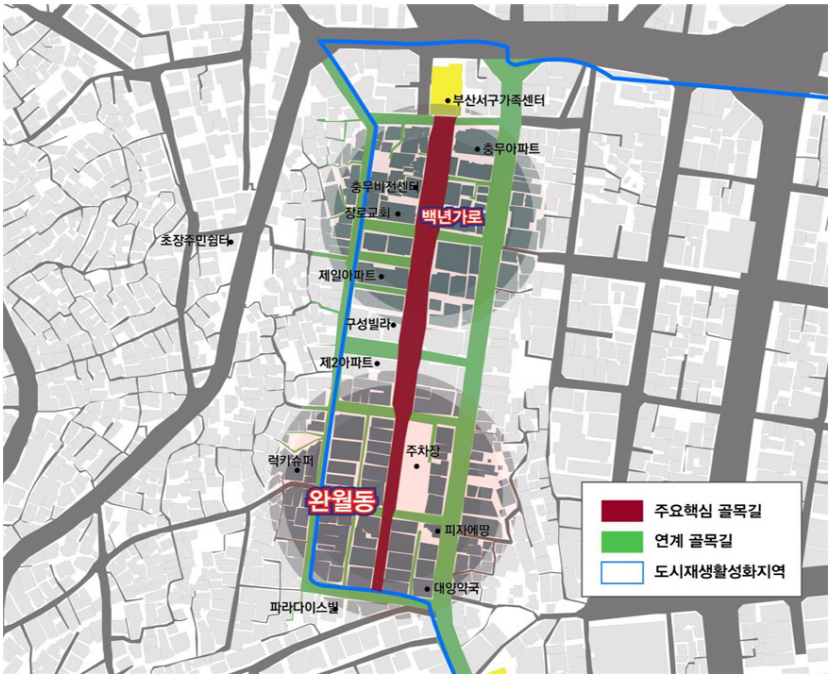
65) 부산연구원,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 완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2014, p27

66) 위의 자료, p39

정체성 정립, 공간환경의 단계적 전환,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세 가지 중심축으로 완월동이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장소의 역사성 창조, 주변 인근 도로의 정비 및 시장 특화, 성매매 여성의 자활 프로그램 개발, 빈공간을 활용한 예술 사업 등의 세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 한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시민과 함께 완월동의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부산 완월동 일원 골목재생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완월동의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들을 통해 전주 선미촌의 사례와 같이 성매매 건물 1층의 유리방을 활용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개방감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 모색을 시도할 예정이며, 완월동 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 레지던시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완월동의 장소적 역사성을 담아 골목길을 따라 완월동의 지역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산책로를 확장하고, 역사관 건립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그림 66] 부산 완월동 일원 골목재생 활성화 대상지역<sup>6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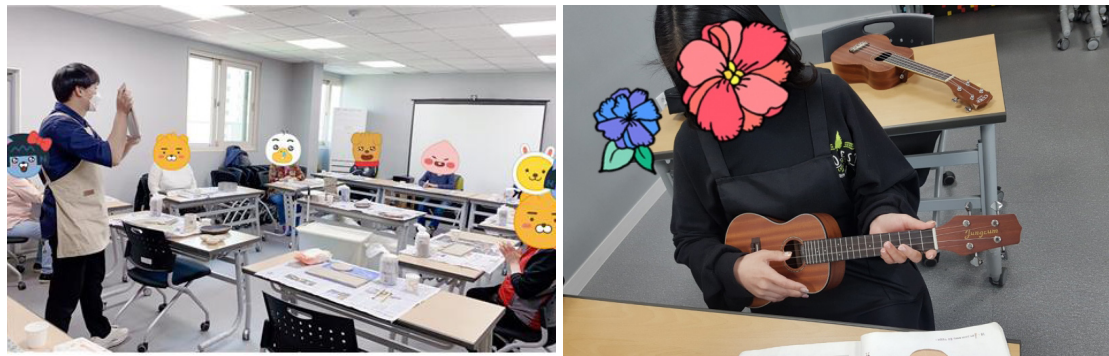


- 한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는 완월동을 비롯한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재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경험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및 법률자문을 추진함으로써 완월동과 같은 특수적 역사성을 지닌 지역에서의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67) 출처:(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www.urcb.or.kr](http://www.urcb.or.kr))



[그림 67, 68]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 프로그램<sup>68)</sup>



○ 이와 같이 특수취약지역에서 일어나는 슬럼화 현상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완월동에서는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예술가, 특수계층, 기획가 등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완월동만이 가진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수평적 구조의 상향식 프로젝트로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 반딧불이 사업은 부산 내 빈집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부산 문화재단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여 2021년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이다. 부산의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일상 속에서 여러 문화 체험을 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도시 경관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6] 기부공간 활용 형태

구 분	내 용
전시 (Exhibition)	입주작가(단체)의 전시장 및 갤러리 운영
공연 (Performance)	연극,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Education)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사업 (Community)	시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운영을 위해 상시적으로 공간 기부자를 모집한다. 기부 받은 공간은 개보수 작업을 거치고, 입주 예술가를 모집하여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입주예술가들은 기본 2년을 거주가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 받고 있다. 개인적인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 대상의 소통 프로그램, 아트솔루션 프로그램과 같은 운영비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기부자-지역민-예술가 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환구조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8) 출처: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https://wom-survivors.or.kr/>)

[그림 69, 70] 반딧불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에서 진행된 전시회 및 시민향유 프로그램



[표 27] 반딧불이 사업 기부공간 현황(2021년 기준)

호 점	위 치	기부기간
1	사하구 감천로 163, 1층	~'21.12.31
2	남구 홍곡로 35-4	~'19.12.31
3	사하구 옥천로54번길 11	~'21.12.31
4	사하구 감내1로 163번길 34-2, 1층	~'21.12.31
5	사하구 감내1로 163번길 34-2, 2층	~'21.12.31
6	진구 새싹로 148	~'21.12.31
7		~'21.12.31
8	서구 아미동 89-146번지	~'20.12.31
9	북구 구포동 1141-182	~'20.12.31
10		~'20.12.31
11		~'20.12.31
12	진구 신암로 117번길 28-11, 2층	~'21.12.31
13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4지구 임대상가 지하 101호)	~'21.10.31
14		
15		
16	사하구 낙동대로 520번길 14 (하단청구아파트 상가 지하 1층)	~'21.12.31
17		

○ 반딧불이 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에 활기를 되살리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커뮤니티 아트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네 특성을 살린 예술이 창작되는 공간이면서도 세대 간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곳의 빈집이어서 안전성을 보완해야한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부산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기도 하나, 예술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해양 환경오염 문제

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2018~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모이다아트협동조합’에서 운영한 동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바다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모형 만들기 등의 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작가가 멘토가 되어 아이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표현 방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

[표 28] 연도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주요 내용

구분	2018	2019	2020	2021(선정)
프로그램명	예술로 헤엄치는 바다 놀이터	예술로 함께 떠나는 ‘흥미진진 무한상상 항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부제: 비치코밍으로 만난 바다가 준 선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바다를 살리는 바다공작소>
주요내용	• 비누아트 부족 • 모래그림 패턴 만들기 • 바다 미술제	• 3D프린트 접목한 배 만들기 • 1박2일 캠프 • 제2회 어린이 바다미술제	• 비치코밍 • 가족작품 만들기 프로젝트 • 제3회 어린이 바다미술제	• 비치코밍 캠페인 • 스톱모션 영상 제작 • 제4회 어린이 바다미술제

[표 29]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참여자 후기 및 외부기관 평가

<b>비치코밍을 통해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기대에서 주운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어 본 것이 인상 깊었다.</b> <sup>69)</sup>  - 원준서, 6학년 -
<b>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바다환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 ZOOM을 활용한 화상수업으로 가족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바다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스톱모션 영상제작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b> 이런 활동은 비대면 활동이었기에 가능했던 활동이며 미디어에 익숙한 아동들에게는 매우 흥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sup>70)</sup>  - 주강사 고은화 -
<b>비치코밍과 플로깅을 통한 해양정화 활동, 예술창작 활동으로 바다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프로보노 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함.</b> <sup>71)</sup>  - 김부련 컨설턴트 -

○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주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18년에는 50개 단체 중 2개 단체, 2019년에는 41개 단체 중 6개 단체, 2020년에는 39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해당된다.

69) 모이다아트협동조합 결과자료집

70) 위 자료집

71) 2020 부산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

[표 30] 최근 3개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내 환경 관련 프로그램

연도	구분	장르	지역	단체명	키워드(프로그램명)
2018	기획	미술	수영구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예술로 헤엄치는 바다 놀이터
	일반	미술	기장군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업사이클 가드닝
2019	기획	미술	수영구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자연환경 연계, 바다, 해양도시, 미술, 기술
	일반	미술	기장군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업사이클, 도시농업, 텃밭만들기, 숲 해설, 숲 놀이터, 환경
	일반	미술	동래구	사단법인 행복두드림	적정기술, 환경오염, 공예, 환경교육
	인큐	연극	남구	극단 에저또	환경, 바다, 플라스틱, 해양동물, 공동체의식, 미래
	인큐	미술	부산진구	송협주판화공방	판화, 지역환경문제, 업사이클링
	인큐	통합	북구	모들	복지기관 연계, 1인 미디어, 바다환경, 바다생물, 환경, 재활용
2020	기획	미술	수영구	모이다아트협동조합	가족, 여행, 비치코밍, 체험, 메시지전달
	일반	연극	남구	극단 에저또	환경, 바다, 플라스틱, 해양동물, 공동체의식
	일반	융합	북구	모들	미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바다미술, 기후변화, 바다미술제, 지역사회기반 등

② 비치코밍/플로깅(Beach Combing/Plogging)

- GachiART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심각성에 주목하며 친환경, 자원순환, 리빙아트를 모토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동 단체는 2010년부터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환경과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해안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 '가치 비치코밍 플로깅'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인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해안가 환경 정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비치코밍과 플로깅으로 부산 각 구군별 포구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양 환경 오염 문제에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71, 72] 비치코밍 활동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그림 73] 비치코밍 활동으로 만든 작품 전시회<sup>72)</sup>



○GachiART의 활동 외에도 부산문화재단의 문화나눔 가치확산 캠페인 '비치코밍 프로젝트', 해운대구의 '해운대 비치코밍축제', 부산 기반 민간기업 무학의 '비치코밍' 등 여러 곳에서 비치코밍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물놀이용 페튜브를 활용한 설치물, 해양오염 사진전, 업사이클 전시회를 비롯하여 바다 쓰레기로 예술작품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버려진 사물의 가치를 예술로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아트 기반의 전시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 등 예술의 공공성을 확장 중이다.

[그림 74] 비치코밍 결과물 페테트병을 이용한 작품(해운대구)



2) 부산 특화 사회문제 관련 주요 문화예술 활동 사례의 시사점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세대 간 공감 및 삶의 질 향상

- 앞서 언급한 활동 사례들은 참여자 개개인에게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어르신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심적 여유가 없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 등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문화예술(교육)가와의 신뢰와 공감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예컨대 ‘놀이하는 산복마을 : 호모화투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었던 ‘금수현의 음악살롱’은 2013년에 개소하였으나, 2016년 인형극 재현, 2017년 호모화투스 운영까지 3~4년이 소요되었다. 한편 2014년부터 추진된 ‘매죽지마을 할머니 인형극단’ 프로그램을 위해 소요된 라포 형성 기간은 약 2년이였다.<sup>73)</sup> 이러한 고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은 활동예술가를 대상으로 실버세대 특성 이해, 사회복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

72) 출처 :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가치 비치코밍 플로깅 책자

73) 2012년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 모임 사업으로 ‘그림책포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죽지마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과정을 거쳐 2013년에는 ‘세대공감 그림책 만들기’를 시행했다. 이것이 2014년 ‘매죽지마을 할머니 인형극단’의 전신이다.

마을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거주하고 계셨는데, 어르신들도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임이 있었다. 그중 제일 젊은 어르신들은 70대 초반의 젊은? 어머님들이었고, 그리고 80대 이상의 고령의 어머님들, 또 70대 이상의 남자 어르신들 등으로 모임의 성격을 크게 나눌 수 있었다. 70대 초반의 젊은 어머님들은 화투놀이를 제일 좋아하시고, 80세 이상 고령의 어머님들은 햇살 좋은 곳에 나와 앉아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남자 어르신들은 따로 모이지는 않으시지만 지난날 공직에 계셨든지 사업을 하셨던 터라, 나름대로 혼자서 붓글씨를 쓰거나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 멀리 있는 학당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는 분들도 계셨다. ... 그렇게 어머님들과 친해지고 난 뒤, 어머님들께 화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지 않으시겠냐고 제안했다. ... 어머님들은 흔쾌히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고, 커뮤니티 문화센터는 드디어 어머님들의 잦은 발걸음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sup>74)</sup>

- 부산문화예술교육총서2, 황정미 인터뷰 -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 내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고령화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큰 의의는, 참여하는 예술가, 강사, 봉사자가 고령인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sup>75)</sup>

인형극 만들기 수업은 단순히 인형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바느질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인형극을 처음부터 무대에 올리는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 극본도 직접 쓰고, 미디어센터에서 녹음도 하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역사와 생활에 관한 주제여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었다.<sup>75)</sup>

- 부산여중1, 박예빈 -

- 지역, 마을을 구성하는 고령인구의 이야기가 마을의 특성을 보여주듯이, 미시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극, 전시 등의 예술 활동 과정을 거치며 여기에 참여한 예술가, 강사, 봉사자, 고령인구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 즉, 거시적으로는 세대 간 공감으로 참여자 모두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3)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예술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 고령 참여자의 건강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지속성 문제

- 고령자의 정신적 건강,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상 운영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고연령으로 인한 사망, 병환 등으로 할머니 인형극단의 단원에 결원이 생기는 사례,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1:1 프로그램의 중도포기 사례가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건강상태에 적합한 예술장르 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림으로서 고립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1:1 매칭형의 경우, 5회로 운영되다가 현재 7회로 늘어났다.)
- 한편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문화예술(교육)가의 입장에서도 상실을 경험 하는 것은 상당한 심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례로 2016년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 활동예술가 실태조사 결과, 기타의견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 이용자 사망 시 활동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74)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총서2, 지역문화예술교육

75) 극단 산복이 들려주는 부산 중구 산복도로 작은 역사 2016 인형극그림책 자료집

#### □ 도심 공동화, 고립지역이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될 시 프로그램 운영 지속 문제

-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결국 지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 가능 거점 유실,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모임 중단 등의 문제를 낳는다.
- 매죽지마을 할머니 인형극단의 경우, 운영 재원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할머니들의 지속적인 활동 의지, 노력 등이 반영됨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마을공동체로 입지를 다져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매죽지마을의 재개발로 기존 활동지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활동거점의 부득이한 이동을 야기하고, 할머니들의 거주지 이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중·단기적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상황과 같이 지역을 활성화 시킨 문화예술단체들이 높은 임대료를 이기지 못하고 주 활동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매죽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된 자발적 지역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수순을 거칠 수도 있다.

### 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의 방향성

#### □ 코로나 19로 유발된 '비대면 시대'에 대응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참여 고령자는 모임 활동으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으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기획자, 강사, 예술가 들이 가장 크게 느낀 활동 장애요인이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기준상 고령 노인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중도 취소가 증가했다. 또한 2020년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참여자들의 희망유형이 1:1 유형에서 5인 이내의 소규모 그룹형을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 한국갤럽의 스마트폰 사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수준이 '하'에 해당한다고 답한 사람 중 절반(51%)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층의 정보 격차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량교육 사업 (디지털배움터)을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것이 비대면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34>



#### □ 부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로부터 확장된 문화예술의 방향성 설정

- 부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양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예술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단체는 해양 쓰레기로 작품 만들기, 어린이 바다미술제 전시 등으로 “프로보노(Probono)”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모이다아트협동조합’과 같이 유사한 주제로 운영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직접적 문화예술 활동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인성교육, 비판적 사고력 강화교육에 가깝다. 2020년에 시행된 사업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극단에서또’는 ‘모이다아트협동조합’과 환경, 바다 등 유사한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보다는 부산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의 인성 교육에 적합하다. ‘모들’의 경우에도 바다환경, 재활용, 리사이클링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주제탐색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평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편 고령화, 도심공동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산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례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매축지마을 할머니 인형극단, 산복도로 할머니들의 호모화투스 프로그램 등으로 참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정도, 사회활동 역량 증가 정도 등에 대한 정량적 결과물이 없었다.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사업도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자의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결과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애드보커시를 추진함에 있어 한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사업 운영 자원 확보, 관련 인력 양성, 사업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 사회문제를 완화시키는 문화예술 역할을 정량적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업(프로그램) 운영의 목표(Objectives) 혹은 핵심결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관계 횡간 적으로 확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환경문제, 환경기술 등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 협업을 통하여 탄소발자국 감소, 해양쓰레기 감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식 자체를 콘텐츠화 혹은 비즈니스 모델화하여 환경 교육을 진행하는 관련 부처, 기관과도 협업하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향후 과제



IV. 부산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

1. 연구 결론

1) 연구조사 의의 및 시사점

□ 연구조사의 의의

-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전 세계 문화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함을 확인 하였으나, 여전히 예술가(단체) 및 수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개념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못했다, 특히 지역 내 담론 형성이 부족해 소외계층 문화 불균형 해소나 사회참여 예술로 국한해 해석되기도 한다.
- 이에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한 국내외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부산지역 예술활동 관련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구조를 제안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한 부산 지역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공유해 문화예술의 실용성과 지원효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문화 예술 활동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책적 제언

□ 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류

- 예술은 인간의 삶 가까이 존재해왔으며, 때로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이는 제3장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예술의 사회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① 정신적, 심리적 건강 증진

- 인간은 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향상된다. 예술을 통해 감성적인 힐링과 정신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예술의 본원적 가치는 '웰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지역 내 사회 문제 완화

- 문화예술은 기피 지역의 도시환경과 낙후된 지역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완화 하는 경향이 있다. 불법 매춘 성행,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의 거리를 안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기관, 예술가, 지역민이 함께 협업함으로써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 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 소규모의 모임을 지속하며 미술, 연극 등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이 감소하고, 뇌의 인지기능 역시 향상되기도 했다.

③ 후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

-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그치지 않고, 농업, 기술 등 다른 분야와 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때로는 재난을 입은 지역에서 치유활동으로써 예술이 개입되기도 한다, 정신적인 재건을 이루며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포용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 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활동하며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으로써 동시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며 세대 간 소통과 더불어 장애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기도 한다.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 예술은 인간 내면적으로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이 공간에 적용 되었을 때에는 그곳이 창의적인 곳으로 변모하게 되며, 거리의 활기를 창출한다. 또한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예술은 다양하게 엮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매개 역할을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조사의 한계

□ 문헌 조사 위주 연구 방법론의 한계

- 코로나19 팬데믹에 인한 연구 방법론적 제약으로, 문헌 조사 위주의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세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는 조사 대상 단체들의 예술적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사례 내용이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2020년도 이전 활동 위주를 주로 분석하여 최신 동향을 다루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심의 사례 소개와 영향을 나열하는 데 그쳐 문헌 조사의 한계가 드러난다.

□ 활동 현장 조사 및 수혜자 의견 수렴 한계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전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활동 조사가 불가능해져, 문화예술 활동 현장 분위기와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 문화정책 및 사회문제 관련 분야 전문가 FGI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시되지 못해 다양한 의견이 전문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현장 수행 평가를 통해 수행단체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역시 진행되지 못해 정보 제공과 정책제안의 현장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2) 향후 과제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후속 연구 - 툴킷(Toolkit) 제작

-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툴킷 형태로 제작하여 실천적 가이드라인 제공한다.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가별, 또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 특성별 등의 분류를 바탕으로 예술이 지닌 가치를 보다 쉽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컨대 활동가 대상의 툴킷은 부산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도적 수행단체의 노하우 및 동료 학습을 통한 지식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것을 통해 실천적 AtoZ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즉, 사회문제 유형별 활동 수행의 운영 매뉴얼 제시를 통해 공급자(수행단체)와 수혜자, 매개자의 실용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협업과 역할 분담에 관한 실천적 사항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애드보커시

-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가 있으나, 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과 예술가(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창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 등으로 예술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지역 사회 문화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인식 제고와 함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정립 및 확산 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SNS를 활용한 비대면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사회적 예술 활동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다각적인 매체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VI. 참고 문헌

## VI. 참고문헌

### [논문 및 보고서]

- 김정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현상,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지표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 양혜원,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양혜원·김현경·윤지연,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여관현,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13
- 유사원,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윤소영, 지속가능한 문화비전2030 추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0
- 이동연 외,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 2018
- kmac,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산 지역 핵심 이슈(민의)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2019

### [도서]

- 김화임,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 마크 어빙·피터ST,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마로니에북스, 2009
- 방귀휘, 장애인 문화예술의 이해, 숲대, 2014
- 정철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서울경제경영, 2013
- 키타가와 후람, 예술이 지역을 살린다, 국토연구원, 2018
- 한국장애예술인백서,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 2011

### [홈페이지]

- 기타나고야시 역사 민속 자료관: <https://www.city.kitanagoya.lg.jp>
- 매직 마: <https://magicme.co.uk/>
-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http://www.bscf.or.kr)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http://www.sfac.or.kr)
- 성북구 장수마을: <http://www.jangsumaeul.com/>
- 세계 포용예술 네트워크: <http://www.inclusiveartsnetwork.org/>
- 아트 프로젝트(아트프로젝트): <https://arts-project.com/>
- 에이블 아트: <http://www.ableartcom.jp/>
- 에이블 아트 운동: <http://www.ableartcom.jp/>
- 에치고츠마리: <https://www.echigo-tsumari.jp>
- 전주문화재단: [www.jjcf.or.kr](http://www.jjcf.or.kr)

- 탄보아트: <https://gurutabi.gnavi.co.jp>
- 호스피탈 아트: <https://www.hospitalart.org>
- American For The Arts: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
- UNESCO Culture & COVID-19 Impact and Response Tracker: <https://en.unesco.org/news/culture-covid-19-impact-and-response-tracker>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sustainable-development-goals.html>

### [해외자료]

- 일본문화청, 문화예술에 의한 사회포섭의 평가방법·가이드라인 구축에 관한 시안(文化芸術による社会包摂の評価手法・ガイドラインの構築), 2020
- 일본문화청, 새로운 문화 예술의 창조를 지원하는 활동 지원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플랫폼 형성 연구(新たな文化芸術の創造を支える活動支援および人材育成のためのプラットフォーム形成研究), 2018
- Alice Fox and Hannah Macpherson,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Routledge, 2015
- ARTS COUNCIL ENGLAND, Equality and diversity with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in England, 2013
- ARTS COUNCIL ENGLAND, Shaping the next ten years, 2020
- ARTS COUNCIL ENGLAND,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TO PEOPLE AND SOCIETY, 2014
- ARTS VICTORIA, THE ARTS RIPPLE EFFECT: VALUING THE ARTS IN COMMUNITIES, 2014
- Culture in city reconstruction and recovery, UNESCO & The World Bank, 2018
-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SPORT AND CULTURAL INDUSTRIES,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ARTS WA FINAL REPORT, 2019
- HAL,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 culture, arts and development, Margarida Azevedo, 2016
- IFA, Cultur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2020
- IFACCA, culture21, IFCCD, culture action, CULTURE AS A GOAL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 Margarida Azevedo.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 culture, arts and development. Economics and Finance. Université Panthéon-Sorbonne - Paris I, 2016. English. NNT : 2016PA01E041
- M.Sharon Jeannotte University of Ottawa,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A Literature Review, Centre on Governance, 2017
- Peter Taylor, Larissa Davies, Peter Wells, Jan Gilbertson and William Tayleur,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2015,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 UCLG, CULTUR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GUIDE FOR LOCAL ACTION, 2018
- UNESCO, Culture in City Reconstruction and Recovery(World Bank 2018)
-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 François Matarasso, 1997

# 부록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사례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사례

#### 1)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

##### ①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노동과 예술의 결합으로 사회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구조를 위한 메시지 전달



-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대표자: 이준호)  
(※구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 설립년도: 2016년
- 협업
  - 부산청년유니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 등 일반 노동자/단체
  - 킬라몽키즈, 미디토리, 박조건형, 김주찬 등 지역 예술가/단체

#문학 #음악 #영화 #사진 #출판 및 만화

- 활동명: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아름다운 재단)
- 기 간: 2016년 ~ 2019년 (지원 사업종료), 현재 흥은 지속적으로 활동중
- 내 용: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일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예술가와 연계하여 사진, 드로잉, 음악, 영상 등으로 콘텐츠로 제작하여 (노동요 프로젝트) 현대사회의 노동문제를 재조명함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노동과 예술의 접점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흥’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예술작품을 만들어 왔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활동 범위를 지역 속에서 넓혀내고, 사회적 문제에 대중의 관심과 공감을 증진해옴
  - 최근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만드는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으로 단체명을 바꾸면서 활동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미세군전부대 추방을 위한 예술인 기자회견’, ‘부산시민 8.15 시국집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활동 영역을 넓혀내고 있음

○ URL : <http://newwaveculture.org/>



2) 건강 및 웰빙 증진

① Boomvill (붐빌)

#사회복지사 심리 치유	
	<div>○ Boomvill(붐빌) (대표자: 이정운)</div> <div>○ 설립년도: 2019.04.05</div> <div>○ 협업: 부산문화재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div>
#문학 #미술 #무용 #사진 #유리공예	
	
<div>○ 활동명: 예술가와 함께 떠나는 ‘마음휴가’</div> <div>○ 기 간: 2019. 09. 20. ~ 2019. 11. 29.</div> <div>○ 내 용: 문학, 미술, 유리공예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다양한 장소에서 집합 형태로 진행</div> <div>○ 대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일반 <input type="checkbox"/>아동 <input type="checkbox"/>청소년 <input type="checkbox"/>장애인 <input type="checkbox"/>노인 <input type="checkbox"/>외국인 <input type="checkbox"/>기타</div>	
<div>○ 영향분석</div> <div>- 향상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회복지사들에게 스스로를 만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통해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div> <div>-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 심리적 안정을 통해 소진 및 스트레스 완화(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div> <div>-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접하고 직접 느끼고 체험해 봄으로써 복지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등</div>	
○ URL : <a href="http://boomvill.com/">http://boomvill.com/</a>	

※ 참고자료


회차	일자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강사	장소
1	1회기: 9.20.(금) 2회기: 10.25(금)	나만의 여행 가방 제작하기 그리고, 산책 (시각예술+무용 통합활동)	이정운 이재경 박연정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로원타워 605호)
		각자의 여행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꿈꾸는 여행지를 생각하고 여행 트렁크를 꾸며봅니다.		
2	1회기: 9.20.(금) 2회기: 10.25(금)	일상 속 케렌시아 (문학)	박예슬	핸즈박스 북카페 (거제역)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순간을 공유하고 문학으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을 경험합니다.		
3	1회기: 9.20.(금) 2회기: 10.25(금)	삶의 꽃밭 (문학+플라워 통합활동)	박예슬 김은하	핸즈박스 북카페 (거제역)
		꽃말로 인생 그래프를 만들고, 추억을 꺼내어 쓴 시로 마음을 나눕니다.		
4	1회기: 9.20.(금) 2회기: 10.25(금)	열다섯 우주: 우연적 기법을 활용한 공감 드로잉 (시각예술)	이정운 이재경 손몽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로원타워 605호)
		다양한 우연적 기법(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색칠 드로잉, 물감뿌리기, 홀리기 등)을 활용하여 내면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합니다.		
5	1회기: 9.20.(금) 2회기: 10.25(금)	유리조형기법(퓨징)을 활용한 나를 지켜주는 목걸이, 나를 보는 거울 만들기 (시각예술)	이정운 이재경 손몽주	붐빌 스튜디오 (금정구)
		나만의 목걸이, 나만의 거울을 유리조형 기법을 통하여 제작합니다.		

② 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

#학교 부적응 학생(과오, 비행 등 위기 청소년)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li><li>○ 설립년도: 2004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혜기관) 부산소년원학교</li></ul></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명: 아자(AJA: Able, Joyful and Ambitious)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마음치유, 봄처럼’)</li><li>○ 기 간: 2017.5. ~ 11.</li><li>○ 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음악치유</li><li>- 노래부르기, 가사 토의, 노래 개사, 악기연주를 기본으로 다양한 사진과 긍정 단어 카드, 인생곡선, 공동화 작업을 음악과 함께 사용하여 자신을 인식, 탐색하고 표현</li><li>- 사전 라포형성</li></ul></li><li>○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기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향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음악치료학을 전공한 슈퍼바이저, 주예술치료사, 예술가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li><li>-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측정으로 정성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참여태도, 결과물의 변화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li><li>- 프로그램 초기에는 현장 슈퍼비전, 중후반에는 서면 슈퍼비전 실시</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RL: <a href="https://www.kosinrnd.com/">https://www.kosinrnd.com/</a></li><li>○ 2017 문화예술치유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집 (<a href="https://lib.arte.or.kr/education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https://lib.arte.or.kr/education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a>)</li></ul>	

③ 부산표현예술치료연구소

1) 성폭력 피해 여성 대상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 여성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표현예술치료연구소 (대표자: 김정향)</li><li>○ 설립년도: 2016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혜기관) 00보호시설</li><li>- (자체협력) 경희테라피요가원</li></ul></li></ul>
#연극 #무용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명: 마음치유, 안전한 회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마음치유, 봄처럼’)</li><li>○ 기 간: 2017. 6. ~ 9.</li><li>○ 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용치유</li><li>- 비언어적 자기 표현과 신체를 통한 자기 탐구로 몸, 마음, 감정의 통합 및 구조화(움직임 활동, 게임, 동화책 읽기 등)</li></ul></li><li>○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성폭력 피해 여성 및 시설 담당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향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담심리 및 예술치료 전공한 슈퍼바이저, 무용 및 예술치료 전공 주예술치료사, 연극 등 전공 예술가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li><li>- 성과/효과 측정 방법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과 끝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설문지, 불안 우울 척도 설문지를 이용해 검사하고, 참여자가 작업한 글, 그림 등 결과물에서 보여지는 변화를 기록함.</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7 문화예술치유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집 (<a href="https://lib.arte.or.kr/education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https://lib.arte.or.kr/educationdata/board/ArchiveData_BoardView.do</a>)</li></ul>	

2) 노숙인 대상 프로그램

#노숙인 우울감, 분노, 스트레스 치료



○ 부산표현예술치료연구소 (대표자: 김정향)  
○ 설립년도: 2016년  
○ 협업  
- (수혜기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기타

○ 활동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 사업)  
○ 기 간: 2019. 7. ~ 11.  
○ 내 용  
: 음악치료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결과발표회 진행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자활노숙인)

○영향분석  
- 참여자들의 정성적 치료효과를 높이고 치료사들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 수퍼비전 진행이 있었음.  
※ 수퍼비전은 사회복지에서 수퍼바이저가 사례관리 개입 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가가 경험이 적은 수퍼바이저에게 사례분석 및 진행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기술 등을 자문, 교육 등을 통해 돕는 과정 (출처: 희망복지지원단 수퍼비전 체계 운영 가이드, 2014)  
- 개인의 감정 완화 뿐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 활동으로 소외감을 없애고 안전한 구조 속에서 관계 맺는 것을 연습 하고 경험함으로써 사회로의 안전한 복귀 시도 및 사회적 역할 회복 등 기대  
※ (공동) 기획형 평가 간담회 의견 중 ‘치료와 치유’의 단어로 인해 참여자 본인이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 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함.  
※ (공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사업의 결과보고서 서식 개선 필요  
- 문화예술치유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정성적 결과의 정량화가 이루어지지 못함.(행복감, 자신감, 인식도 정도에 대한 조사 양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체의 역량, 인식 등의 변화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음.  
- 계량적 결과는 발표작품수, 공연/전시/행사 횟수, 발간물 수, 참여 예술인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유료 관람객수, 사업 횟수뿐이라는 아쉬움이 남음

○ URL:

3) 지역사회 문제 완화

① 범천2동 육아맘 공동체 ‘모모드림’

#범천지하도 환경 및 위생상태 개선, #부산진초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통학환경 개선



○ 범천2동 육아맘 공동체 ‘모모드림’  
(대표자: 김은경)  
○ 설립년도: 2019년 12월  
○ 협업: 호천문화플랫폼

#기타(공예)

○ 활동명: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모모드림 “주민이 있는 주민을 잇는 견우다리”  
○ 기 간: 2020.05~2020.11,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으로 지하도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 중 (2019년도부터 공동체 활동 진행 중)  
○ 내 용  
- 연간 총 35회(70시수) 교육활동 진행(오리엔테이션, 교육활동,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평가회 등)  
- 논의를 통해 연간 사업 운영 및 예산 계획, 예술강사와 적극 협력하여 교육활동 지원  
-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영향분석  
- 범천2동의 지하도는 매일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지하도 내 환경이 어둡고 위험하여 지하도를 다니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  
- 육아맘 공동체 ‘모모드림’이 이와 같은 마을 내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도에 공기정화식물과 함께 수공예 작품들을 전시하여 ‘겉고 싶은 지하도’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 이에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호천문화플랫폼의 예술 작가들과 협업하여 지하도 환경개선을 위한 수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있음. 마을 내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예술활동으로 융합되어 소통하며 활동하고 있음.

○ 기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893-0035

②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낙후된 지역 개선, #마을벽화 조성사업



-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 김민아)
- 설립년도: 1996년
- 협업
  - (주)더청연
  - 사하구청
  -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 다대5지구 BMC아파트 관리사무소
  - 다선중학교
  - 주민공동체(좋은마을만들기 한마음봉사단, 다대포 등대)

#미술

- 활동명: 다대5지구 BMC 마을벽화조성사업
- 기 간: 2020. 1. ~ 2020. 5.
- 내 용
  - 주민공청회, 마을벽화작업 진행을 위한 사전작업(환경정비)
  - 마을벽화작업: 다대5지구 BMC아파트 옹벽일대 벽화조성에 공공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주민들이 함께 함.
  - 제막식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주어 양질의 환경을 제공
  - 지역주민들의 지역참여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의식 향상
  -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
  -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URL : <http://www.molun.org/>

③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만덕지역의 문화교육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원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 정신모)
- 설립년도: 2007년
- 협업: 부산문화재단

#기타(영상)

- 활동명: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굿모닝!예술인> ‘만덕천’
- 기 간: 2018.04. ~ 2019.11.
- 내 용
  - 예술인가의 협업을 통한 주민 인터뷰
  - 지역주민, 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공공 등 모든 활동 아카이빙, 현장 취재 진행 등
  - 제작한 영상을 주민들에게 홍보, 마케팅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① ‘만덕천’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뤄지는 하천이면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기도 함. ‘만덕천’이 만덕동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형식으로 아카이빙
  - ② 주민을 위한 ‘공간의 변화’, ‘생태하천으로 변해가는 만덕천 히스토리’를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영상 작업 (영원히 축제 등) 추진. 주관 기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③ 여러 공동체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이 만덕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로 활동하고 있는지 현장감 있게 만덕 마을 스토리로 담아냄
  - ④ 제작한 영상은 악취로 심각한 만덕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활용

○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ySt33o4iW5w>



④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낙후된 지역 개선, #마을벽화 조성사업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대표자: 김경화)  
○설립년도: 2017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활동명:아트상품 개발, 전시, 행사 기획,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예술관련 사업 용역, 창작공간 운영
- 기 간: 2000.00.00. ~ 2000.00.00.
- 내 용
-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 구축
  -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생력 확보(일자리 창출)
  -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
  - 다양한 문화 예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영향분석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조합 활동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URL:

⑤ 수정아파트 프로젝트'

#고령화 #지역쇠퇴 #지역브랜딩




○주최: 부산문화재단  
○기 간: 2019. 12. 4. ~ 8.  
(수정아파트 16동 B208호 B405호)

#기타

- 내 용
- 사업명: 2019년도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기획사업 <수정아파트 프로젝트>
  - 사업비: 38,700,000원
  - 사업내용: 수정아파트 및 수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및 공연, 전시 등

- 진행결과				
프로그램명	내 용	세부 프로그램	참여 인원	장 소
아랫목 극장	수정아파트 및 수정동 일대 토박이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육성과 그림자극으로 진행하는 공연 공연 후 관객들과 주인공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함께 공감하는 시간	‘나 어렸을적’ (명자할매) ‘아흔 둘의 어머니’ (광순할매) ‘인생은 즐거워’ (순이할매)	98	B208호
수정인문 예술창작소	수정아파트 및 수정동 주민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동구/수정동 젊은 엄마들 및 수정아파트 어르신 참여	수정가족 팝업북 만들기 비누 꽃바구니 만들기 부직포 천연 가습기 만들기	33	B208호
다원 in 수정	생애주기별 대상 맞춤 프로그램 어르신, 청장년층, 유·아동 대상	노세! 노세! 놀다가세! 찰칵! 똑딱이 작가 다락방 꼬마 마법사	27	B208호
포트락 파티	새로운 만남과 공유공간으로 16동 주민과 수정아파트 주민들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	B208호 참새 방앗간	13	B208호
수정 시간여행	수정동의 지역민들이 참여한 사진 전시 및 수정동 산복도로를 알아가는 일반인 대상 출사교육 프로그램	수정, 골목을 품다 수정 작은 사진관 수정의 꿈 12월의 어느 멋진 날	154	B405호 / 수정동 산복도로
○영향분석				
- 인구 고령화와 낙후된 이미지의 지역에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함. 지역 어르신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 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에 활기를 창출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딩 가능성을 제시함				
- 마이너스 이미지의 지역이 독특한 장소로 전환되는 사례				
- 4대 부산 특화 사회문제 中 고령화, 사회적 고립 연계가능				

⑥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충남100+”


#보령시 학성2리의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충남 100+”</li><li>○ 설립년도: 2020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령 학성2리 주민</li><li>- 지역디자이너(지역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파트너) 2명</li><li>- 제작지원: 충남개발공사, 한국중부발전</li><li>- 노래·편곡·연주지도: 대구 북성로 업사이클링 밴드 홀라(HOOLA)</li><li>- 영상촬영 및 편집: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li><li>- 개사: 논산 다해랩</li></ul></li></ul>
#음악	

- 활동명: 해양쓰레기의 변신
- 기 간: 2020. 10. ~ 11.
- 내 용
  - 쓰레기를 활용하여 악기 제작 및 업사이클링 밴드 연주
  - 부표로 만든 탬버린, 젓갈통으로 만든 북, 파이프로 만든 마린바 등
  - 업사이클링 밴드는 주민들로 구성
  - 빠르게 쓰레기 버리기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송 개사 및 부르기”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영향분석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공·산·학·연을 연결하는 역할
  - 문화재단은 예술가가 먼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면 이의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어 보임. 지역디자이너라는 협력파트너로서 예술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개편 방향에 참고할 만함.

○ URL : <https://socialchange.kr/chungnam>

⑦ 마을교육공동체 고치

#만덕천 오염 문제를 매개로 공동체 회복 도모 #문화적/경제적 소외 문제 해소	
	<p>○ 마을교육공동체 고치 (대표자: 이언옥)</p> <p>○ 설립년도:</p> <p>○ 협업</p> <p>- 부산시, 지역문화진흥원, 부산시 북구청,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만덕천살리기운동본부</p> <p>※ 만덕다움 프로젝트 환경,예술팀: 만덕고등학교 창체동아리, 마을교육공동체 고치 청년멘토, 만덕종합사회복지관</p>
#미술 #문학 #기타	
<p>○ 활동명: 날라갈라쇼 (지역문화진흥원-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p> <p>○ 기 간: 2018. 8. 18.</p> <p>○ 내 용</p> <p>- 만덕천 열대야 축제</p> <p>· 버스킹 just tomorrow, 찾아가는 달빛극장(영화상영), 날라갈라쇼(전시), 만덕천살리기 희망등 캠페인</p> <p>- 날라갈라쇼</p> <p>· 월담회(매주 월요일 모여서 밥먹기), 만월담연가(일상철학 잡담지), 전시 등</p> <p>· 관계와 한계의 담을 넘는 힘은 사라져가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있다는 믿음으로 공동체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작업을 사진과 글로 엮어 전시</p> <p>※ 만덕다움 프로젝트 환경,예술팀</p> <p>- 활동 스크랩북 제작, 캐릭터 디자인 공모, 나무 벤치 제작</p> <p>○ 대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일반 <input type="checkbox"/>아동 <input type="checkbox"/>청소년 <input type="checkbox"/>장애인 <input type="checkbox"/>노인 <input type="checkbox"/>외국인 <input type="checkbox"/>기타</p>	
<p>○ 영향분석</p> <p>- 만덕천이라는 지역 자원의 오염문제를 매개로 지역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가 주최, 주관이 되어 지역주민, 청소년들과 소통함으로써 마을 축제로 이어짐.</p> <p>- 만덕천 열대야 축제는 10월 “만덕다움프로젝트”의 일환인 만덕천축제로 확대 되었음.</p> <p>- 지역 환경 문제, 청년 유출 문제, 소외된 문화적·교육적 환경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만덕다움프로젝트” 사업(북구다행복교육지구 사업비)과도 연계, 확장되어 있음.</p> <p>- 마을 내 다양한 단체 뿐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영화영상 등 다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고 주민 참여에 의한 적극적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p> <p>- 고치의 날라갈라쇼 활동은 부산문화재단 2017년, 2019년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음.</p>	
○ URL: <a href="https://www.facebook.com/gocheebusan">https://www.facebook.com/gocheebusan</a>	

⑧ 부산문화재단

1)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

#부산 특화 사회문제 中 도심공동화

- 부산문화재단(대표자: 강동수)
- 설립년도: 2009년
- 협업
  - 예술가 개인(김덕희, 김보경, 여상희, 왕덕경, 정만영)

## #전시 #기타

- 활동명: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
- 기 간: 2020.11.~12.
- 내 용
  - 지역의 빈집 또는 빈 공간을 작품 오브제로 활용한 전시, 감상, 체험 중심 ‘1인 문화예술교육’

연번	작가명	분야	운영기간 및 화차별 운영시간	운영내용	운영장소
1	김덕희	시각,설치	2020.12.08.(화)~12.14.(월) -10:00~16:00 (1일 5회, 50분)	·사하구 다대포 공간 구성 <시간의 서(書)> 전시기획 및 교육 운영	사하구 물운 대2길 96-1
2	김보경	시각, 퍼포먼스	·교육:2020.11.24.(화)~11.30.(월) ·전시:2020.12.05.(토)~12.12.(토) -10:00~17:20 (1일 3회, 80분)	·사하구 장림동 공간 구성, <안으로의 길, 사랑의 공간> 전시기획 및 교육 운영	사하구 장림 시장7길 89
3	여상희	설치	2020.12.04.(금)~12.10.(목) -12:00~18:00 (1일 6회, 50분)	·서구 아미동 공간 구성 <집의 순환> 전시기획 및 교육 운영	서구 아미로 12번길 9-20
4	왕덕경	시각,설치	2020.12.06.(일)~12.12.(토) -10:00~16:00 (1일 5회, 50분)	·부산진구 초읍동 공간 구성 <잃어버린시간, □의 방> 전시기획 및 교육 운영	부산진구 성 지로 74번 나 길 6
5	정만영	설치	2020.12.08.(화)~12.14.(월) -11:00~17:00 (1일 5회, 50분)	·동구 초량동 공간구성 <되돌아가는 시간 위에 서다>전시기획 ·<촉각적 소리산책>교육 운영	동구 초량상 로 117-8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다대포, 장림시장, 아미동 비석마을, 초읍 원당골, 초량동 등 주거지역으로 침투하기 어렵거나 못하는 장소, 한국 역사의 아픈 현장, 좁은 골목길로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곳에서 예술활동을 통해 예술의 가장 본연의 역할을 고립된 지역에 접목시킴
○URL : <a href="http://www.bscf.or.kr/00main/main.php">http://www.bscf.or.kr/00main/main.php</a>
○부산일보 2020.12.10. 예술 품은 ‘빈집’이 건네는 다섯 이야기 <a href="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017574096411">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017574096411</a>
○국제신문 2020.11.30. 빈집에 예술이 산다 <a href="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amp;key=20201201.22015009717">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amp;key=20201201.22015009717</a>

2)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부산 특화 사회문제 中 도심공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산문화재단(대표자: 강동수)</li><li>○설립년도: 2009년</li><li>○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Young Yuo Are</li><li>- 청년문화로 협동조합</li><li>- 레트로 덕천</li><li>- 강림것들</li></ul></li></ul>
#기타(영상,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활동명: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조성·운영</li><li>○기 간: 2020</li><li>○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창작공간 2개곳 조성 및 운영</li><li>- 39세 이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문화예술단체 팀이 주축이 되어 빈집을 활용한 공간 조성 및 마을 기반 커뮤니티 운영</li><li>- 입주단체를 주축으로 상생협력, 공유공간, 사회적 가치 등을 기반으로 한 마을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운영</li><li>- 활동결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주예술가 4개 단체 선정(영유아 외 3개 단체(팀))</li><li>· 시민향유프로그램 진행</li><li>▶ 영유아: 영주동 주민 인터뷰(지속), 영주동 로고 및 굿즈제작(지속), 라이트 영주(12.19), 영주동에 산타가 온다면(12.20.)</li><li>▶ 청년문화로협동조합: 영주동에 산타가 온다면(12.20.), 영주세탁소(12.10.~12.28.), 오픈식 (12.23.)</li><li>▶ 레트로덕천: 영도 밥상(5회), 아트멘터리 릴레이전(총5회), 시민 큐레이터(총4명), 영도아트미디어(총1회)</li></ul></li></ul></li></ul>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청년)	
○영향분석	
-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노후화 및 공동화 되어있는 곳에 활력 부여	
○URL : <a href="http://www.bscf.or.kr/00main/main.php">http://www.bscf.or.kr/00main/main.php</a>	
○ 서울경제 2020.07.08. 부산 원도심 빈집 청년 놀이터로 만든다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27NMEL">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27NMEL</a>	



⑨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

#도심공동화 #사회적 고립 #집창촌 도시재생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  
○협업: 김윤섭, 신용재, 한석현 작가,  
팀AAA(송성진, 이창진, 김도영)

#미술

○활동명: 청주 내덕1동 도시재생 ‘밤고개’  
○기 간: 2020~2022년  
○내 용:  
-청주에서 진천방향으로 향하는 약700m길이의 밤고개는 1999년 이후 연초제조창(대규모 산업시설)이 문을 받으면서 함께 유흥업소들도 운영을 중단한 빈 거리임. 청주시는 이곳에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으로 274억원을 들여 변화를 시도. 예로 김윤섭, 신용재, 한석현 작가, 팀AAA(송성진, 이창진, 김도영)은 청주시에서 매입한 술집 16개소 가운데 몇 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새로운 동네의 분위기를 경험함.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예술가들을 통해 동일한 공간과 지역에 이전 유흥가 흔적을 지우고 예술작품을 담아 재해석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에게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경험하게 함. 나아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활성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URL:  
관련기사1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012128015&code=62011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012128015&code=62011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c2b)  
관련기사2 : <https://www.news1.kr/articles/?3860582>

⑩ 전주문화재단

#도심공동화 #사회적 고립 #집창촌 도시재생 #인권보호



○전북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 미술 #기타(공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기타( )

○활동명: 선미촌문화재생사업,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기 간: 2018~2020(지속예정)  
○내 용:  
-전북 전주시가 도시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를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재생사업으로 총 74억원이 투입됨. 핵심사업으로는 과거 성매매업소로 가득했던 선미촌 구간을 지역 예술들과 함께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이미지 변화 도모.

○URL : [http://www.jjcf.or.kr/main/jjcf/business/2020\\_subsidy/2020\\_26/](http://www.jjcf.or.kr/main/jjcf/business/2020_subsidy/2020_26/) (전주문화재단)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urbanfuture/221203941878>

⑪ 부산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심공동화 #사회적 고립 #집창촌 도시재생



○부산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협업: 시민

# 문학 #미술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기타( )

○활동명: 부산 완월동(현, 충무동), 도시재생 리빙랩

○기 간: 2019~2020년

○내 용:  
-전국 최대 성매매집결지 부산 ‘완월동’ 2019년 12월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폐쇄를 앞두고 2020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됨. 이와 관련하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리빙랩을 진행하며, 부산형 골목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단계를 진행함.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시민 주도적 참여를 시도함. 폐쇄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변화토대 마련.

○URL: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http://www.urcb.or.kr/web/board/view.do?mld=50&brdidx=34>

4) 환경,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① Gachi 예술활동 (Gachi Art Movement)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Gachi 예술운동(Gachi Art Movement)  
(대표자: 김정주, 조영희, 신무경, 임선희, 윤현미, 김덕현, 김보경)  
○설립년도: 2013(비영리민간단체 등록년도)  
○협업  
- 동부산 (SPACE 223, 문화기지)  
- 서부산 (GachiART)  
- 남부산 (나다소극장, 판플, 부산스러운 청년들)  
- 북부산 (Space UM, 이상한가게, 문화예술플랫폼 아도공간)

# 미술 #기타(다원)

○활동명: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지역문화활동가 지원사업 "Gachi Beach Combing (같이·가치 비치코밍<sup>77)</sup>)"

○기 간: 2020년도(2013년도부터 여러활동은 시작해오고 있음)

○내 용: 부산 포구(浦口)를 중심으로 지역을 학습하여 안내하며 비치코밍과 플로깅<sup>78)</sup>을 해가며 지역을 가꾸기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함.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 Gachi예술운동의 활동은 크게 Gachi상상, Gachi찾기, Gachi창조, Gachi공유의 네 가지로 나뉜다. 이는 일상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운동으로 단체와 시민이 함께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들을 만드는 문화예술활동이다. 같이 하는 예술, 함께하는 예술을 통해 시민에게는 가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여가생활 및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예술가에게는 지속적으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시민과 함께 예술을 공유할 사회적 역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URL : <https://gachiartmovement.modoo.at/>

77) 해변을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다. 주워 모은 물건을 재활용한 작품을 만듦으로써 재미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78)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② Route USA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Route USA (대표자: Adam Cole Barber)</li><li>○ 설립년도: 2017년 (※브라질 Projeto Route는 2011년 설립)</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문위원회: 생물학자, 환경분야 법조인 등</li><li>- 파트너(후원 등): Surfrider Foundation, Ocean Conservancy 등</li></ul></li></ul>
#기타(다원)	

- 활동명: Beach Cleans
- 기 간:
- 내 용
  - 봉사자(참여자)들이 해변 청소를 하면서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이해도를 높이며, 이를 활용하여 새롭게 예술작품의 원료로 창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서퍼, 환경운동가, 예술가들이 팀이 되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작품들은 사진으로 기록, 각종 SNS 등을 통하여 시각적인 효과로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쉽게 인지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세대들이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URL : <https://routeusa.org/>

③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li><li>○ 설립년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시, 지역문화진흥원, 부산시 북구청,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만덕천살리기운동본부</li></ul></li><li>※ 만덕다움 프로젝트 환경, 예술팀: 만덕고등학교 창체동아리, 마을교육공동체 고치 청년멘토, 만덕종합사회복지관</li></ul>
#기타(다원)	

- 활동명: 업사이클 가드닝 (2018,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 기 간: 2018. 4. 16. ~ 12. 1. / 2019. 4. 27. ~ 11. 23.
- 내 용
  - 현장학습 인근 바닷가에서 쓰레기 수거
  - 버려진 물건에 들쭉으로 스토리가 있는 미니정원, 화분을 제작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2018년 사업 기획자의 후기에 의하면 해당 활동은 환경문제와 생태교육을 접목하기 위한 첫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간의 한계와 행정업무의 미숙함 등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술가, 기획자들의 사회적가치 실천에 대한 의지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기획방법, 협업가능한 파트너 등을 연결해줄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URL : <https://www.facebook.com/farmpark.kr>

④ 부산환경공단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생곡 자원순환특화단지 전역에서 쓰레기의 매립, 재활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환경공단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li><li>○ 설립년도: 2016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최주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환경공단</li><li>- 후원: 부산은행</li><li>- 참여단체: 부산시환경교육센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에코언니아, 가치공작단 등 21개 단체</li></ul></li></ul>
#미술 #음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명: 2019 업사이클링 아트 페스타 (부제: 매립장옆동물원)</li><li>○ 기 간: 2019. 10. 16. ~ 10. 19.</li><li>○ 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치예술협동조합(대표: 김정주)이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와 함께 주관하였으며 청년예술단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진행</li><li>- 지역예술가 및 단체들의 업사이클링 아트 작품전 및 Art Talking, 문화공유 위한 영화제, 재활용 타악 퍼포먼스 공연 등 추진</li></ul></li><li>○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li></ul> <p>○영향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는 입주기업 지원 외에도 업사이클링 교육, 전시, 체험,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1층에 artspace 전시공간이 있어 예술가들의 폐자원을 활용한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li><li>-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업사이클링 언택트 체험으로 키트를 나눠주고 영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특히, 가치협동조합은 2020년 부산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리사이클링 아트 전시”를 artspace에서 운영 중임.</li><li>-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아트를 주로 하는 지역예술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활동이 돋보임. (2017년 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재활용 문화의 생활화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작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MOU체결) · 부산시 폐자원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아트 문화 육성을 위한 장소 제공 · 자원순환협력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문강사 지원 ·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artalk show) 등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개발 · 부산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li></ul> <p>○ URL : <a href="http://brc.beco.or.kr/kor/">http://brc.beco.or.kr/kor/</a></p>	

⑤ 프로젝트 GR


#일상속에서 다양한 예술의 경험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라는 지구적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프로젝트GR (대표자: 최동민)</li><li>○ 설립년도: 2013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부산광역시, 부산동구청, 부산시교육청, 홍콩다원예술그룹 IZEN</li></ul></li></ul>
#기타(다원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명: 2016 ECO ART TRIP</li><li>○ 기 간: 2016. 2. ~ 11. (2016. 9. 22.)</li><li>○ 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CO 퍼포먼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야외광장에 자전거발전기 설치, 전기에너지와 결합한 사운드와 버블 퍼포먼스의 콜라보. 퍼포먼스가 끝나면 모바일 지도앱(Art NOMAD Map)을 통해서 참여자 페달링으로 신체에너지 소모량, 탄소배출 감소량 등을 알리는 메시지 보내짐</li><li>· 태양열 조리기구와 즉흥 요리 퍼포먼스</li></ul></li><li>- P-미디어 퍼포먼스: 차없는 거리 지정으로 비워진 주차장의 비디오패핑</li><li>- 우당탕탕 퍼포먼스: 플래시몹 형태의 뮤지컬 퍼포먼스와 모바일 지도앱을 통한 온라인 아트 아카이빙 등</li></ul></li><li>○ 대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기타</li></ul> <p>○영향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교통주간 캠페인으로 9월 22일은 차 없는 날로 진행됨</li><li>- 2015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된 “2015 art trip in busan” 성과를 토대로 2016년 이어진 프로젝트임.</li><li>- 친환경교통 문제를 비주얼 아트, 모바일기술 등과 접목하여 축제형으로 접근하였음</li><li>- 협업기관별 특성에 맞는 협조를 이끌어냄 (부산기후변화네트워크는 eco 기술 자문, 자전거발전기 등 무상대여, 부산시 및 부산시동구청은 친환경교통주간 행사주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E-NCOM은 모바일 지도앱 개발 협력 등)</li></ul> <p>○ URL : <a href="http://e-archive.bscf.or.kr/23_db/db_view.php?part=g&amp;idx=1090">http://e-archive.bscf.or.kr/23_db/db_view.php?part=g&amp;idx=1090</a></p>	



5)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 통합

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단체명: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표자: 김채령)

○ 설립년도: 2000

○ 협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사진

- 활동명: 복지기관(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기 간: 2009.03. ~ 현재
- 내 용
- 연간 총 35회(70시수) 교육활동 진행(오리엔테이션, 교육활동,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평가회 등)
  - 논의를 통해 연간 사업운영 및 예산을 계획하며 예술강사와 적극 협력해 교육활동 지원
  - 미술을 통한 인생의 기억과 기록,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예술을 통해 풀어내고, 일상과 예술을 가깝게 하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임.
  - 활동을 통해 자기감정 표현기회를 제공하며 노년기에 나타나는 불안, 외로움, 자존감, 심신의 기능 등 심리적 문제를 경감시킴.
  - 또한 동일 세대간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URL : <http://www.hyojason.or.kr/>

② 社会福祉法人 素王会(사회복지법인 소오우카이)

#장애인과 예술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  
#장애의 유무를 떠나 예술인으로서의 우수한 재능을 강조  
#장애인의 고용기회나 수익구조의 확대(판로개척)



○ 社会福祉法人 素王会(사회복지법인 소오우카이)  
(대표자: 今中博之(Hiroshi Imanaka))

○ 설립년도: 2014

○ 협업:

# 미술 #문학 #기타(다원)

- 활동명: 장애인의 예술 표현을 [아트시장]에 묻는다. (障がい者の芸術表現を「アート市場」に問う)
- 기 간: 2019.12.26. ~ 현재
- 내 용
-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출판물이나 악세사리, 기념품 등을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실시하며, 전시회 등을 개최해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 그 외 강연회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작품을 [장애인 아트], [아웃사이드 아트], [Art Brut]가 아닌 [현대미술]로서 "시장"에 발표하고 [문화예술]분야가 "장애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활약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최대규모의 옥션하우스[Christie's]에서 아트딜러로 일했던 Michael Findlay는 아트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본질적 가치", "시장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 최근 장애인의 작품은 전시회에서는 많은 입장객을 동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관객을 매료시키고 마음을 사로잡는 [본질적 가치]는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성에는 주목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장적 가치]는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많은 예술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URL : <http://incurve.jp/>

③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문화예술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접목하여 사회적 문제 성찰, 감각하여 해결방안 모색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대표자: 김동규)  
○ 설립년도: 2010.03.31  
○ 협업: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문학 #출판 및 만화 #기타(문화예술교육)

○ 활동명: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터,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기 간: 2010.3.31. ~ 현재  
○ 내 용  
- 시민이 발휘한 일상 속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활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다.  
<대표 활동 연혁>  
- 2012년 (~계속) 시민의제 활동: 다양한 주제의 강의 및 토론회 진행  
- 2013년 12월 18일. 출판 사업(『시민의제사전 2014』 발간(격년 출판, 현재 2020까지 4권 출간, 『부산 원도심은 페스트리다』 출판, 『청소년을 위한 시민인성교육1: 공존』 출판, 『건다가 근대를 생각하다』 출판 등)  
- 2014년 12월 12일. 제3회 부산광역시 평생학습대상 ‘대상’ 수상  
- 2014년, 16년 17년 18년 반송, 동래, 강서지역 공공미술 사업진행  
- 2018년 04월 13일. 지역작가-시민-출판 네트워크 『달달독독』 시작  
- 그 외 각종 기행, 영화제 등을 간헐적으로 진행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 부산 지역의 민주주의와 문화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적 문화를 대중화하고 일 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긴장, 그리고 그 긴장의 해결 절차차를 민주주의적 가치와 결합시킨다.  
- 문화와 민주주의의 교육을 접목시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전국 최초의 기관이 나락한알이며, 이런 식의 교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 URL: <http://www.narak.kr/>

④ 오지필름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 사회의 문제적 현장에 연대하여 다큐멘터리로 기록 및 다큐영화 제작



○ 오지필름 (대표자: 문창현)  
○ 설립년도: 2012년  
○ 협업: 다큐멘터리 연출가

#영화

○ 활동명: 다큐멘터리 창작공동체 오지필름  
○ 기 간: 2012.01.23. ~  
○ 내 용: 독립다큐멘터리 제작 및 배급, 다큐멘터리 상영회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 장애인, 밀양송전탑 투쟁, 지역 노동현장의 노동문제, 예술영화관의 폐관 등,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과 지역사회의 문제적 현장에 연대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 지역문제에 집중하고 수도권중심의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URL: <https://ozifilm.tistory.com/>

⑤ 초록영화제

#환경영화,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및 토론을 통한 사회 문제 공유



○초록영화제 (대표자: 안중현)  
○설립년도: 2007년 6월  
○협업  
- 상영작의 주제에 따라 협업주체가 다름

#영화


○활동명: 초록영화제  
○기 간: 2007.06.22. ~ 현재까지  
○내 용: 공동체 상영 및 상영작에 대한 좌담 진행  
- 공동체 상영 이후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영화의 주제 또는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환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필요시 감독 초청이나 관련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을 섭외하여 감독과의 대화나 작은 강연을 하기도 함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 일반 영화관에서 보기 힘든 작품의 배급과 상영을 통해 작지만 의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상영 이후 좌담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으며, 영화에 대한 이해가 다채로워짐  
- 영화 주제와 관련된 대상과 협업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다양해짐

○URL  
Blog: <https://blog.naver.com/greenfilmcommune>  
Facebook: <https://ko-kr.facebook.com/greenfilmcommune/>

⑥ 영화문화협동조합씨네포크

#문화적 다양성 보호 #문화와 예술의 향유권 보장,  
#삶과 밀착된 문화예술 #예술 노동의 가치 보장



○영화문화협동조합씨네포크 (대표자: 김이석)  
○설립년도: 2019  
○협업  
- 부산독립영화협회, 독립서점, 지역 주민센터 등

#영화

○활동명  
- 문화 예술 축제 개최  
-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 상영회 및 영화제  
- 문화 예술 교육 사업  
○기 간: 2019.10.01. ~ 현재  
○내 용  
- 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예술 사업  
· 문화다양성 관련 영화제 개최 등  
- 지역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한 영화 상영 및 교육 프로그램  
· 상영회, 강연회, 스토리텔링 강좌, 체험 강좌 등  
- 영화를 매개로 한 지역 문화 사업  
· '마을 영화 공동체(커뮤니티 시네마)' 구성 컨설팅 등  
- 예술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술 교육 사업  
· 영화, 연극, 미술, 문학 등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 영화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영화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영화를 통한 예술적 · 정서적 체험은 획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대안적인 상영 공간 발굴과 다양한 상영 기회 제공 필요  
-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시네마' 구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영화를 활용하여 타 분야 예술을 접목한 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URL : <https://www.instagram.com/cine.folk.art/>

⑦ 미디토리협동조합

#시민들의 문화적 표현 증진 #커뮤니티미디어/공공미디어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디토리협동조합 (대표자: 김은민)</li><li>○설립년도: 2010.09.</li><li>○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산MBC 라디오, 초록영화제 등 다수</li></ul></li></ul>
#기타(미디어,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활동명<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0.10~현재, 시청자참여방송 부산MBC &lt;라디오시민세상&gt; 제작 지원</li><li>-2010~현재, 커뮤니티시네마 ‘초록영화제’ 운영위원 및 월 정기상영 지원</li><li>-소외계층, 사회적약자, 지역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li></ul></li><li>○기 간: 2010년~현재까지</li><li>○내 용: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표현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니다.”를 비전으로 시민들의 미디어 영상 제작, 활동 등을 지원함</li><li>○대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일반 <input type="checkbox"/>아동 <input type="checkbox"/>청소년 <input type="checkbox"/>장애인 <input type="checkbox"/>노인 <input type="checkbox"/>외국인 <input type="checkbox"/>기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영향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디토리협동조합은 2010년 9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업단 미디토리로 창업.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활동을 시작함. 2013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청년미디어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직원협동조합으로 운영 중</li><li>-지역이 가진 스토리와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일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미디어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제작 활동과 함께 커뮤니티 미디어, 공공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이웃과 공동체가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공존의 가치가 담긴 미디어 콘텐츠 생산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li></ul></li></ul>	
○URL : <a href="http://www.meditory.net/works">http://www.meditory.net/works</a>	

⑧ 비온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활성화 #동네 커뮤니티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비온후 (대표자: 이인미)</li><li>○설립년도<ul style="list-style-type: none"><li>-비온후 출판사 (2000년)</li><li>-비온후 책방 (2018년)</li></ul></li><li>○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망미동 동네책방들</li></ul></li></ul>
#문학 #사진 #출판 및 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활동명: ‘망미골목 아름다운 이웃’ 커뮤니티 조성</li><li>○기 간: 2019년~현재까지</li><li>○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망미골목 아름다운 이웃’ 커뮤니티 조성</li><li>-커뮤니티BIFF 프로그래머로 참여(망미골목 아름다운 이웃)</li><li>-‘망미골목 책방영화제’ 운영(5회)</li><li>-망미골목 주민 참여 전시 기획(본책나들, 못잊어못잊어01-엽서전)</li><li>-동네책방들(8곳)과 ‘매일매일책봄’ 행사 협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li></ul></li><li>○대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일반 <input type="checkbox"/>아동 <input type="checkbox"/>청소년 <input type="checkbox"/>장애인 <input type="checkbox"/>노인 <input type="checkbox"/>외국인 <input type="checkbox"/>기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영향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li>-비온후 출판사는 2000년부터 건축, 도시 분야 출판으로 시작한 부산지역의 출판사임. 20년간 부산 지역에서 출판을 계속해 오면서 건축에서 미술, 문화, 인문 등으로 영역을 넓혀 왔음. 2018년부터 망미동에 작은 책방과 전시장을 함께 운영하며 책과 함께 다양한 분야로 문화적 교류를 넓혀가고 있음.</li><li>-최근 망미동에는 작은책방, 독립서점과 전시공간, 개성있는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며 문화예술지구로 활성화되고 있음. 언론에서는 ‘망미단길’이라 부르며 지역 재생의 사례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공공적 지원이나 소비·상업적인 요소보다는 ‘망미골목 아름다운 이웃’과 같은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네트워크의 힘이 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음.</li></ul></li></ul>	
○URL : <a href="https://www.beonwhobook.com/">https://www.beonwhobook.com/</a>	



⑨ 공간 힘 (space heem)

#지역의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한 예술적 접근



○공간 힘 (space heem) (대표자: 서평주)

○설립년도: 2014년

○협업: 시각예술 분야 작가, 기획자 등

#미술


- 활동명: <보도블럭 아래에는 해변이 있다(2019)>, <우리는서로에 의해 허물어진다(2019)> 등 전시다수
- 기 간: 2014년~현재
- 내 용: 부산 팔도시장 인근에 위치한 공간 힘은 비영리 시각예술전시공간임. 사회문제에 대해 예술로 사유하고 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2-30대 기획자, 작가로 구성된 운영진이 전시를 기획하고 있음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영향분석
- 홍대불법촬영사건, 촛불혁명 이후 계급과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모순 등 여러 사회문제를 미술/시각예술로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작가, 기획자들을 집중 지원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끌어올리고 있음
  - 최근 대안공간들이 사라지거나 변화되면서, 지역 속 비판적 예술활동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예술정치공간을 지향하는 <공간 힘>의 활동은 예술의 사회적, 정치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URL : <http://spaceheem.com/>

⑩ 실험실 씨(Lab C)

#생태, 도시환경에 대한 예술적 접근, # 지역의 작은 이야기(미시적)들에 대한 접근



○실험실 씨(Lab C) (대표자: 박미라)

○설립년도: 2018년

○협업: 지역 예술인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일맥문화재단, 또따또가, 이바구캠프 등이 협업 추진

#미술 #기타(다원)

- 활동명: 소요(逍遙)의 시간 / 걷고 관찰하는 산책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사업)
- 기 간: 2020년
- 내 용
- 부산 동구에 위치한 수정산의 식물, 지역, 예술이 교차하는 경험으로 예술을 느끼고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활동 시행
  -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고 설치하고, 참여자는 수정산을 함께 걸으며 생태 환경과 예술을 체험하는 프로젝트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9월, 10월 중 산책 및 전시를 진행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영향분석
- 실험실씨는 도시, 예술, 생태, 환경을 가로지르는 창작, 문화와 생태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획개발, 미시적 리서치, 지역의 특수성과 미시적 리서치의 연결 등 생활주변 공간을 누비며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탐구하면서 예술의 관심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2017년 청년-장년 메이커즈 매칭 프로젝트, 2016-2018년 골목의 기억 도시의 상상 ‘영주동’, ‘수정동’ 등 지역 리서치와 전시회 등 지역의 작은 이야기들로부터 특성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예술과 지역, 생활의 접목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음


○URL : 소개자료

1) <https://m.blog.naver.com/labc2018/222051747210>

2) <https://issuu.com/changpaks/docs/>\_\_\_\_\_2019

⑪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고령화 문제 극복 #세대 간 갈등 해결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대표자: 황정미)  
○설립년도: 2007년  
○협업: 부산문화재단, 중구청 등

#미술 #기타(다원, 문화예술교육)


- 활동명
- 현재, 산복도로커뮤니티문화센터 운영
  - 2013, 지역특성화교육 ‘호모화투스’ 운영
  - 2019수정아파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지역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
- 기 간: 2010년~현재까지
- 내 용
- 시니어들과 함께 윗놀이와 화투를 결합하고, 동네 골목을 활용한 지도를 만들어 새로운 놀이 제작
  - 마을 노인들의 과거이야기를 인형극과 그림자극으로 제작하여 지역의 중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공연
  - 수정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 아트 작업 수행
  - 산복도로커뮤니티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시니어 및 세대 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영향분석
- 시니어들을 객체화하지 않고 주체로 예술활동에 참여시키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역 학교 학생들과 시니어들이 함께 세대간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도 제고

○URL : [http://e-archive.bscf.or.kr/23\\_db/db\\_view.php?part=g&idx=742](http://e-archive.bscf.or.kr/23_db/db_view.php?part=g&idx=742)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⑫ 부산을 변화시키는 예술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형 #마을 공동체 단위 주민 참여형



○주체  
1.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2. 피스오브클래식  
○기 간: 2019. 6. ~ 12.

#미술 #기타(다원, 문화예술교육)

- 내 용
- 사업명: 2019년도 문화나눔 사업
    - 1) 공유문화플랫폼365 운영
    - 2) 부산을 변화시키는 예술  세부사업 중 하나
    - 3) 문화·도시 매개자 네트워크 운영
  - 운영목적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프로젝트 활성화
    - 사회 속 문화·예술적인 움직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발굴
    - 사회적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 및 기획자 육성
  - 운영개요
    - 운영기간: 2019. 6. ~ 12.
    - 운영내용: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지역과 사회에 관심이 있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기획해 온 경험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
  - 운영결과: 총 40건 접수, 최종 2건 선정, 36,000천원 지원
  - 지원내역

연번	유 형	프로젝트명 (단체명)	사업장소	지원금액 (교부금액)
1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공간 노드 및 사무실	18,000,000
2	마을공동체 단위 주민 참여형	생의 찬미~ 나의 삶을 노래하다. (피스오브클래식)	동광동 BACH 한성1918	18,000,000

· 평가결과

연번	단체명	사업명(프로젝트명)	전문가 현장평가 (60점)	제3자 현장평가 (20점)	행정평가(20점)	총점 (100점)
1	노동예술지원 센터 흥	특수고용노동자백서	60	15	20	95
2	피스오브클래식	생의잔미~나의 삶을 노래하다	43	9	20	72

○영향분석

-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에 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불명확한 개념정리로 구체적인 실행논의에 혼선이 발생하며 한계를 가짐

-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의 특수고용노동자에서는 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정 노동자를 소재로 음원, 웹툰, 영상(웹툰 비디오) 등의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성

- 부산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노동자문제를 다루어 노동자 인권문제로 귀결시키고 과제해결을 위한 문제인식의 기회를 제공함

※ 참고자료



⑬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주체

1.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2. 인형극단 줄리

3.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

4. 극단이야기

5. 전문예술법인(사)에저또

6. 송협주판화공방

7. 올웨이코리아

8.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 큐브

9. 참스

10.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11. 윈즈

12. 소리숲

13. (주)중섭문화마을

14. 플레이더부산

15. 몽키즈댄스스튜디오

16. 극단이야기협동조합

17. (주)사콘느

18. (주)다소니

○기 간: 2020. 6. ~ 12.

#미술 #기타(다원)

○내 용

- 사업개요

- 사업명: 2020년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 사업비: 200,000,000원
- 사업목적: 특수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커뮤니티 아트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사업내용: 특수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커뮤니티 아트 지원

- 추진방향

- 특수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수혜대상의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추진
-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다각화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 특수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특수고용노동자, 감정노동자, 취준생, 한부모가정 등 특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계층

※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사업 현황(2020. 5. 기준)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경제적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1인당 9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연, 문화체험 활동 및 치유활동 지원
지리적 소외계층	이동형 무대지원(달리는 부산문화) 사업	무대차량 및 기획 공연 활동 지원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대상	적용 내용
사회적 약자 배려	▷ 특수소외계층 발굴,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지원
내부 역량 강화	▷ 특수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연계 협력	▷ 특수소외계층 관련 기관 및 문화복지활동 예술단체 연계 ▷ 부산 내 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시민 참여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영향분석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향후 결과 확인이 필요함. 단, 재단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화 향유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과 변별성을 찾기 어려움

⑭ Inclusive Arts Vermont

#장애를 가진 어린이, 어른들에게 자신감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을 활용함



- [미국] Inclusive Arts Vermont (구. Very Special Arts of Vermont)
- 설립년도: 1986년
- 협업: 공공기관, 학교, 지역단체, 예술가

#기타(다원, 문화예술교육)

○기 간: 연중

○내 용

- Arts education residencies (장애인,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
  - start with the arts(0~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 기반의 문해력을 키움)
  - collaborative integrated arts residencies(고도로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이 학교 교과목에 예술이 통합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직접 연계하여 활동)
  - high school performing arts(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adult arts education(장애인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
- Professional exhibitions (장애예술인 대상 프로그램)
- Capacity building (문화예술단체 대상 프로그램)
  -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 예술단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1:1 집중 교육을 제공
  - 마케팅(접근가능한 그래픽 디자인 활용 등), 구두설명(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 Training
  - 교육을 하는 예술가 및 교육자 대상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 adaptation, arts integration(통합예술교육),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차별화 교육) 등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영향분석


- 영유아, 중고등학생, 어른까지 생애주기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들의 개인적 삶의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자(문화예술단체, 박물관, 전시관 등)를 대상으로 운영함.
-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역할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술가와 교사의 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URL : <https://www.inclusiveartsvermont.org/>



⑮ 영도문화도시센터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관광약자와 동반가족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여행



본 사업은 2020 영도 1박2일 무장애 예술여행으로 진행됩니다.

2020 영도 1박2일 무장애 예술여행

문화도시 '영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산행워크북 배분하기

1박2일 여행

패키지 여행

영도문화도시센터

○영도문화도시센터 (대표자: 고윤정)

○설립년도: 2020년

○협업: 문화체육관광부, 영도구,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주)꿈꾸는베프

#기타(문화예술체험)

- 활동명: 2020 영도 무장애 예술여행 <그딴없는 여행>
- 기 간: 2020. 12. 11. ~ 12. 20.
- 내 용
- 장애인 전문 차량 배치
  - 수어통역사 및 활동보조 봉사자 배치
  - 예술적 경험을 위한 아티스트와의 만남 및 예술 체험 기회 제공
  - 식사 및 숙박 제공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영향분석

<출처: “영도로 떠나요, 무장애 예술여행”, 부산일보, 2020, 12. 6.>

- ‘모두를 위한 여행, 모두를 위한 도시 문화 정책’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음
- 코로나19로 고립감이 높은 장애인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휠체어 이용자,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특화 운영함

○URL : <http://ydct.or.kr/>

⑯ 그루잠프로덕션

#학업 부적응(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치유



○그루잠프로덕션 (대표자: 김형준)

○설립년도: 2013년

○협업

- (수혜기관) 위탁교육시설 대안학교 다온학교

#기타(문화예술체험)

○활동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 사업)

○기 간: 2019. 8. ~ 11.

○내 용

- 미술 및 무대교육, 토크콘서트, 마술공연, 멘토링 및 이야기 나눔 등을 통해 심적인 치유시간을 가지고 성취감, 자신만의 미래가치 등을 발견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영향분석

- 미술, 공연이라는 매개를 통해 학업중단위기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성을 회복시키려는 치유적 접근을 하고 있음.
- 대인관계 및 이타적 관점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통) 기획형 평가 간담회 의견 중 ‘치료와 치유’의 단어로 인해 참여자 본인이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함.

※ (공통)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사업의 결과보고서 서식 개선 필요

- 문화예술치유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정성적 결과의 정량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행복감, 자신감, 인식도 정도에 대한 조사 양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체의 역량, 인식 등의 변화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음.
- 계량적 결과는 발표작품수, 공연/전시/행사 횟수, 발간물 수, 참여 예술인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유료 관람객수, 사업횟수 등 뿐임

○URL : <https://www.gruejarm.com/>

⑰ 샘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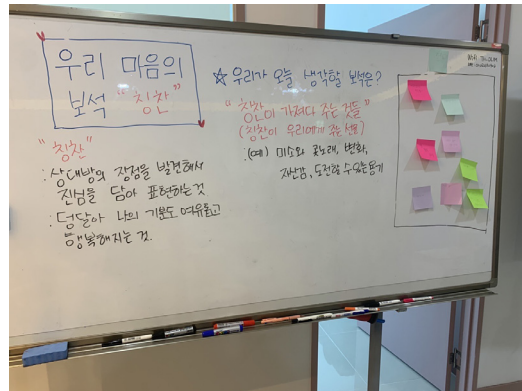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샘다움 (대표자: 이정미)</li><li>○ 설립년도: 2019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혜기관) 부산광역시청 민원120</li></ul></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 사업)</li><li>○ 기 간: 2019. 7. ~ 12.</li><li>○ 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편영화 감상, 영화에 맞는 캘리그래피, 티켓북 제작 등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li></ul></li><li>○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콜센터상담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향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화로 휴식을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줌으로써 자아 긍정 효과 기대</li><li>-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 강화</li></ul></li><li>※ (공통) 기획형 평가 간담회 의견 중 ‘치료와 치유’의 단어로 인해 참여자 본인이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함.</li><li>※ (공통)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사업의 결과보고서 서식 개선 필요</li><li>- 문화예술치유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정성적 결과의 정량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행복감, 자신감, 인식도 정도에 대한 조사 양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li><li>- 단체의 역량, 인식 등의 변화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음.</li><li>- 계량적 결과는 발표작품수, 공연/전시/행사 횟수, 발간물 수, 참여 예술인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유료 관람객수, 사업횟수 등 뿐임</li></ul>	
○ URL:	

⑱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여울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된 고위험 직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표현예술치료연구소 (대표자: 최지영)</li><li>○ 설립년도: 2013년</li><li>○ 협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혜기관) 부산지방경찰청</li></ul></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 사업)</li><li>○ 기 간: 2019. 5. ~ 12.</li><li>○ 내 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즉흥연주기법 연주, 협동작업, 밴드구성, 결과발표 등</li></ul></li><li>○ 대 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경찰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향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기 표현력 증가, 성취경험, 긍정적 신념 확장 등으로 내적 힘 강화</li></ul></li><li>※ (공통) 기획형 평가 간담회 의견 중 ‘치료와 치유’의 단어로 인해 참여자 본인이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함.</li><li>※ (공통)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사업의 결과보고서 서식 개선 필요</li><li>- 문화예술치유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정성적 결과의 정량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행복감, 자신감, 인식도 정도에 대한 조사 양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li><li>- 단체의 역량, 인식 등의 변화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음.</li><li>- 계량적 결과는 발표작품수, 공연/전시/행사 횟수, 발간물 수, 참여 예술인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유료 관람객수, 사업횟수 등 뿐임</li></ul>	
○ URL:	

①9 씨라비

## #가족 소속감 및 응집력 결핍



- 쌔라비 (대표자: 이숙영)
- 설립년도: 2019년
- 협업
  - (수혜기관)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기타

- 활동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 사업)
- 기 간: 2019. 7. ~ 12.
- 내 용  
: 어쿠스틱 악기 연주, 합주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알코올중독자 및 가족)

## ○영향분석

- 심리적 안정화 경험을 통한 사회성 회복, 정신적 상처 치유  
(스트레스 해소, 부정적 감정 해소, 긍정적 정서 함양, 성취경험을 통한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
-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취업취약계층, 청년예술가강사 등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간 문화(치유)활동 격차 해소
- ※ (공통) 기획형 평가 간담회 의견 중 ‘치료와 치유’의 단어로 인해 참여자 본인이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함.
- ※ (공통)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획형사업의 결과보고서 서식 개선 필요
- 문화예술치유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정성적 결과의 정량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행복감, 자신감, 인식도 정도에 대한 조사 양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체의 역량, 인식 등의 변화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음.
- 계량적 결과는 발표작품수, 공연/전시/행사 횟수, 발간물 수, 참여 예술인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유료 관람객수, 사업횟수 등 뿐임

○ URL:

②⑩ 부산문화재단

1) 2014 국악캠프 ‘얼씨구 좋다! 국악아 놀자’, ‘찾아가는 국악마당’

### #북한 이탈 학생 및 복지대상 학생(사회·문화적 부적응)



- 부산문화재단(대표자: 강동수)
- 설립년도: 2009년
- 협업
  - 국악강사
  - (수요조사) 해운대북지관, 장대현학교, 수영로교회 등

#음악

- 활동명: 2014 국악캠프 '일씨구 좋다! 국악아 놀자', '찾아가는 국악마당'
- 기 간: 2014. 8. 12. ~ 8. 14. / 2014. 8. 21.
- 내 용
- 국악이론 강의, 국악실기체험(사물놀이, 난타, 판소리, 민요), 전래놀이, 공연관람, 전통공예, 공동체어울림마당 (결과발표회)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얼씨구 좋다! 국악아 놀자’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학생 및 복지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북한 이탈 학생들이 사회적 노출을 꺼려 참여자 모집이 저조함에 따라 대상을 복지대상 학생 및 일반학생(초4~6)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 당시 북한 이탈 학생이 학습하는 기관인 해운대복지관, 장대현학교, 수영로교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를 진행하여 대상을 정하였음에도 발생한 상황으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분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찾아가는 국악마당’ 프로그램으로 수요조사 기관 중 한 곳이었던 장대현학교의 북한 이탈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국악캠프를 진행함.

○ URL : <http://www.bscf.or.kr/00main/main.php>

2) 실버문화 워크숍 ‘노소동락(老少同樂)’(노인과 젊은이(예술가)가 함께 즐김)

#부산 특화 사회문제 中 사회적 고립



2020 말춤 실버문화재단 사업  
**실버문화 워크숍 노소동락**  
노인과 젊은이(예술가)가 함께 즐김

실버문화재단 사회문화적 변화를 선도하고  
다각화된 실버문화활동의 정착을 위한  
실버문화 역량강화 워크숍  
일시: 2020. 12. 2 ~ 4 / 12. 9 ~ 11.  
장소: 중앙청로 부산시립중앙도서관 교육실  
대상: 실버문화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 기획자  
그리고 통근통학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모집인원: 회차별 신청자 15명  
※ 신청한 시민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Buncheon@bscf.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할 실버문화**  
2020. 12. 2 (화) 19:00 ~ 21:00  
한국문화재단연립동 지역문화혁신팀  
송은옥 팀장

2. **실버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1**  
2020. 12. 3 (목) 19:00 ~ 21:00  
발산마을 문화관 송명은 대표  
문화재단 C 김민찬 대표

3. **실버문화 프로그램  
기획 / 시연**  
2020. 12. 4 (금) 19:00 ~ 21:00  
중앙청로부산시립 중앙청로  
놀이활동가 김동재

4. **노년정책과 문화예술**  
2020. 12. 9 (수) 19:00 ~ 21:00  
김서노인종합복지관 문화관 관장

5. **노년심리를 통해 알아보는  
실버문화**  
2020. 12. 10 (목) 19:00 ~ 21:00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

6. **실버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2**  
2020. 12. 11 (금) 19:00 ~ 21:00  
아라가람 (사)특허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이원재

○ 부산문화재단(대표자: 강동수)  
○ 설립년도: 2009년  
○ 협업  
- 이미지랩 낫달

#기타

○ 활동명: 실버문화 워크숍

‘노소동락(老少同樂)’(노인과 젊은이(예술가)가 함께 즐김)

○ 기 간: 2020.12.2~12.11.

○ 내 용

- 부산 내 실버문화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예술가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및 활동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워크샵 추진

연번	일정	주제	내용
1	12. 2.(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본 실버 문화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본 실버문화 현황과 우수사례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혁신팀 송은옥 팀장
2	12. 3.(목)	실버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1	● 마을로 들어간 청년과 어르신의 만남(광주) ▶ 발산마을 프랜차 송명은 대표 ● 손으로 움직이는 기억(서울) ▶ 프로젝트C 김은현 대표
3	12. 4.(금)	실버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시연	● 몸과 마음열기 워크숍 ▶ 놀이 활동가 및 공유성복원탁회의 김용택 위원장
4	12. 9. (수)	노인정책과 문화예술	● 노인정책과 복지 · 문화예술의 연계성 ▶ 중구노인종합복지관 박한선 과장 ※ 기존 진행자 관외 이동 불가로 인한 진행자 변경
5	12. 10.(목)	노인 심리를 통해 알아보는 실버문화	● 노인 심리를 통해 알아보는 노인 문화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
6	12. 11.(금)	실버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2	●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 예술가 프로젝트(서울) ▶ 이야기청 디렉터 욱끼 ● 고령화시대, 나이들과 사회적 예술에 대하여 ▶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이원재 대표

○ 대 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영향분석

- 2022년 부산의 초고령 사회 진입과 105만명에 이르는 신 중년의 실버세대 대거 유입 등으로 인해 고령층 정책과 지원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실버문화활동에 대한 변화 모색과 문화예술의 확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URL : <http://www.bscf.or.kr/00main/main.php>

○ 국제뉴스 2020.11.25. 부산문화재단, 노소동락(老少同樂)- 실버문화 워크숍 개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307>



㉔ 극단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세월호 유가족 상처 치유



- 극단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 ※ 관련단체: 4·16공방, 4·16희망목공소, 4·16합창단, 4·16가족나눔봉사단
- 설립년도: 2016년 3월
- 협업: 연출가 김태현

#연극

- 활동명: ‘장기자랑’
- 기 간: 2019년 4월~
- 내 용: 2014년 단원과 2학년 학생들이 곧 있을 수학여행을 앞두고 장기자랑을 준비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극으로 연출한 것.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2015년 세월호 사고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목적 연극 수업이 활동의 시작. (‘연극 대본 읽기 모임’으로 시작. 2016년 3월 극단결성, 7월 첫 작품 ‘그와 그녀의 옷장’, 2017년 7월 두 번째 작품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2019년 4월 세 번째 작품으로 ‘장기자랑’ 초연) 일상의 회복이 어려운 유가족들이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고,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극작품이 만들어짐.

- URL:
-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https://www.facebook.com/starwithstar>
- 4·16 공방 <https://416.modoo.at/>
- 4·16 희망목공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17124085737974/>
- 4·16합창단 <https://www.facebook.com/416choir>
- 한국일보 2019. 04. 15. [세월호 5주년]피울음 삼키던 엄마들 "아이들 애기 무대 올리며 함께 일어섰어요" <https://news.v.daum.net/v/20190415044225528>

㉔ 극단 4·16 ‘늘품학교’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과 안전사회의 가치 교육



- 극단 4·16 ‘늘품학교’
- ※ ‘늘 품는다’
- 설립년도: 2019년
- 주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청소년교육프로그램

- 활동명: 4·16 ‘늘품학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기 간: 2019년~
- 내 용: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통해 생명존중과 안전사회의 가치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배우도록 세월호 유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4.16공방, 4.16희망목공소,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4.16합창단, 4.16가족나눔 봉사단의 유가족들이 선생님이 되어 프로그램 제공.

- 교실 ① 지구를 살리는 공방교실
- 교실 ② 마음으로 공감하고 몸으로 만나는 연극교실
- 교실 ③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목공교실
- 교실 ④ 서로의 소리를 품은 음악극 합창교실
- 교실 ⑤ 희망의 꽃을 피우는 나눔교실

- 대 상: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영향분석
-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이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배움으로 전하는 것으로 발전시킨 사례

- URL : 4·16늘품학교 <http://www.416school.co.kr/>
- 오마이 뉴스 2020.11.14. "아이들이 '힘내세요, 우리 세월호 다 알고 있어요'라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287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287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